

국립국어원 2004-I-11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한글연구서 ● 회화용

비 수 과 목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4-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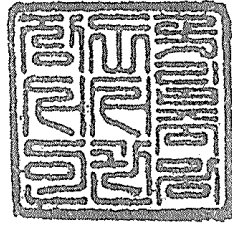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학예연구사 최혜원

2004



국립국어원



3374312

머 리 말

우리 국어원은 2001년 이래 장단의 발음 변화, 모음을 비롯한 개별 음소의 발음 변화 등 익히 알려져 있는 서울말의 변화가 실제 표준어 화자들의 발음에 얼마나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1년 외래어 발음 조사를 필두로, 일반인이 느끼기에 이미 변화가 꽤 진행되었는데 사전에는 그러한 언어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사전의 발음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단어들을 모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음의 음가 및 장단의 실현, 경음화 현상, ㄴ 첨가 현상, ㄴ-ㄹ 연쇄의 발음 등을 대상으로 한 2002년과 2003년의 조사에 이어, 올해는 국어에서 거센소리(ㅌ, ㅊ, ㅋ, ㅍ)로 끝나는 서른여덟 개의 단어가 다섯 가지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어떤 발음으로 실현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적게는 200명이 못 미치게, 많게는 300명을 약간 넘는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소규모 조사 형태를 탈피하여, 올해에는 서울 경기 지역 화자 중 40대 이상의 화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격한 언어 변화 시기를 거쳐 안정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제보자들의 발음이 조사 대상이 된 셈입니다.

조사 결과 단어마다 다양한 발음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받침이 무엇이냐에 따라 <표준 발음법>의 규정과 일치되게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높기도 하고 현격히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받침이라고 하더라도 단어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 ‘앞이 트였다’에서 ‘앞이’와 ‘오지랴이 넓다’에서 ‘오지랴이’는 대다수의 제보자가 [아피]와 [오지라비]로 발음하였습니다. 받침이 거센소리인 단어에 대해 <표준 발음법>은 ‘같은 음운 환경에 있는 같은 표기의 음소는 같은 발음이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 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언어 현실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의 고유한 장단음을 구별하지 않거나 된소리가 아닌 것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등의 언어 변화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말의 순수성을 망가뜨리는 국어 오염 행위로 보기도 합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발음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발음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여 교육의 힘으로 언어 변화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도 합니다.

국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체계 있는 언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 지속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막연한 느낌으로 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현대 국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21세기 초 서울말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23일

국립국어원 원장 남 기 심

차 례

머리말

1. 개 괄	1
2. ‘ㅌ’ 받침	6
2.1 단어별 경향	6
2.2 결합하는 조사별 경향	20
2.3 연령별 변이	23
2.4 학력별 변이	32
2.5 출신지별 변이	39
3. ‘ㄱ’ 받침	44
3.1 단어별 경향	44
3.2 결합하는 조사별 경향	46
3.3 연령별 변이	48
3.4 학력별 변이	51
3.5 출신지별 변이	53
4. ‘ㄷ’ 받침	55
4.1 단어별 경향	55
4.2 결합하는 조사별 경향	66
4.3 연령별 변이	71
4.4 학력별 변이	77

4.5 출신지별 변이	83
5. ‘표’ 받침	87
5.1 단어별 경향	87
5.2 결합하는 조사별 경향	97
5.3 연령별 변이	102
5.4 학력별 변이	107
5.5 출신지별 변이	112
6. 정 리	115
참고 문헌	117
부록 1. 설문지	119
부록 2. 인터넷 설문 결과	135
부록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1995년) 자료	161

1. 개 관

언어 공동체에서 보이는 언어 자원이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언어 표현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변이를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의 발달과 교육의 보편화에 의해 그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표준어의 보급은 언어 변이와 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받침이 거센소리 ‘ㅌ, ㅍ, ㅋ, ㅊ’로 끝나는 38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이들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에(서), 은/을/으로, 의, 아’와 결합할 때 사회 언어학적 요인인 세대별, 학력별, 출신지별¹⁾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들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 받침 그대로 연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언중들의 언어에서는 흔히 ‘ㄴ, ㄷ, ㄱ’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어마다 그 실현 양상이 달라 서울말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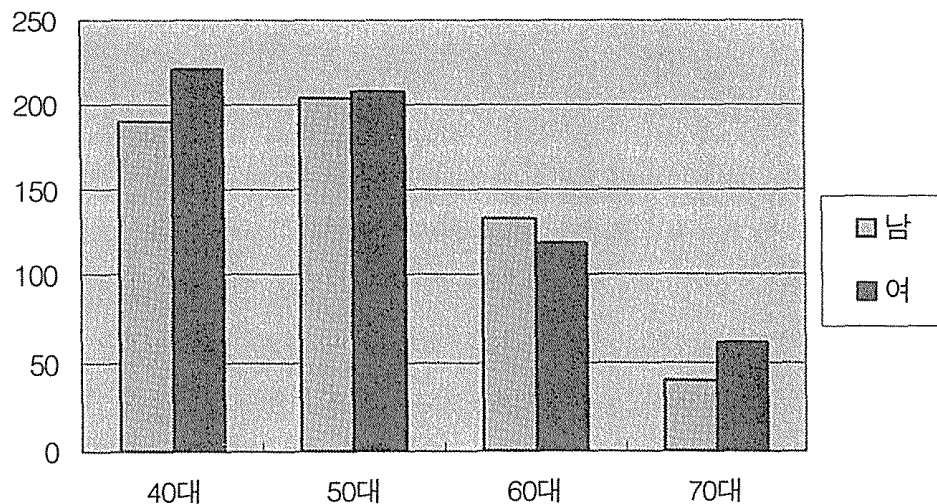
전통 방언학의 방법론과 달리 서울말과 같은 도시 방언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계층,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한 표본 추출을 통해서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수도 충분해야 한다.²⁾

여기서 제보자로 택한 서울말 화자는 2003년 표준 발음 실태 조사와 마찬가지로 제보자 본인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출신이고 부모 모두 역시 서울, 인천 경기 출신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다. 간혹 부모 중 한 분이 타 지역 출신인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 남성 제보자는 565명, 여성 제보자는 609명으로 모두 1174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410명(남 190, 여 220), 50대 412명(남 204, 여 208), 60대 이상은 352명(남 173, 여 181)으로 이 중 70대 이상이 102명을 차지하였다. 이전 조사와 달리 비교적 언어적 변이가 적은 40대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성별 분석을 하지 않았다.

2) 대표성이 보장되는 한 아무리 복잡한 언어 사회라고 하더라도 150명 이상의 제보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잉여적이다. 언어 행위는 식품에 대한 기호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기호보다도 더 동질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조사처럼 많은 수의 샘플이 필요치 않다. (Sankoff(1980), Lesley Milroy(198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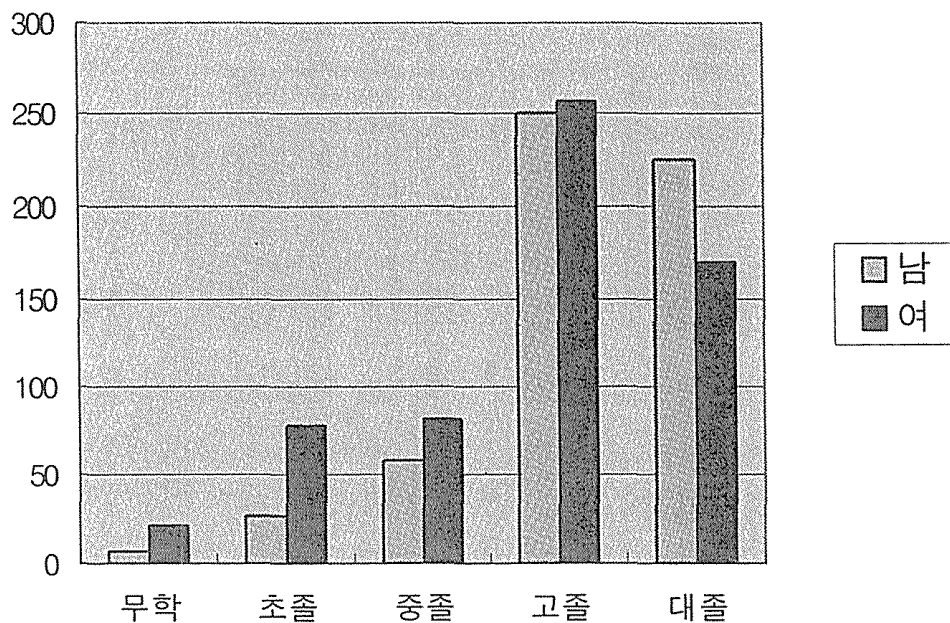
남				여			
40대	무학	0	190	40대	무학	1	220
	초졸	2			초졸	0	
	중졸	4			중졸	16	
	고졸	79			고졸	117	
	대졸	105			대졸	86	
50대	무학	1	204	50대	무학	3	208
	초졸	7			초졸	17	
	중졸	28			중졸	33	
	고졸	98			고졸	88	
	대졸	70			대졸	67	
60대	무학	2	131	60대	무학	4	119
	초졸	13			초졸	41	
	중졸	20			중졸	27	
	고졸	56			고졸	28	
	대졸	40			대졸	19	
70대	무학	2	40	70대	무학	13	62
	초졸	5			초졸	20	
	중졸	6			중졸	6	
	고졸	17			고졸	23	
	대졸	10			대졸	0	
			565				609



또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 26명(남 5, 여 21), 초졸 105명(남 27, 여 78), 중졸 140명(남 58, 여 82), 고졸 506명(남 250, 여 256), 대졸 397명(남 225, 여 172)으로 고졸 이상이 전체 76.9%를 차지하였다. 특히 무학의 경우 제보자 분포상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여 다른 학력의 제보자와 동등한 학력

별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였다.

남				여			
무학	40대	0	5	무학	40대	1	21
	50대	1			50대	3	
	60대	2			60대	4	
	70대	2			70대	13	
초졸	40대	2	27	초졸	40대	0	78
	50대	7			50대	17	
	60대	13			60대	41	
	70대	5			70대	20	
중졸	40대	4	58	중졸	40대	16	82
	50대	28			50대	33	
	60대	20			60대	27	
	70대	6			70대	6	
고졸	40대	79	250	고졸	40대	117	256
	50대	98			50대	88	
	60대	56			60대	28	
	70대	17			70대	23	
대졸	40대	105	225	대졸	40대	86	172
	50대	70			50대	67	
	60대	40			60대	19	
	70대	10			70대	0	
			565				609



이번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 단어 38개가 각각 주격 조사 ‘이’, 처격 조사 ‘에(서)’, 목적격 조사 또는 도구격 조사 ‘을’, ‘으로’, 소유격 조사 ‘의’,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에 유기음 받침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190개의 조사 대상어를 문장 속에 넣어 설문지(부록 참조)를 구성하였다. ‘ㄷ’ 받침으로 끝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비표준어, 방언, 북한어, 옛말 제외) 367개 중 열두 개, ‘ㄷ’ 받침으로 끝나는 표제어 704개 중 열한 개, ‘ㄲ’ 받침으로 끝나는 표제어 241개 중 열 개, ‘ㄴ’ 받침으로 끝나는 표제어 전체 23개 중 두 개를 선정하였다³⁾.

ㄷ: 겹, 결, 끝, 날, 뒤결, 머리맡, 물, 밑, 바깥, 발, 별, 살, 술, 머리술, 팔

ㄷ: 꽃, 낮, 닳, 돛, 뗏, 덧, 햇빛, 살갓, 솟, 옷, 옷

ㄲ: 늪, 무릎, 섰, 숲, 앞, 옆, 오지랖, 잎, 벗짚, 형겅

ㄴ: 부엌, 새벽녘

체언 어간말에 나타나는 단일 자음 중 ‘ㄲ, ㄷ, ㄸ, ㄷ, ㄴ, ㄴ’은 다른 자음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다. (무릎>무릅, 발>밧, 젓>젓, 꽃>꽃, 부엌>부엌)

이 중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간말 자음이 유기음인 명사 어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ㄷ, ㄴ, ㄷ, ㄲ’이 ‘ㄴ, ㄴ, ㄴ’으로 실현되는 것은 발음상의 편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종의 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 경제의 원칙에 의해 화자는 좀 더 발음상 노력이 덜 드는 것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조음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을수록 발음상의 편이성은 증가하게 된다.

체언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 경향은 체언의 자립성이 강해짐에 따라 자립했을 때의 이형태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데 말미암는다. 이 변화는 단어에 따라 진행이 이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지만 같은 단어라도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변화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⁴⁾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 국어학 전공의 석사 과정 이상의 조사자 여덟 명이 서울 경기⁵⁾ 지역의 화자 150명씩의 제보자를 섭외하여 미리 마련된 설문지를

3) 조사 대상 단어 38개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국립국어연구원, 2002)에 수록되어 있는 58,438개 일반 어휘에 나오는 것 중 빈도수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옷’의 경우는 순위 밖의 단어이다.

4) 유필재(2001)에 따르면 서울말에서 ‘잎~입, 부엌~부엌’은 현재 재구조화 과정에 있고 ‘무릅(<무릎>, 벗짚(<벗짚>, 형겅(<형겅>)은 이미 재구조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2) 서울, 경기 동북부(가평, 포천, 양평), 경기 동남부(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 서북부(고양, 파주, 양주, 김포, 의정부, 동두천, 인천, 부천), 경기 서남부(광명, 과천,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화성, 평택) 다섯 군데로 나누어 출신지별 화자의 발음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제보자 수는 서울 446명, 경기 동남부 112명, 경기 동북부 179명, 경기 서남부 126명, 경기 서북부 311명으로 서울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다소 편중되었다.

바탕으로 제보자가 평소 해당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물어 그 결과를 질문지에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 의식 조사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언어 행동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 언어 행동과는 달리 상식적으로 가장 적당한 항목(대개는 표준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언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을 얻기 쉽다⁶⁾. 이번 조사는 실태 조사로는 이전에 없었던 큰 규모로 지금까지의 발음 실태 조사와는 달리 제보자의 음성을 녹음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발음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못하였다.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는 제보자들이 일상 상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언어 행동을 일체의 간섭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담아 낼 수 있지만 대량의 정보를 단기간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질문지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얻은 질문지의 답은 OMR 카드로 작성하여 OMR 카드 판독기로 읽어 들여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6) J. C. Wells는 롱맨 발음 사전을 개정하기 위해 발음 선호도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고 발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 능력이 있는(speech-conscious) 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전에 반영한 바 있다. 발음 인식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화자 자신이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어떤 발음을 선호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ㅌ’ 받침

체언 어간의 받침이 ‘ㅌ’으로 끝나는 조사 대상어는 ‘곶, 곶, 뒤곶, 머리말, 밑, 바깥, 밭, 별, 살, 술, 머리술, 팔’으로 모두 열두 단어이다. ‘ㅌ’ 받침으로 끝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수는 총 367개(북한어, 방언, 비표준어, 옛말 제외)인데 이 중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⁷⁾

조사 결과 ‘곶, 곶, 곶, 뒤곶, 머리말, 밑, 바깥, 밭, 별, 물’ 등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나, 가장 고빈도 단어인 ‘곶’의 경우 목적격 조사 결합형인 ‘곶을’에서 다른 단어와 달리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표준 발음 응답률이 낮아졌다.⁸⁾

곶	곶	밑	물	머리말	밭	바깥	곶	별	뒤곶	술	팔	살	술	날
(86.4)	(83.5)	(83.2)	(76)	(74.2)	(72.8)	(72.5)	(62.9)	(61.1)	(60.4)	(51.1)	(43.5)	(38.9)	(36.5)	(32.2)

표1. 단어별 표준 발음 평균 응답률(‘ㅌ’ 받침)

2.1 단어별 경향

2.1.1 곶

‘곶’은 처격 조사 ‘에’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⁹⁾ 약 94%의 응답률을 보였다. ‘곶이’는 약 80%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0%는 [거시]라고 응답하였다. 학력별, 연령별, 성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70대(전체 102명) 이상에서 약 93%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 발음이 관찰되었다. ‘곶의’는 약 87.8%, ‘곶으로’는 약 87.1%의 표준 발음을 보여 ‘곶의’와 ‘곶으로’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곶아’의 경우 [거타] 약 68%, [거사] 약 20%, [거다]가 약 7% 정도로 나타났다.

7) 곶: 333, 밑: 652, 밭: 1554, 곶: 1586, 바깥: 2626, 곶: 2759, 햇별: 4751, 팔: 8256, 머리말: 9124, 술: 9201, 물: 18514, 뒤곶: 23057, 술: 23910 머리술: 32351, 고살: 9365, 날: 41338 국립국어연구원(2002) 참조

8)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다른 조사에 비해 대부분의 단어들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격히 낮았다.

9)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다른 조사와 달리 처격 조사 ‘에’는 생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음화가 적용될 여지도 그만큼 줄게 되기 때문에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보다 재구조화되는(ㅌ→ㅅ) 비율이 낮다.

	표준 발음	[ㅅ]
겉이	80.7	18.25
겉에	93.95	5.05
겉으로	87.1	1.45
겉의	87.75	8.5
겉아	68.05	20.4

표2. ‘겉’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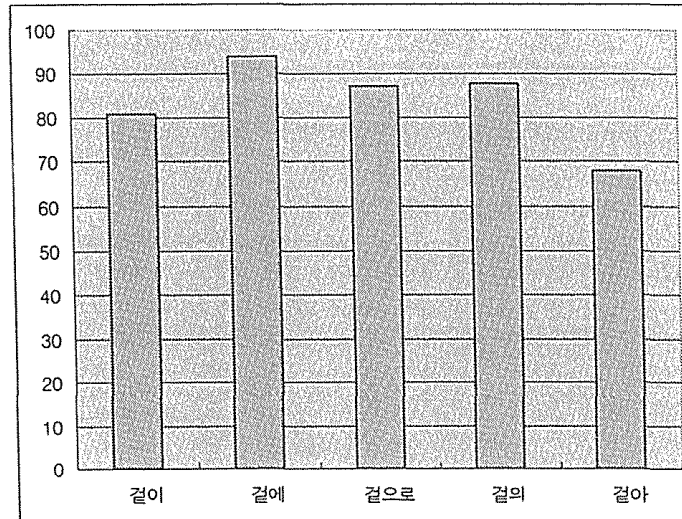


그림1. ‘겉’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2 겉

‘겉’은 ‘겉’과 마찬가지로 ‘겉에’일 때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다른 단어에서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던 조사 ‘이’가 결합되는 형태가 이 단어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은 순부터 배열하면 ‘겉에, 겉의, 겉이, 겉아, 겉을’이 된다. ‘겉에’는 약 97% 정도의 표준 발음으로 보였고, ‘겉아’의 경우 [거타]가 약 72%, [겨사]가 약 14%, [겨차]가 약 8% 비율을 보였다. 다른 단어에서 대부분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던 호격 조사 ‘아’가 결합된 형태가 ‘겉’에서는 비교적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겉을’의 발음으로는 [겨틀]이 72%, [겨출]이 약 37%, [겨슬]이 약 7% 정도로 나타났다. 받침 ‘ㅌ’가 조사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마찰음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겉을’의 경우 [겨슬]보다 [겨출]로 발음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표준 발음	[ㅅ]
결이	88.5	9.05
결에	96.85	2.2
결을	55.5	6.95
결의	91.4	4.75
결아	72.3	14.3

표3. '결'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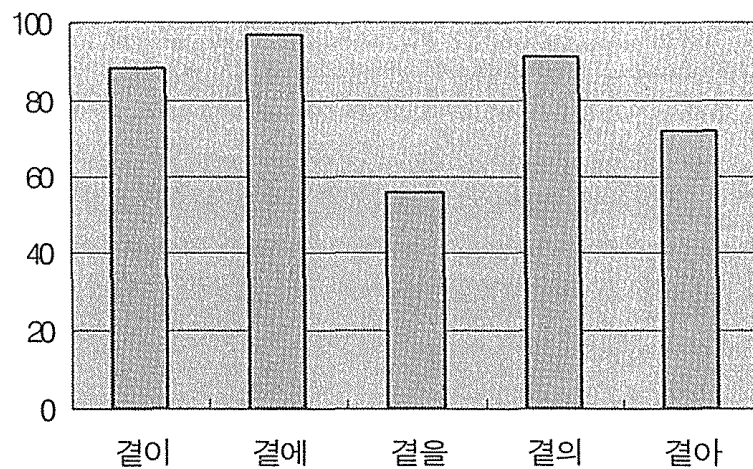


그림2. '결'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3 끝

‘끝’은 ‘끝에서, 끝의, 끝이, 끝아, 끝을’ 순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단어에서 ‘끝을’이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고 ‘끝아’가 표준 발음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은 받침 ‘ㅌ’가 붙은 나머지 단어의 결과와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끝아’의 경우 [크타]와 [크사]는 비슷한 비율로 발음되었고 [크다]는 11.85%로 나타났다. ‘끝을’의 경우 [꼬틀], [꼬슬] 두 발음 모두 약 23% 비율로 나타났으며 [꼬출]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3.05%로 나온 것은 다른 ‘ㅌ’ 받침 단어들보다 높은 수치로 눈에 띄는 결과이다¹⁰⁾.

10) ‘결을’을 [거출]로 발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발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준 발음	[ㅅ]
끝이	77.3	22.4
끝에서	89	10.45
끝을	24.5	22.3
끝의	79.7	12.45
끝아	44.15	40

표4. '끝'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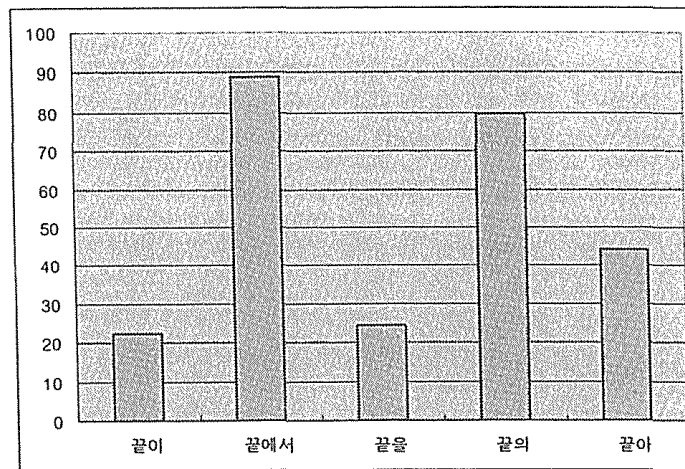


그림3. '끝'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4 날

‘날’은 다른 단어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이면서 표준 발음 응답률도 낮게 나타났다. ‘날이, 날의, 날에, 날아, 날으로’ 순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받침 ‘ㄷ’이 붙은 단어에서 조사 ‘에’가 결합될 때 대부분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와는 달리 이 단어에서는 28.05%만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하였고 [나세]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에 육박했다¹¹⁾. ‘날으로’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된 경우와 마찰음 [ㅅ]로 발음된 경우 외에도 [나츠로]가 31.45% 나왔다.

11) ‘겉’이나 ‘결’과 달리 장소의 의미가 없어 처격 조사와의 결합 빈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단어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준 발음	[人]
날이	55.05	38.5
날에	28.05	59.95
날으로	22.4	42.95
날의	30.95	54.8
날아	24.65	54.45

표5. ‘날’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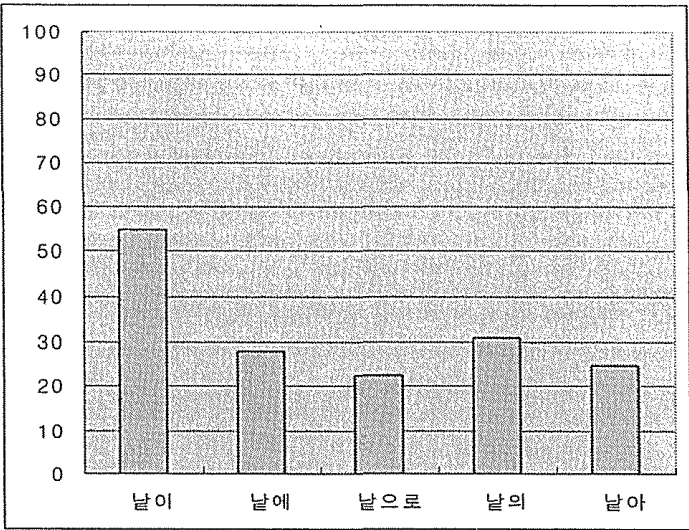


그림4. ‘날’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5 뒤결

처격 조사 ‘에’가 붙을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으로’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았다. ‘뒤결으로’를 [뒤껴츠로]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7%가 나와 [뒤껴트로](34.2%)나 [뒤껴스로](24.75%)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준 발음	[人]
뒤결이	69.15	29.1
뒤결에	84.8	14.25
뒤결으로	34.2	24.75
뒤결의	73.35	23.25
뒤결아	46.3	41.8

표6. ‘뒤결’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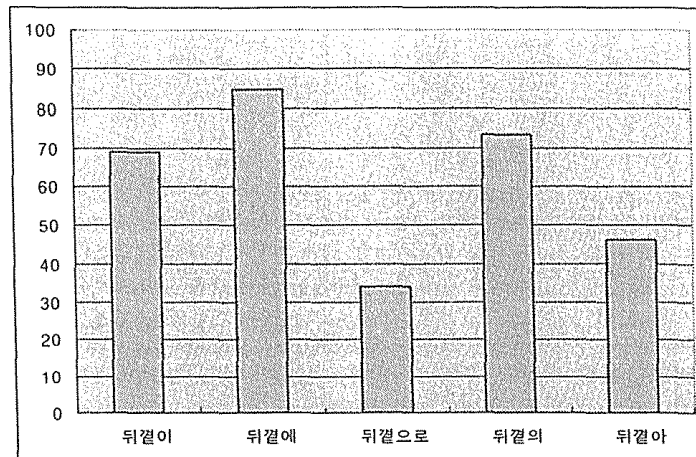


그림5. '뒤결'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6 머리말

‘머리말에’는 93.8%로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고 대부분 [머리말에]로 발음하는 ‘머리말의’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호격 조사와 결합할 때보다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할 때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머리말을’은 [머리마틀](55.45), [머리마슬](10.05) 외에 [머리마출]이 34.1% 발음되었다.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머리말아’는 [머리마타], [머리마사] 외에 [머리마다]로 발음한 비율이 8.7% 나타났다.

	표준 발음	[入]
머리말이	78.35	20.55
머리말에	93.8	5.85
머리말을	55.45	10.05
머리말의	81.9	12.8
머리말아	61.25	25.75

표7. ‘머리말’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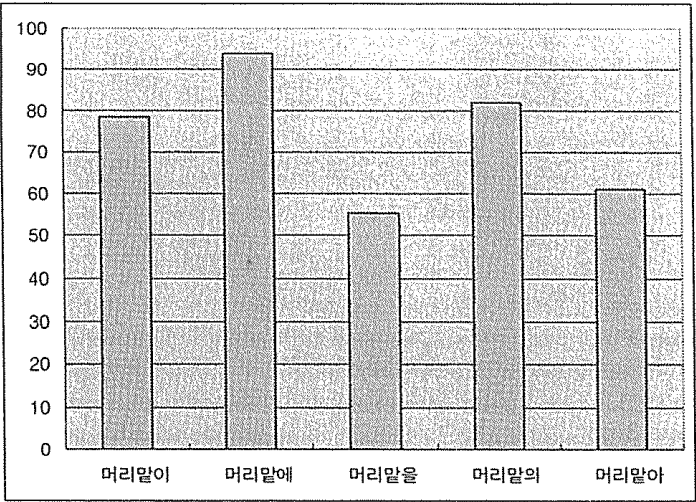


그림6. 머리말’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7 물

‘물에서’와 ‘물이’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물에서’와 거의 유사하게 발음되는 ‘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물아’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물으로’는 [무트로], [무스로] 외에 [무츠로]로 19.2%로 발음되었다. ‘물아’는 [무타], [무사] 외에 [무다]가 11.3% 나타났다.

	표준 발음	[入]
물이	82.5	12.7
물에서	82.85	3.05
물으로	72.9	7.1
물의	77.85	11.3
물아	63.7	20.8

표8. ‘물’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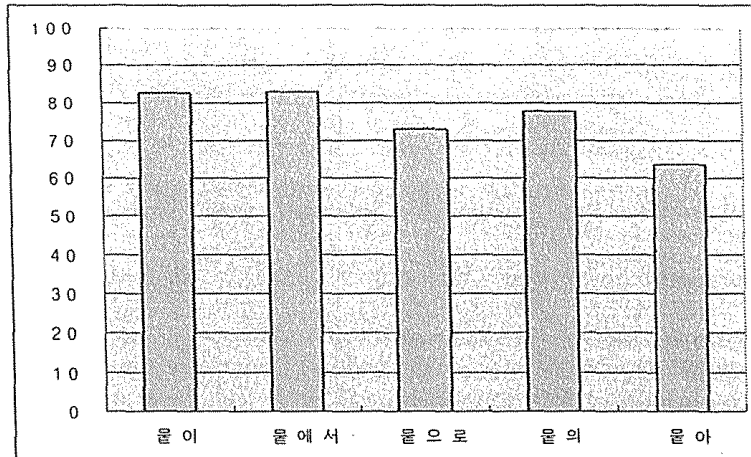


그림7. '물'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8 밀

‘밀에서’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밀이’, ‘밀으로’, ‘밀의’ 순이며 ‘밀아’가 가장 표준 발음 비율이 낮다. ‘밀으로’는 대다수가 [미트로]로 발음한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미스로]로 발음된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고 [미츠로]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14.55% 나왔다.

	표준 발음	[入]
밀이	88	11.25
밀에서	94.85	4.65
밀으로	83.5	1.85
밀의	82.35	0
밀아	67.1	18.85

표9. '밀'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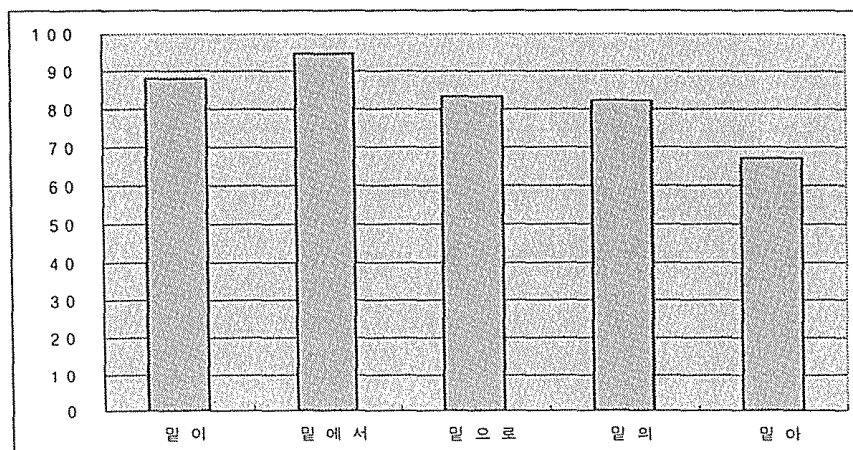


그림8. '밀'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9 바깥

‘바깥에’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바깥에’와 발음을 유사하게 하는 ‘바깥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호격 조사가 결합한 ‘바깥아’는 [바까사](38.2%)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높아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표준 발음	[入]
바깥이랑	69.8	29.4
바깥에	89.05	10.35
바깥으로	69.8	20.55
바깥의	82.55	14.45
바깥아	51.3	38.2

표10. ‘바깥’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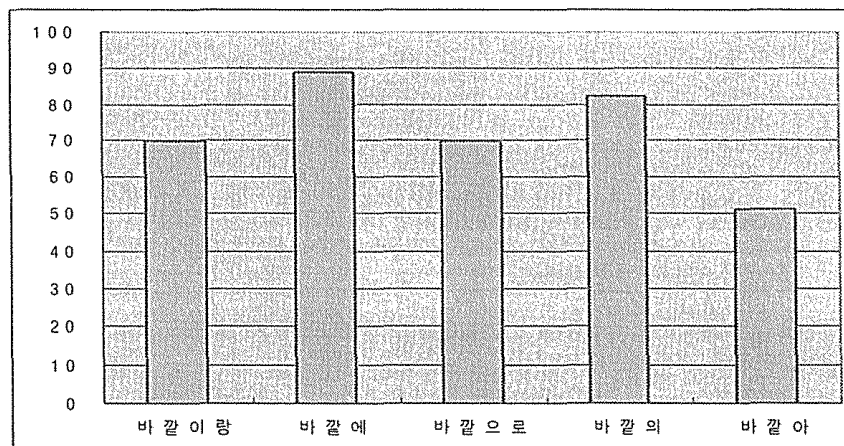


그림9. ‘바깥’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0 발

‘발에다’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발으로’, ‘발이’, ‘발의’, ‘발아’ 순으로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다. ‘발으로’는 [바트로], [바스로] 외에 [바츠로]가 15.75% 나왔다.

	표준 발음	[入]
발이	76.15	23.35
발에다	88.05	11.4
발으로	77.05	7.05
발의	76.2	20.15
발아	46.55	34.15

표11. '발'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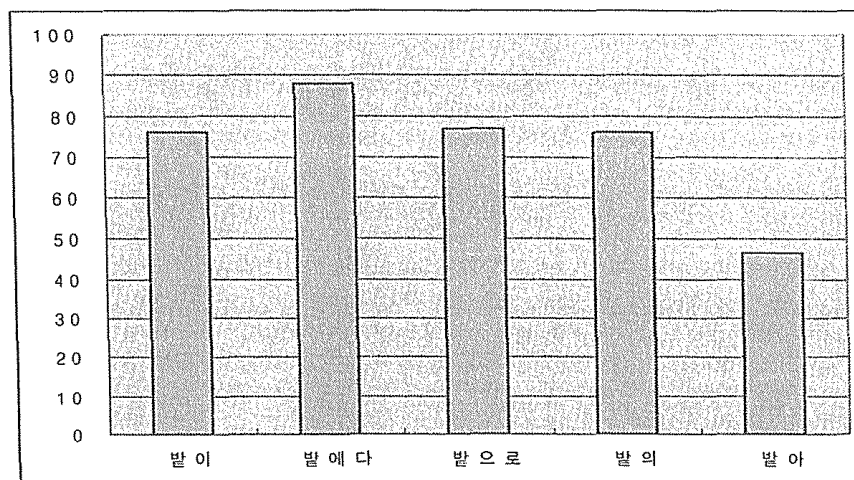


그림10. '발'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1 별

'별에'와 '별이'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햇별으로'와 '별아'가 가장 낮았다. '별으로'는 [벼트로], [벼스로] 외에 [벼츠로]가 24.55%가 나왔다. '별아'도 [벼타], [벼사] 외에 [벼다]가 11.65% 나왔다.

	표준 발음	[入]
별이	75.6	23.45
별에	76	22.05
햇별으로	46.6	28.25
별의	60.95	31.45
별아	46.55	38.55

표12. '별'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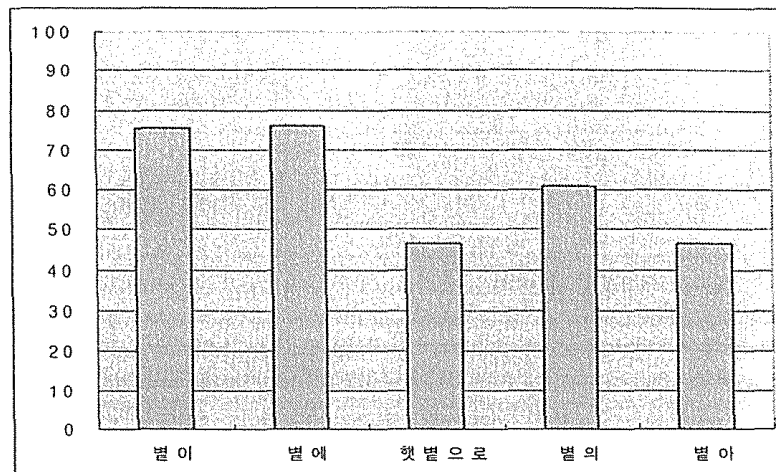


그림11. '별'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2 살

‘살’은 ‘날’과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다른 단어에 비해 낮은 단어인데, 표준 발음 비율도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조사와 결합할 때의 표준 발음 비율이 전반적으로 50%를 넘지 않았다. ‘살에’, ‘살이’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살아’, ‘살의’이며 ‘살을’이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다. ‘살을’은 [사틀], [사슬] 외에 [사출]이 21.1% 나왔으며 ‘살의’도 [사틱/사테], [사식/사세] 외에 [사척/사체]가 18.05%가 나오는 등 과잉 구개음화된 형태가 꽤 세력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살아’는 [사타], [사사] 외에 [사다]가 10.6% 나왔다.

	표준 발음	[ㅅ]
살이	47.85	45.05
살에	45.5	43.65
살을	24.5	50.95
살의	37.55	39.85
살아	38.85	44.25

표13. '살'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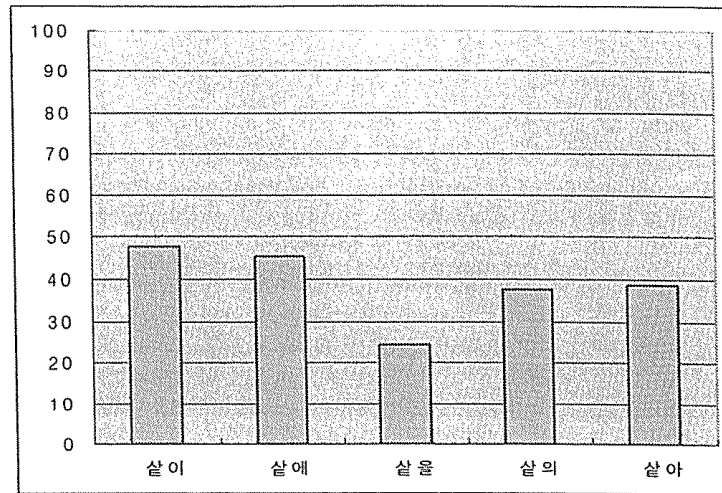


그림12. '살'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3 술

‘술에서’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술의’, ‘술이라’, ‘술으로’ 순이며 ‘술아’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다. ‘술으로’는 [소트로], [소스로] 외에 [소츠로]로 12.5% 발음되었으며 ‘술아’는 [소타], [소사] 외에 [소다]로 9.8% 발음되었다.

	표준 발음	[入]
술이라	52.9	46.5
술에서	69.5	28.95
술으로	44.65	42.3
술의	54.05	40.95
술아	34.4	54.05

표14. '술'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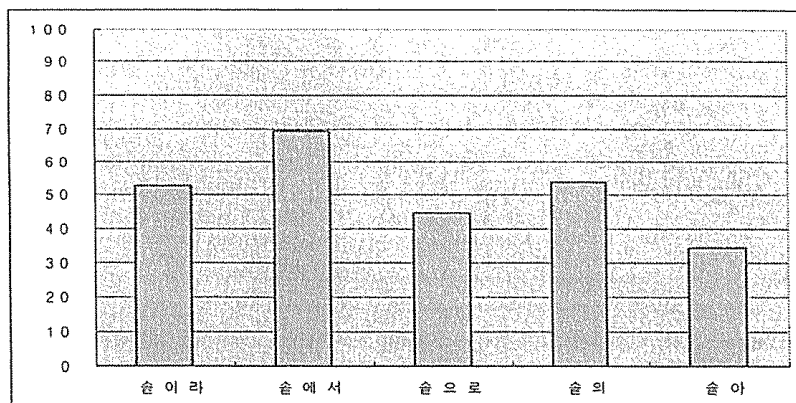


그림13. '술'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4 술

‘술’은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준 발음보다 [ㅅ]로 발음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머리술이’와 ‘머리술에’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술아’가 그 다음이며 ‘술의’, ‘술을’ 순이다. ‘술을’은 [수틀], [수술] 외에 [수출]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24.45%가 나왔으며 ‘술의’는 [수퇴/수테]와 [수식/수세] 외에 [수척]라고 응답한 비율이 20.75% 나왔다. ‘술아’는 [수타], [수사] 외에 [수다]로 12.05%가 나왔으며 드물지만 [수차]로도 응답한 경우가 2.6% 관찰되었다.

	표준 발음	[ㅅ]
머리술이	48.8	50.55
머리술에	47.5	49.6
술을	21.85	52.4
술의	28.45	47.1
술아	35.85	47.05

표15. '술'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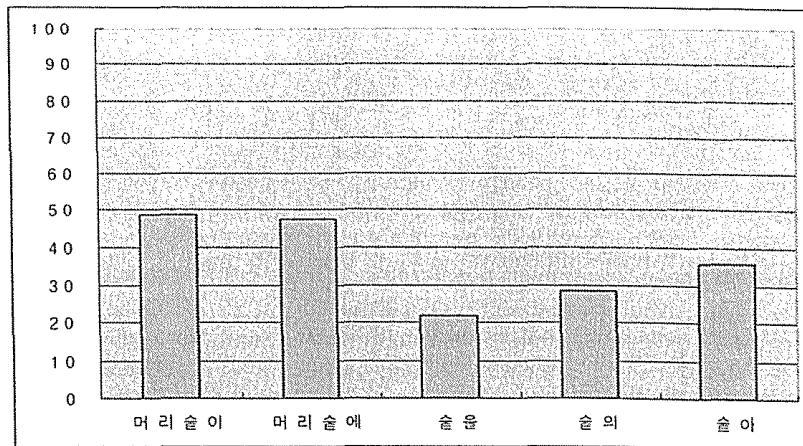


그림14. '술'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1.15 팔

‘팔’은 비교적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편이다. 결합하는 조사별로 살펴보면 ‘팔에서’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고 ‘팔아’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팔으로’는 [파트로], [파스로] 외에 [파츠로]가 16% 나왔고 ‘팔의’는 [파틱/파테], [파식/파세] 외에 [파치/파체]가 11.4% 나왔다. ‘팔아’는 [파타], [파사] 외에 [파다]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15.55%로 나타났다.

	표준 발음	[入]
팔이	55.95	43.35
팔에서	60.9	37.7
팔으로	41.45	41.55
팔의	34.8	52.2
팔아	24.3	58

표16. '팔'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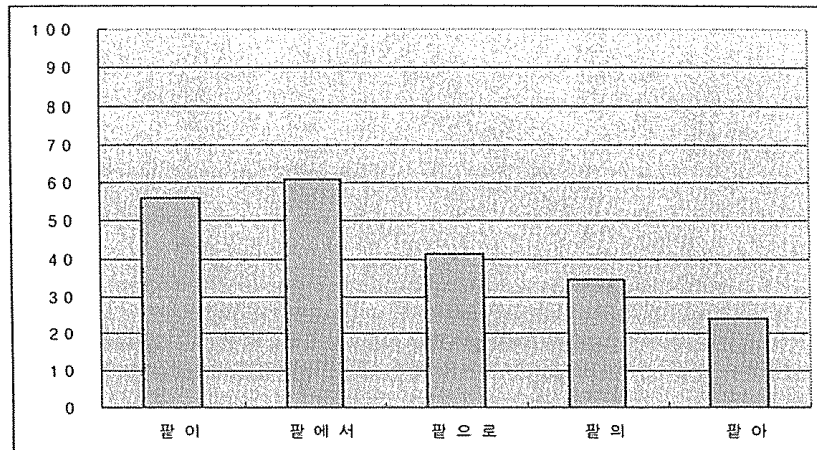


그림15. '팔'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2 결합하는 조사별 변이

개별 조사와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날, 살, 머리술'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단어에서 조사 '에'가 결합될 때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날, 살, 머리술'의 경우는 조사 '이'가 붙을 때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처격 조사 '에'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것은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다른 조사와 달리 처격 조사 '에'가 생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음화가 적용될 여지도 그만큼 줄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준 발음 비율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 것은 호격 조사 '아'¹²⁾가 붙을 때였는데 여느 조사와 결합할 때보다도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다. 'ㄷ'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중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들이 대체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온 결과를 볼 때 제도 교육 내에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기회가 매우 적은 호격 조사 '아' 결합형이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조사 '의' 경우는 대부분의 화자가 [에]로 발음하기 때문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의]로도 발음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그 응답 수치가 조사 '에'와 결합할 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12) 조사 대상 단어가 호격 조사와 결합하는 상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평소 발음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자신의 발음이 어떤지에 대해 답하라는 요구가 다소 무리하다고 느껴졌다.

조사 '이'	조사 '에'	조사 '의'	조사 '을, 으로'
결이(88.5)	결에(96.9)	결의(91.4)	결으로(87.1)
말이(88)	말에서(94.9)	말의(87.8)	말로(83.5)
물이(82.5)	겉에(94)	바깥의(82.6)	밖으로(77.1)
겉이(80.7)	머리말에(93.8)	말의(82.4)	말로(72.9)
머리말이(78.4)	바깥에(89.1)	머리말의(81.9)	바깥으로(69.8)
끝이(77.3)	끝에서(89)	끝의(79.7)	겉을(55.5)
발을(76.2)	발에다(88.1)	말의(77.9)	머리말을(55.5)
별이(75.6)	뒤겉에(84.8)	발의(76.2)	햇별로(46.6)
바깥이랑(69.8)	말에서(82.9)	뒤겉의(73.4)	솔로(44.7)
뒤겉이(69.2)	별로(76)	별의(61)	팔로(41.5)
팔이(56)	솔에서(69.5)	솔의(54.1)	뒤겉으로(34.2)
날이(55.1)	팔에서(60.9)	살의(37.6)	끝을(24.5)
솔이(52.9)	머리솔에(47.5)	팔의(34.8)	살을(24.5)
술이(48.8)	살에(45.5)	날의(31)	날로(22.4)
살이(47.9)	날에(28.1)	술의(28.5)	술을(21.9)

표17. 'ㅌ' 받침 어간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받침 'ㅌ'가 붙은 단어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찰음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지배적으로 많았지만 조사 '으로', '을'이 결합될 때는 [ㅅ]로 발음되는 비율보다 [ㅊ]로 발음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받침 'ㅌ'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구개음화 현상을 확대 적용한 결과로, '겉으로' [겨츠로], '끝으로' [꼬츠로], '날로' [나츠로], '뒤겉으로' [뒤겨츠로], '머리말을' [머리마츨]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았다.

겉으로	87.1	거스로	1.45	거츠로	10.75
밑으로	83.5	미스로	1.85	미츠로	14.3
밭으로	77.05	바스로	7.05	바츠로	15.5
물으로	72.9	무스로	7.1	무츠로	19.05
바깥으로	69.8	바까스로	20.55	바까츠로	9.4
곁을	55.5	겨슬	6.95	겨츠로	36.95
머리맡을	55.45	머리마슬	10.05	머리마츄	34.05
햇볕으로	46.6	햇벼스로	28.25	햇벼츠로	24.65
술으로	44.65	소스로	42.3	소츄	12.4
팔으로	41.45	파스로	41.55	파츄	16.15
뒤곁으로	34.2	뒤껴스로	24.75	뒤껴츠로	40.5
끝을	24.5	끄슬	22.3	끄츠로	52.95
살을	24.5	사슬	50.95	사츄	21.2
날으로	22.4	나스로	42.95	나츠로	31.5
술을	21.85	수슬	52.4	수츄	24.55
	50.76		24.03		24.26

표18. ‘ㅌ’ 받침 어간의 ‘으로, 을’ 결합형 발음 비율

조사 ‘아’가 결합될 때는 마찰음 [ㅅ] 이외에도 파열음 [ㄷ]로 발음되는 경우도 관찰이 되었지만 그 비율은 [ㅅ]에 비해 높지 않았다.

곁아	72.3	겨사	14.3	겨다	7.9
곁아	68.05	거사	20.4	거다	6.8
밑아	67.1	미사	18.85	미다	10.1
물아	63.7	무사	20.8	무다	11.3
머리맡아	61.25	머리마사	25.75	머리마다	8.7
바깥아	51.3	바까사	38.2	바까다	7.4
밭아	46.55	바사	34.12	바다	16.45
볕아	46.55	벼사	38.55	벼다	11.65
뒤곁아	46.3	뒤껴사	41.8	끄다	11.85
끝아	44.15	끄사	40	뒤껴다	8.95
살아	38.85	사사	44.25	사다	10.6
술아	35.85	수사	47.05	수다	12.05
술아	34.4	소사	54.05	소다	9.85
날아	24.65	나사	54.45	나다	10.1
팔아	24.3	파사	58	파다	15.55
	48.35		36.70		10.62

표19. ‘ㅌ’ 받침 어간의 ‘아’ 결합형 발음 비율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 ‘에(서)’가 결합할 때 제일 높고 ‘의’, 그

다음이 ‘이’, ‘으로, 을’ 순이며 조사 ‘아’와 결합할 때가 표준 발음 비율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조사	표준 발음
이	60.82
에(서)	76.04
으로, 을	50.76
의	65.32
아	48.35

표20. 받침 ‘ㄷ’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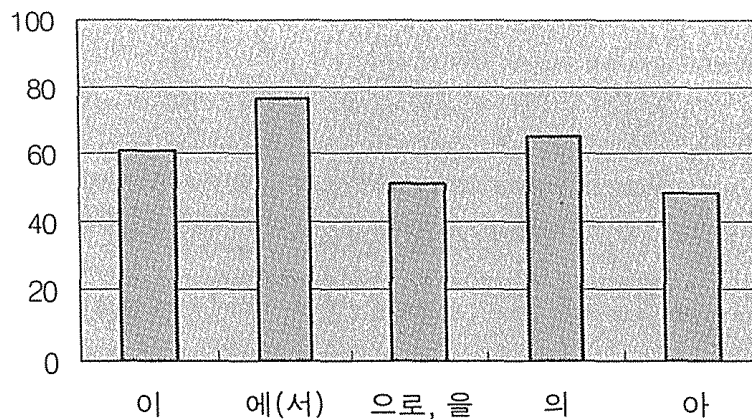


그림16. 받침 ‘ㄷ’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2.3 연령별 변이¹³⁾

연령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40대와 70대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나 다른 연령층과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표준음	ㅅ	표준음	ㅅ	표준음	ㅅ	표준음	ㅅ
밑이	89.5	10	90.3	9	84.1	14.3	81.4	18.6
결이	88.6	9	92.7	5.8	81.3	14.3	88.2	9.8
물이	85.4	11.9	85.7	11.1	79	12.7	66.7	22.5
머리말이	81.8	17.5	76	22.5	76.6	23	78.4	18.6
끝이	81.5	18	71.2	28.3	78.2	21.8	83.3	16.7
같이	79.1	20	82.6	16.5	80.2	19.4	81.4	15.7

13) 홍미주(2003)에서는 대구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체언말 ‘ㄷ, ㅌ’ 받침의 실현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대체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개신형 [ㅅ]으로의 실현 비율이 높아졌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ㅅ]의 실현이 대구 지역에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별이	79.1	20.4	75.1	24.5	72.6	25	71.6	27.5
밭이	78.3	21.4	74.6	24.9	73.4	26.2	80.4	17.6
뒤곶이	76.2	21.9	64.2	34.4	65.5	33.7	69.6	25.5
바깥이랑	73.5	26	67.6	31.7	64.7	34.9	75.5	21.6
팔이	56	43.3	54.7	44.3	54	45.6	66.7	33.3
날이	55.7	39.7	52.5	42.4	57.1	33.7	57.8	29.4
솔이라	51.3	47.9	52.1	47.5	55.2	44.8	57.8	40.2
머리솔이	50.9	48.9	46	52.8	50	49.6	49	50
살이	47.7	46.7	44.3	48.7	49.6	42.1	58.8	30.4
평균	71.64	26.84	68.64	29.63	68.10	29.41	71.11	25.16

표21.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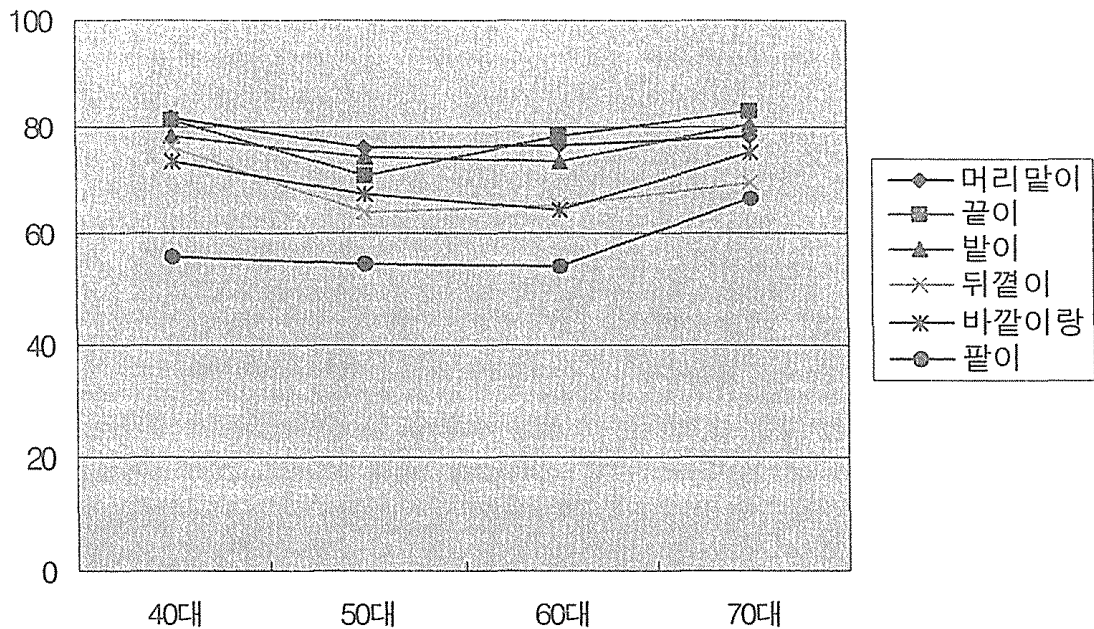


그림17.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1)

‘머리말이’, ‘끝이’, ‘밭이’, ‘뒤곶이’, ‘바깥이랑’, ‘팔이’에서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50대와 60대 화자의 응답률이 낮고 40대와 70대에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밭이’, ‘물이’, ‘별이’는 40대에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솔이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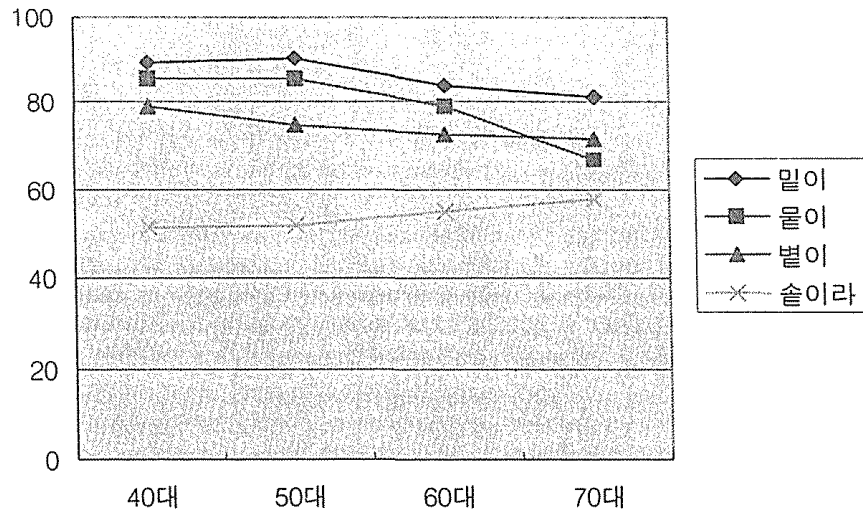


그림18.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2)

처격조사 '에'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응답률의 평균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40대		50대		60대		70대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결에	97.3	1.2	98.1	1.7	94.4	4.8	95.1	2
머리말에	95.9	4.1	94.9	4.6	90.1	9.5	90.2	8.8
겉에	95.1	3.9	95.4	4.6	90.5	6.3	91.2	8.8
밑에서	95.1	4.4	96.4	3.4	91.3	7.5	96.1	3.9
바깥에	93.7	6.3	87.7	11.6	86.5	12.3	81.4	17.6
발에다	91	8.8	86.9	12.1	85.7	13.5	86.3	13.7
끝에서	90.3	9.5	89.3	9.9	87.3	11.5	86.3	13.7
뒤곁에	88.1	11.2	83.8	15.5	81.3	17.9	84.3	12.7
물에서	87.8	2.4	84.7	1.5	78.2	4	66.7	9.8
별에	76.6	21.4	74.1	23.2	77.4	22.2	77.5	19.6
솔에서	70.3	27.7	69.7	29.1	69.4	30.2	65.7	30.4
팔에서	61.8	37	61	37.8	59.1	40.5	59.8	34.3
머리솔에	51.6	47	45.5	51.8	44	53.2	47.1	43.1
살에	46	45.5	43.1	44.6	46.4	41.7	51	37.3
날에	28.5	60.1	23.7	66.3	32.5	55.6	33.3	44.1
평균	77.94	19.37	75.62	21.18	74.27	22.05	74.13	19.99

표22.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

특히 '바깥에', '끝에서', '물에서', '솔에서'는 그러한 연령별 응답률의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ㄷ'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전체에 대해 연령이 낮아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아지는 언어 변화를 겪고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듯이 특정 단어('별에', '살에', '날에')에서는 60-70대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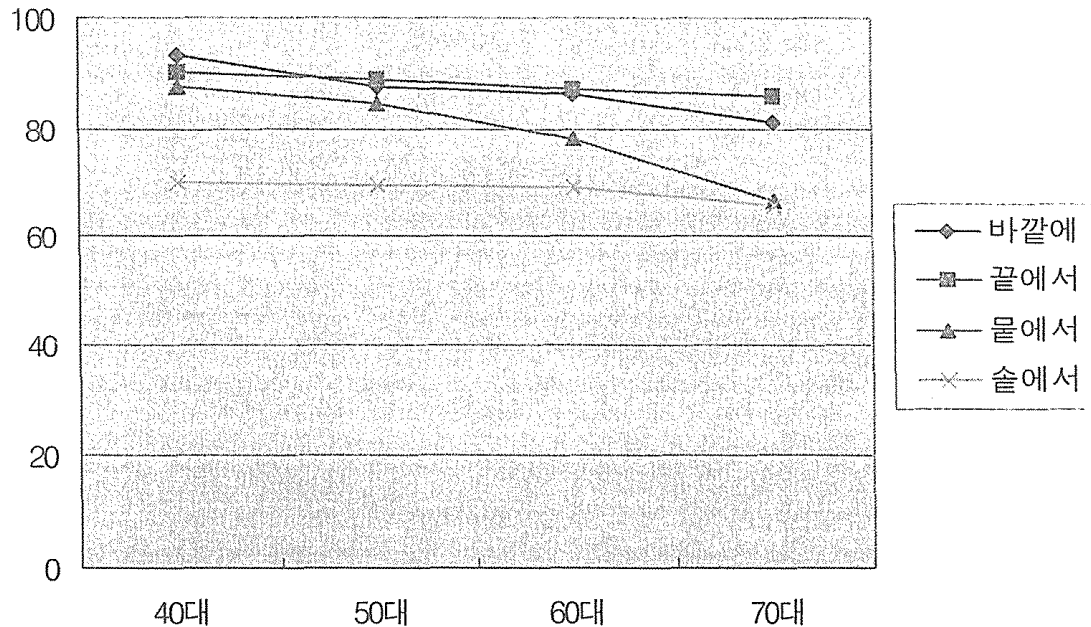


그림19.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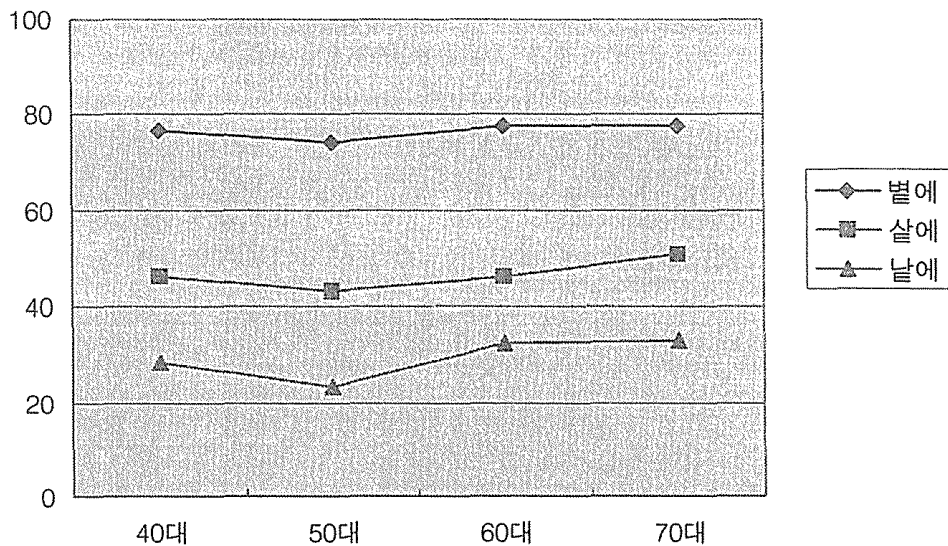


그림20.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1)

'으로'가 결합한 형태에서 연령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60대와 7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40대		50대		60대		70대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걸으로	91.5	1.5	87.2	0.7	82.1	2.4	81.4	2
밀으로	84.4	1.5	84	1.7	80.6	2.8	84.3	2
밭으로	77.9	6.3	77	7.5	75.8	6.7	77.5	8.8
물으로	73.2	5.8	74.1	6.1	70.2	7.1	73.5	16.7
바깥으로	69.6	19.5	69	21.3	71	20.6	70.6	21.6
곁을	57.9	4.6	56.9	7	51.6	9.9	49	8.8
머리맡을	56.7	9.2	53	7.5	53.6	15.1	64.7	10.8
햇볕으로	45.3	27	42.9	32	49.2	27.8	60.8	20.6
술으로	38.9	43.8	46.5	42.4	48.8	40.9	49	40.2
팔으로	38.7	43.1	40.2	41.6	45.6	40.1	47.1	38.2
뒤곁으로	32.8	23.8	35.4	24.7	33.7	29.8	37.3	15.7
술을	23.6	49.9	18.4	55.4	23.8	51.2	23.5	52.9
날으로	22.9	41.6	16.9	48.7	28.2	39.3	28.4	34.3
살을	22.1	53.3	23	54.7	29.8	45.2	26.5	40.2
끝을	20.9	20.2	24.9	21.5	27.8	25.4	28.4	25.5
평균	50.43	23.41	49.96	24.85	51.45	24.29	53.47	22.55

표23.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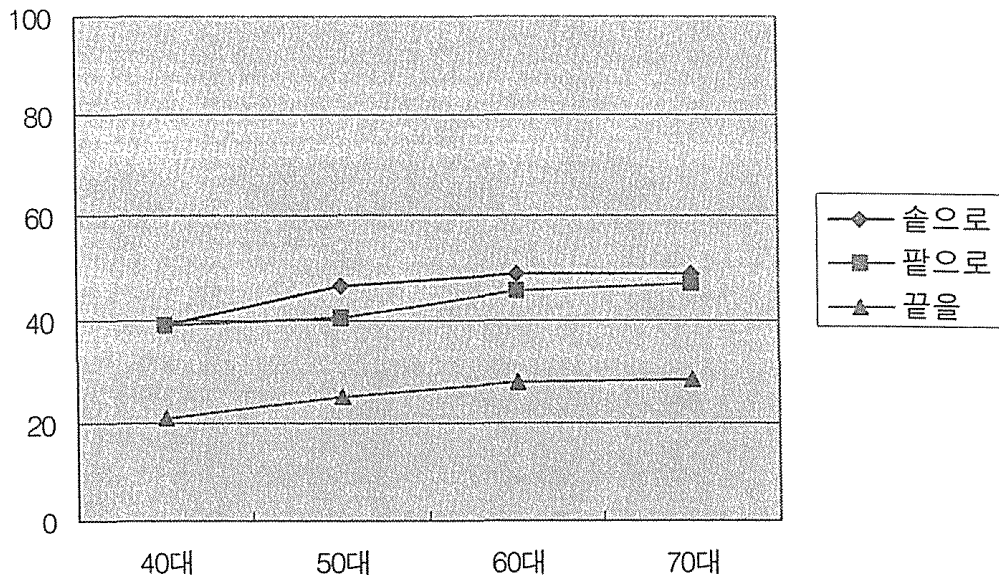


그림21.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조사 결합형1)

이러한 평균값의 비교는 개별 단어를 비교해 볼 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걸으로’와 ‘곁을’은 [ㄷ]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하는 표준 발음 비율이 연령이 낮은 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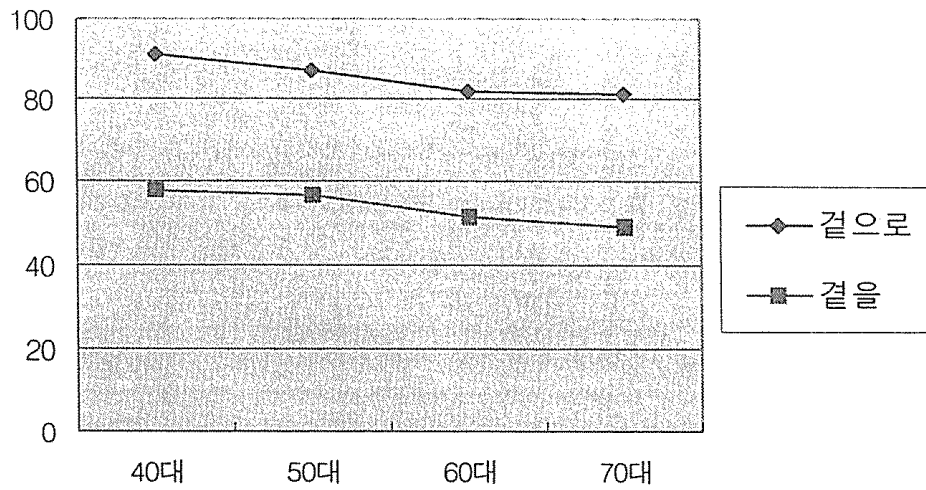


그림22.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조사 결합형2)

소유격 조사가 결합한 ‘ㄷ’ 받침 단어의 평균 표준 발음 응답률은 40대와 70대가 높았고 50대, 40대 순으로 낮아졌다.

	40대		50대		60대		70대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결의	93.9	3.4	90.6	5.3	88.9	6.3	91.2	3.9
걸의	90.5	6.3	88.4	8	85.3	9.5	80.4	16.7
머리말의	84.2	11.2	79.9	14.5	80.6	12.3	84.3	13.7
바깥의	83.9	14.1	81.8	14.8	80.2	15.1	85.3	12.7
물의	82.2	10	77.7	10.4	72.6	13.1	73.5	15.7
끝의	81.5	10.2	78.2	13.6	79	13.9	80.4	13.7
밀의	81		82.8		82.1		87.3	
발의	73.2	22.4	75.8	20.6	79.8	17.1	80.4	17.6
뒤걸의	73	23.6	73.6	23.2	72.2	23	76.5	22.5
별의	60.8	31.9	58.4	33.7	63.1	28.6	66.7	28.4
술의	52.8	40.1	53.5	42.4	55.6	40.9	57.8	38.2
살의	39.4	38.7	33.2	44.3	42.1	35.7	36.3	36.3
팔의	37.2	49.9	29.5	55.7	35.7	53.2	44.1	45.1
술의	32.1	45.3	24.9	49.2	27.4	46.4	30.4	48
날의	31.1	55.2	27.1	61	32.9	51.6	41.2	36.3
평균	66.45	25.86	63.69	28.34	65.17	26.19	67.72	24.91

표24.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

이 중 ‘발의’, ‘별의’, ‘술의’, ‘술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걸의’, ‘물의’는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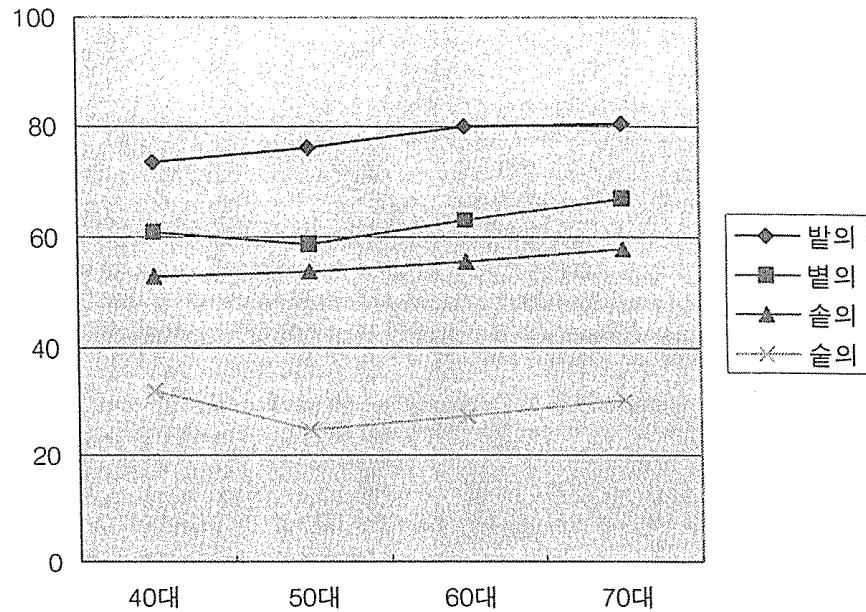


그림23. 받침 'ㅈ'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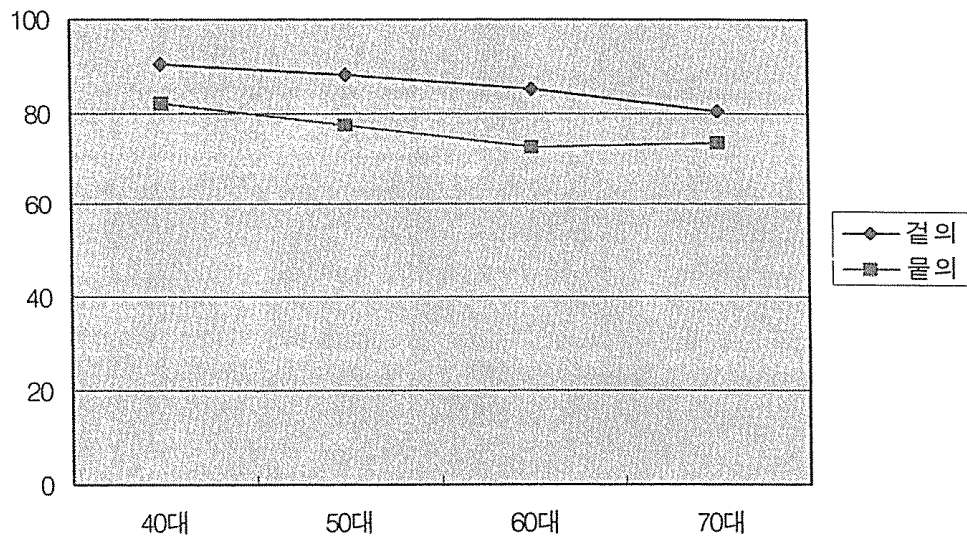


그림24. 받침 'ㅈ'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2)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60-70대의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다. '별아, 발아, 살아, 날아, 팔아, 뒤결아, 술아'에서의 응답률 변화 그림을 보면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다만 몇몇 단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결아', '결아', '물아'가 바로 그 예이다.

	40대		50대		60대		70대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표준음	入
결아	74.7	12.9	72.9	15	69.8	15.9	64.7	13.7
겉아	70.3	19.5	69.7	22.5	64.3	21	60.8	14.7
밑아	68.1	20.2	67.8	19.6	64.7	17.9	65.7	13.7
머리말아	65.7	24.1	56.4	31.5	61.9	22.6	60.8	17.6
물아	65.5	20	65.1	21.3	61.1	20.6	56.9	22.5
바깥아	50.9	38.9	48.7	43.1	54	34.5	55.9	25.5
별아	47.7	38.9	42.4	43.6	48	34.1	53.9	28.4
끝아	45.5	40.9	43.1	42.1	44.4	37.3	42.2	34.3
발아	45.3	35	44.1	38.5	49.2	29.8	54.9	24.5
뒤결아	43.1	44	44.8	46.7	50.4	35.7	54.9	28.4
살아	37	49.6	35.8	47.7	44	36.9	45.1	27.5
술아	36	47.7	35.8	49.6	35.3	41.7	37.3	47.1
술아	31.4	57.7	32.7	56.2	39.7	47.6	40.2	47.1
날아	23.4	60.8	21.3	58.1	27.4	48	36.3	31.4
팔아	21.4	57.9	21.5	61.7	29.4	54.8	35.3	51
평균	48.40	37.87	46.81	39.81	49.57	33.23	50.99	28.49

표25.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호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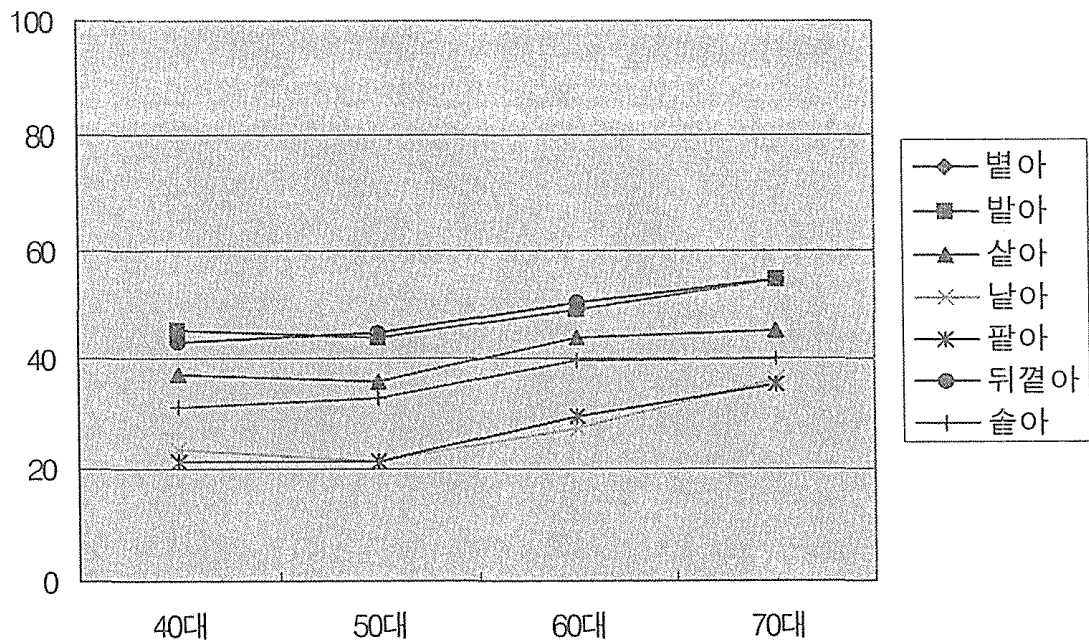


그림25. 받침 ‘ㄷ’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호격 조사 결합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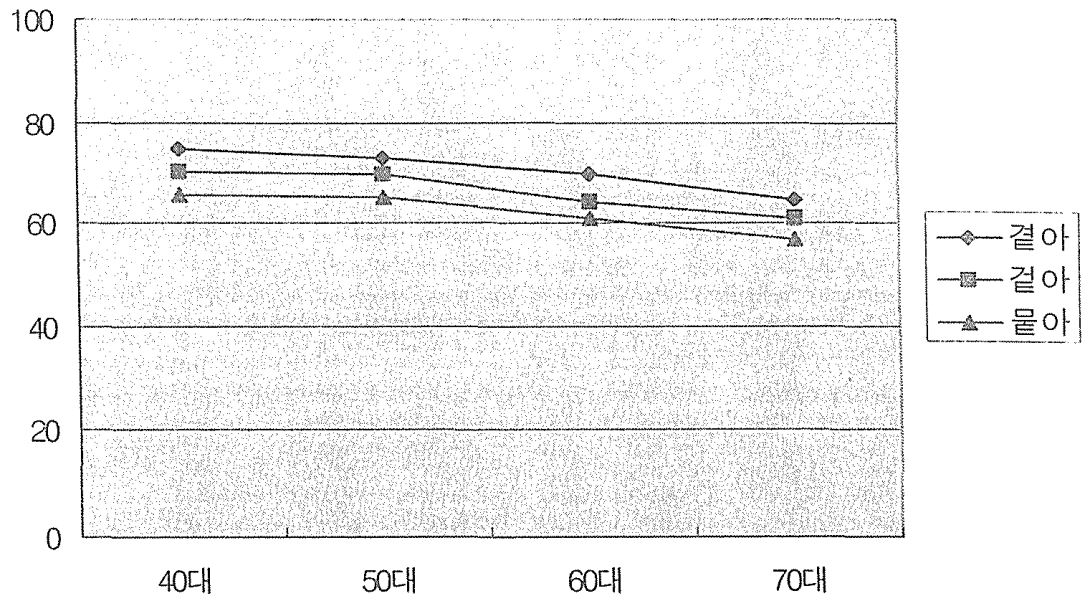


그림26. 받침 'ㅌ'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호격 조사 결합형2)

'ㅌ'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전체의 조사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격 조사 '이'와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할 때에는 40대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이고 '으로', '의', '아'가 결합할 때에는 7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	71.64	68.64	68.10	71.11
에	77.94	75.62	74.27	74.13
으로, 을, 은	50.43	49.96	51.45	53.47
의	66.45	63.69	65.17	67.72
아	48.40	46.81	49.57	50.99

표26. 받침 'ㅌ'의 연령별 비교(전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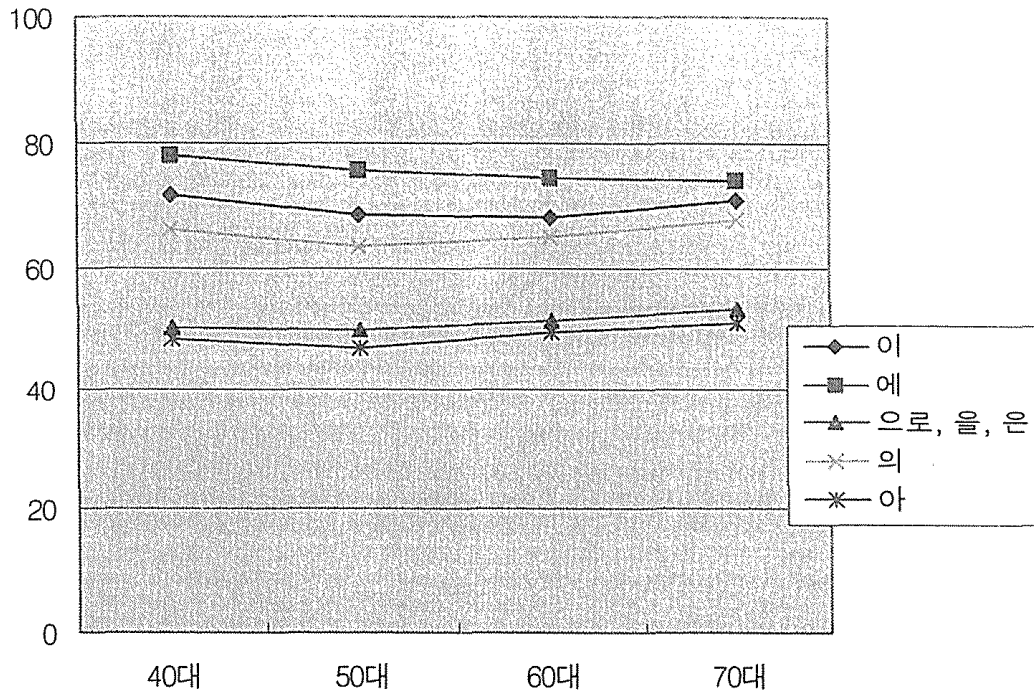


그림 27. 받침 'ㅈ'의 연령별 비교(전체 조사)

2.4 학력별 변이

‘결이, 발이, 날이, 뒤결이, 솔이라, 머리말이, 바깥이랑, 발이’에서는 대졸자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¹⁴⁾. 이 중 ‘결이’와 ‘별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응답률도 높이 나타났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결이	82.1	81	80.7	80.6	80.9
결이	82.1	84.8	85.7	88.1	91.2
끝이	82.1	69.5	80	77.5	78.1
밧이	82.1	81	90.7	87.5	89.9
머리말이	78.6	71.4	80	76.5	82.1
바깥이랑	71.4	61.9	70	67.2	74.6
발이	71.4	71.4	75.7	74.5	79.8
별이	64.3	63.8	72.1	74.3	82.6
날이	57.1	51.4	57.9	55.1	55.2

14)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어 인식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 응답률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결합형에서(소유격 조사 ‘의’와 호격 조사 ‘아’는 제외) 대졸자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고졸자가 아닌 중졸자로 나타났다.

뒤결이	53.6	61	69.3	66	76.1
물이	46.4	73.3	82.9	82.2	87.9
살이	46.4	51.4	47.9	45.8	49.6
술이라	46.4	53.3	54.3	51.6	54.7
팔이	39.3	52.4	62.9	54.7	57.2
머리술이	35.7	50.5	50.7	47.6	50.1
평균	62.60	65.21	70.72	68.61	72.67

표27. ‘ㄷ’ 받침 어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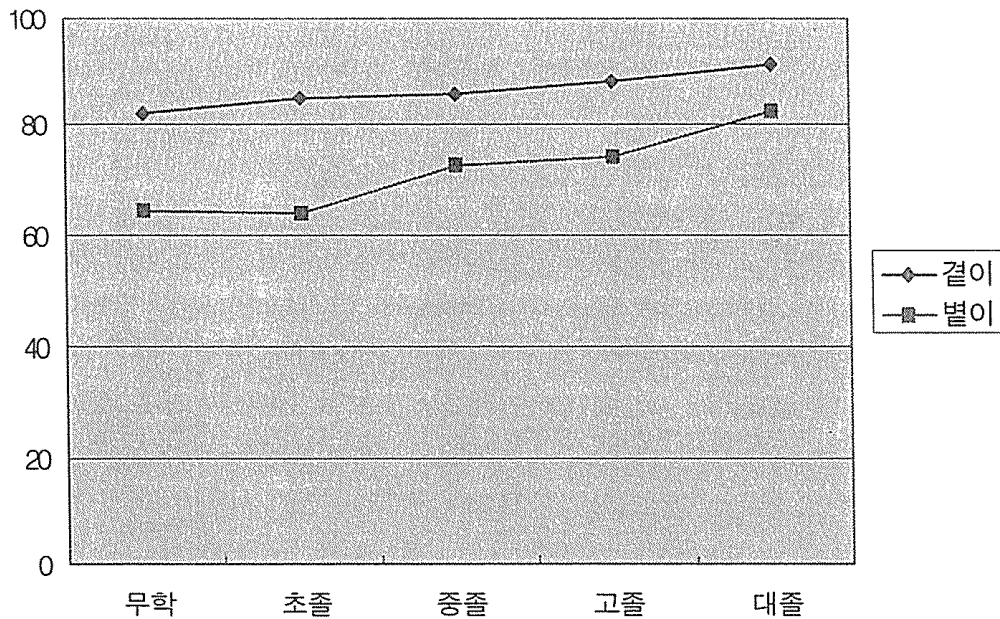


그림28. 받침 ‘ㄷ’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

처격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대졸자가 가장 높게, 중졸자가 그 다음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으나 고졸자와 큰 차이는 없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결에	92.9	90.5	92.1	93.9	95.7
결에	92.9	91.4	96.4	97.2	98
머리말에	92.9	90.5	92.9	93.5	95.5
뒤결에	89.3	75.2	85.7	85.2	86.1
끝에서	85.7	83.8	90	87.2	92.4
발에다	85.7	85.7	88.6	86	91.2

물에서	67.9	78.1	80	82.8	86.1
별에	60.7	67.6	73.6	76.5	79.3
술에서	53.6	56.2	72.9	71.3	70.5
살에	46.4	47.6	45	47.6	42.3
팔에서	35.7	54.3	62.1	62.5	61.5
머리술에	32.1	41.9	52.1	46.8	49.1
날에	32.1	26.7	29.3	25.3	31.5
바깥에	21.4	21	11.4	8.9	8.6
밑에서	3.6	10.5	4.3	4.7	3.3
평균	59.53	61.40	65.09	64.63	66.07

표28. ‘ㅄ’ 받침 어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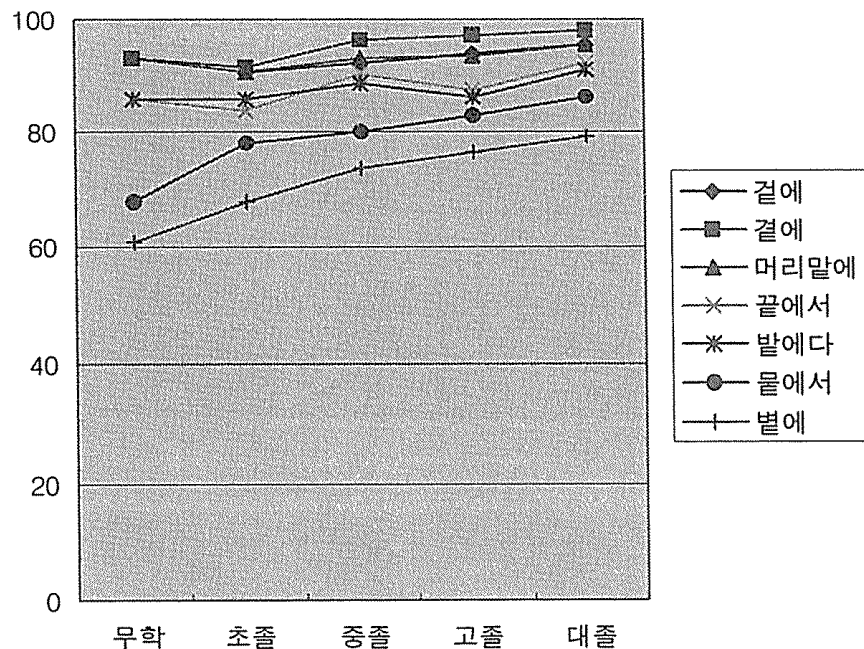


그림29. 받침 ‘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

조사 ‘으로, 을, 은’과 결합할 때에도 대졸, 중졸, 고졸 순으로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 발으로, 바깥으로, 겉으로’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표준 발음 응답률도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밀으로	82.1	78.1	82.9	82	87.2
겉으로	71.4	78.1	85	87.9	90.2
발으로	67.9	74.3	67.1	77.7	81.1
바깥으로	64.3	63.8	65.7	70.8	71.8
물으로	57.1	67.6	74.3	71.9	76.3
머리말을	50	51.4	55.7	53.6	59.2
결을	39.3	44.8	52.1	54.9	61.2
뒤겉으로	39.3	32.4	34.3	30	39.8
햇볕으로	39.3	44.8	50	45.5	47.9
술으로	32.1	35.2	50.7	45.3	45.1
팔으로	32.1	43.8	42.9	40.3	42.6
날으로	28.6	22.9	23.6	20.4	24.2
살을	21.4	21.9	30	23.3	24.9
술을	21.4	21	22.1	20.2	24.2
끝을	14.3	20	28.6	24.5	24.9
평균	44.04	46.67	51.00	49.89	53.37

표29. 'ㅈ' 받침 어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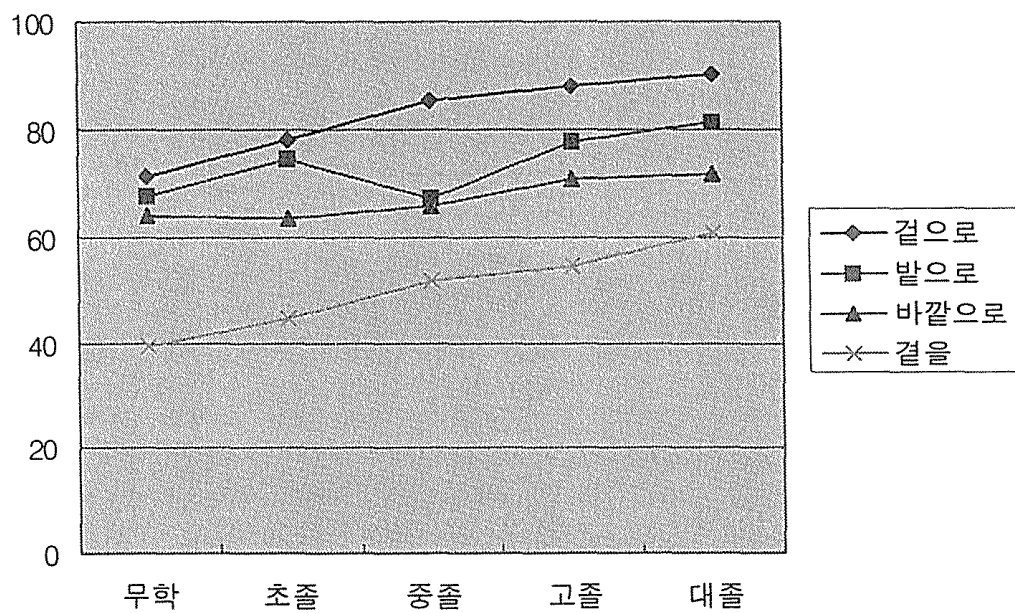


그림30. 받침 'ㅈ'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결합형)

개별 단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소유격 조사 '의'와 결합한 단어의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은 대체로 학력에 비례하였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결의	89.3	84.8	92.1	91.7	92.7
밀의	85.7	81.9	83.6	81.4	83.4
걸의	78.6	85.7	82.1	88.5	90.2
끝의	78.6	71.4	78.6	81.4	80.4
뒤결의	78.6	61.9	75	73.9	74.6
바깥의	78.6	76.2	80	84.8	82.4
머리말의	71.4	73.3	85	82.8	82.6
물의	60.7	70.5	77.1	76.5	82.9
발의	60.7	74.3	72.9	78.7	75.6
별의	53.6	58.1	63.6	63	58.4
술의	46.4	47.6	57.1	55.9	52.9
팔의	39.3	35.2	32.9	33.4	37
날의	39.3	31.4	29.3	28.9	33.8
살의	28.6	32.4	42.1	40.3	34
술의	25	23.8	27.9	28.3	30.2
평균	60.96	60.57	65.29	65.97	66.07

표30. 'ㄷ' 받침 어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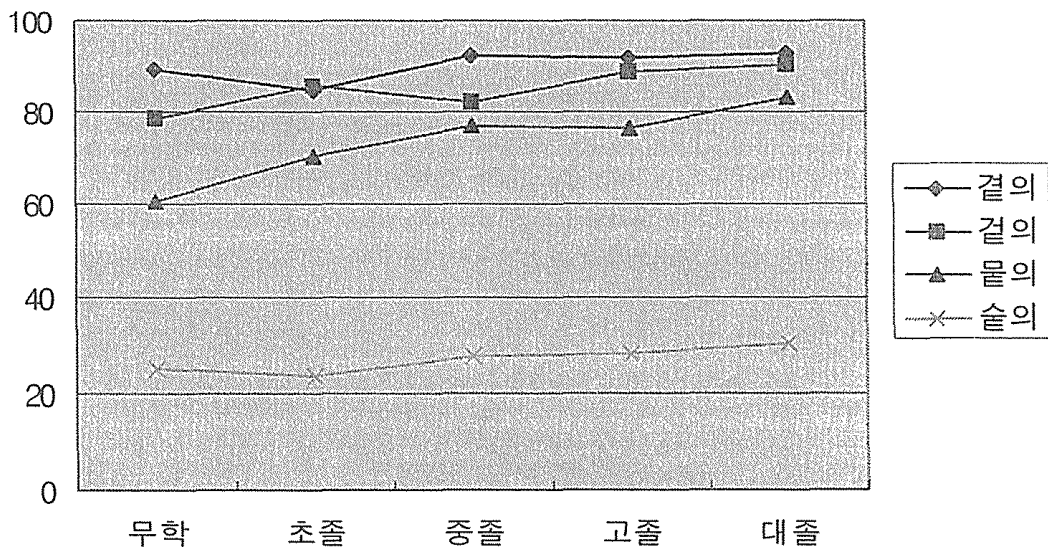


그림31. 받침 'ㄷ'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단어에서는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는데, 가장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졸이 아닌 중졸 이었고, 고졸, 대졸 순으로 평균값이 낮아졌다. 특히 '바깥아', '발아', '뒤결아', '별아', '끝아', '팔아'에서 그러한 경향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대졸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타 조사 결합형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겉아	64.3	59	68.6	74.1	74.8
겉아	57.1	56.2	64.3	69.2	71.8
머리말아	50	54.3	62.9	60.7	63.7
바깥아	46.4	49.5	55.7	51.6	49.6
발아	46.4	43.8	48.6	48.2	44.3
밀아	42.9	61	69.3	67.4	69.3
뒤겉아	39.3	40	57.1	46.4	44.3
별아	39.3	41	47.9	47.6	46.3
끝아	35.7	37.1	46.4	45.1	44.6
물아	32.1	58.1	62.9	65.4	65.2
술아	32.1	31.4	35.7	36	32.7
술아	32.1	30.5	42.1	34.6	37
살아	28.6	37.1	40	42.1	35.3
팔아	25	35.2	30.7	22.9	21.2
날아	21.4	25.7	27.1	23.5	25.2
평균	39.51	43.99	50.62	48.99	48.35

표31. 'ㅈ' 받침 어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호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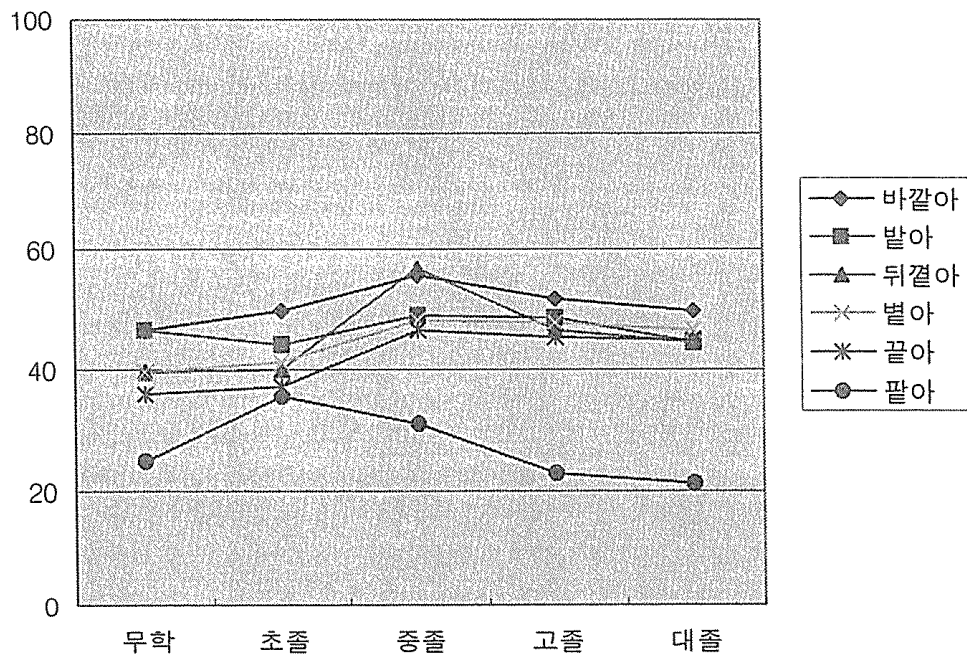


그림32. 받침 'ㅈ'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1)

다만 '겉아', '겉아', '머리말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제보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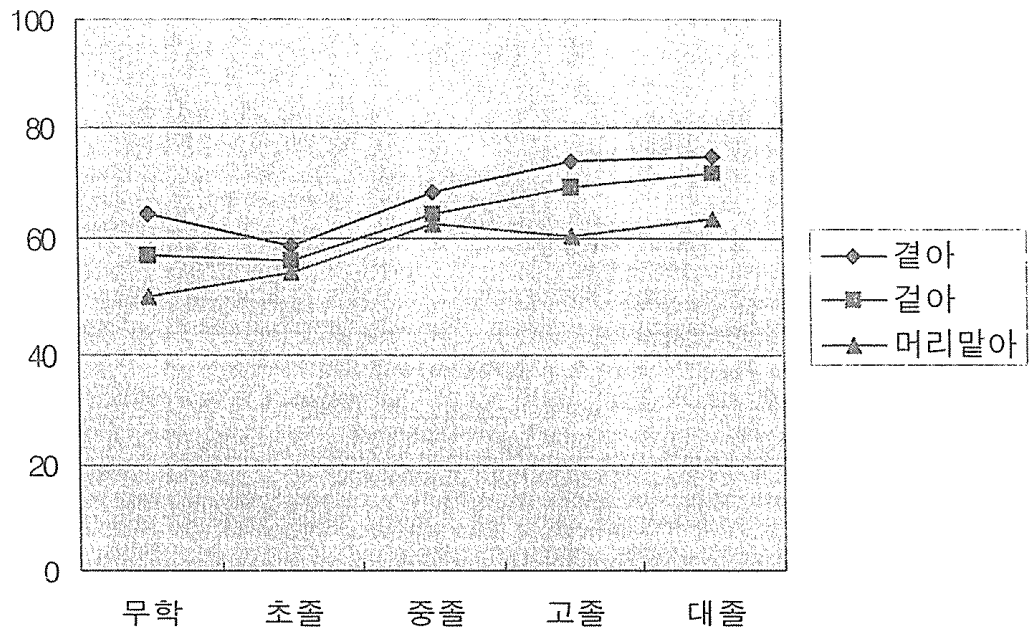


그림33. 받침 ‘ㄷ’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2)

전체 단어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의’의 경우는 학력에 비례하여 응답률이 나왔고(무학 제외) ‘이’, ‘에’, ‘으로/을/은’과 결합할 때에는 대졸자 다음에 중졸, 고졸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중졸 이상의 학력에서 중졸, 고졸, 대졸 순으로 대졸자가 가장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	62.60	65.21	70.72	68.61	72.67
에	59.53	61.40	65.09	64.63	66.07
으로, 을	44.04	46.67	51.00	49.89	53.37
의	60.96	60.57	65.29	65.97	66.07
아	39.51	43.99	50.62	48.99	48.35

표32. 받침 ‘ㄷ’의 학력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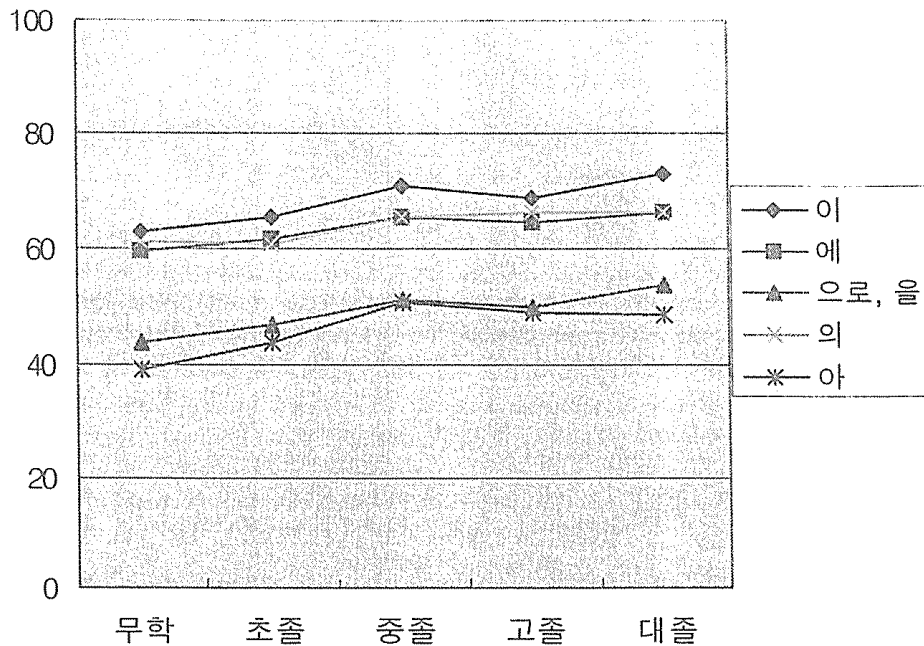


그림 34. 받침 'ㅈ'의 학력별 비교

2. 5 출신지별 변이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할 때에는 동남부와 서울이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고 서북부가 가장 낮은 평균값이 나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이 실시한 전국 방언 조사¹⁵⁾에서 경기도 지역의 유기음 받침 어간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면 동북부와 동남부가 구개음화(표준 발음)되어 발음되었고 서북부와 서남부는 [ㅅ]으로 발음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결이	90.6	91.1	88.3	92.9	83
밀이	89	93.8	86.6	82.5	88.1
같이	85.9	88.4	82.7	75.4	71.7
물이	83.4	89.3	78.2	77.8	82.6
같이	80.9	80.4	77.7	76.2	71.7
머리말이	80.3	83	82.1	79.4	71.1
별이	80	82.1	70.4	75.4	70.4

15) 당시 조사에서 'ㅈ' 받침으로 끝나는 조사 대상 단어에는 '결, 밀, 밭, 뒤결, 술, 팔'이 포함되어 있다.

밭이	79.1	76.8	70.4	77.8	74.6
뒤곁이	71.5	81.3	64.8	65.9	64.3
바깥이랑	72	74.1	69.3	69.8	65
솔이	57.4	57.1	54.7	50	45
팔이	57	58.9	54.2	61.1	52.7
날이	53.8	53.6	54.2	54.8	57.9
머리솔이	50.2	57.1	53.1	45.2	43.4
살이	44.8	56.3	44.1	54	48.9
평균값	71.73	74.89	68.72	69.21	66.03

표33. 반침 ‘ㅌ’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주격 조사 결합형)

처격 조사 ‘에’와 결합할 때에도 경기 동남부 출신의 화자가 표준 발음 응답률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경기 서북부 화자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머리말에, 끝에서, 밭에다, 솔에서’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곁에	96.4	97.3	96.6	96.8	97.1
밑에서	95.7	92	93.9	96	94.5
머리말에	93.9	97.3	95.5	92.9	91.6
바깥에	91.5	87.5	91.6	88.1	84.2
곁에	93	95.5	96.1	95.2	92.6
끝에서	90.8	91.1	89.9	86.5	85.9
밭에다	89	95.5	87.2	88.1	84.9
물에서	84.1	78.6	82.7	77.8	84.9
뒤곁에	83.4	88.4	84.4	87.3	84.6
별에	77.8	82.1	72.6	73.8	74.6
솔에서	69.3	77.7	71.5	70.6	66.2
팔에서	57.8	65.2	63.7	64.3	60.5
머리솔에	47.1	48.2	50.3	45.2	47.6
살에	45.1	50.9	44.7	51.6	42.4
날에	32.1	22.3	23.5	30.2	26.4
평균값	76.57	78	76.3	76.3	74.5

표34. 반침 ‘ㅌ’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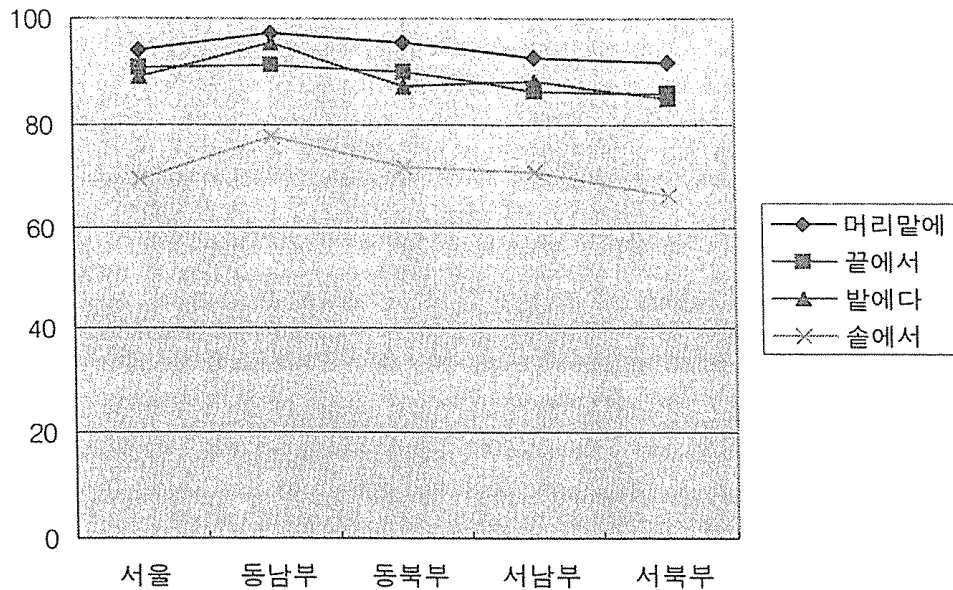


그림 35. 받침 'ㄷ'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처격 조사 결합형)

‘으로, 을, 은’과 결합할 때에는 서울과 경기 서남부 지방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단어의 대체적인 경향이 아니라 평균값에서 보이는 경향이다. 1981년에서 1983년에 실시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전국 방언 조사에서는 경기 서부와 경기 동부로 대비되어 나타났는데, 경기 동부의 경우 [ㅈ]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 서부의 경우에는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그러한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방언 조사 결과 내에서 ‘으’ 계열의 조사와 결합할 때에 받침 ‘ㄷ’을 [ㄷ]로 발음하는 화자는 없었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ㄷ	ㅅ	ㅈ	ㄷ	ㅅ	ㅈ	ㄷ	ㅅ	ㅈ	ㄷ	ㅅ	ㅈ	ㄷ	ㅅ	ㅈ
겉으로	88.6	2	9	88.4		10.7	92.2	1.1	6.1	90.5	0.8	8.7	80.7	1.3	17
밑으로	85.2	1.1	13.5	81.3	1.8	16.1	82.1	2.2	15.6	81.7	3.2	14.3	83	2.3	14.5
발으로	82.3	5.8	11.4	76.8	6.3	17	81	7.8	11.2	74.6	10.3	14.3	69.1	6.8	23.8
물으로	70.9	7.6	19.7	73.2	5.4	21.4	73.7	6.1	20.1	71.4	11.1	16.7	76.2	6.1	17
머리말을	59.6	8.3	31.4	46.4	12.5	41.1	52.5	12.8	34.6	61.9	6.3	31.7	51.1	11.3	36.7
결을	58.5	7	34.3	42.9	6.3	50	55.3	8.4	35.8	57.1	2.4	38.9	55	8	36.3
술으로	46.2	39.5	13.2	43.8	41.1	15.2	44.1	40.2	15.6	47.6	42.1	9.5	42.4	47.6	9.3
햇볕으로	45.1	28	26.5	43.8	31.3	25	53.6	19.6	26.8	53.2	29.4	16.7	42.8	32.8	23.8
뒤결으로	41	22	36.3	41.1	19.6	39.3	31.8	26.8	40.8	25.4	27.8	45.2	27.3	28.6	44.1
팔으로	37	43.7	18.4	48.2	39.3	11.6	45.8	41.9	12.3	44.4	41.3	11.9	41.2	39.2	19
살을	23.8	50.4	22.4	21.4	53.6	24.1	20.7	54.7	21.8	27	48.4	20.6	27.7	49.5	18.6

날으로	23.8	39.5	33.6	17.9	45.5	36.6	16.8	47.5	29.1	31	37.3	28.6	21.2	46.9	29.3
끝을	23.1	19.7	57.2	17.9	25.9	56.3	19.6	22.3	58.1	32.5	20.6	46	28.9	24.8	45.7
술을	22	49.3	28	21.4	53.6	25	21.8	53.6	24.6	21.4	50.8	25.4	21.9	56.3	19
바깥으로	75.6	15.5		64.3	17.9		73.2	17.9		65.1	23		63	29.6	
평균값	52.2	22.6	25.4	48.6	25.7	27.8	51	24.2	25.2	52.3	23.7	23.5	48.8	26.1	25.3

표35. 받침 ‘ㅌ’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으로, 을’ 결합형)

조사 ‘의’와 결합할 때의 출신지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경기 동남부와 경기 동북부, 그리고 서울 출신의 체보자들이 경기 서남부와 서북부 출신의 체보자들보다 표준 발음 응답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머리말에, 끝에서, 밭에다, 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말의, 끝의, 밭의, 술의’는 경기 동부 지방 화자들이 경기 서부 지방 화자들보다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결의	92.4	95.5	93.3	92.1	87.5
결의	88.8	89.3	91.6	90.5	82
바깥의	86.5	78.6	86	81	76.5
머리말의	83.9	83.9	83.8	81.7	77.8
밭의	83.9	75.9	90.5	81.7	78.5
끝의	83	81.3	77.7	77	76.5
물의	78.7	86.6	82.1	71.4	74.6
밭의	77.4	77.7	81.6	71.4	73
뒤결의	73.8	70.5	75.4	72.2	72.3
별의	61.7	73.2	59.8	63.5	55.6
술의	54.7	59.8	57.5	54	49.8
살의	35.9	48.2	38.5	39.7	35
팔의	31.8	38.4	34.6	38.9	36.3
날의	30.9	30.4	21.2	31.7	36.3
술의	27.6	29.5	27.9	27.8	30.2
평균값	66.07	67.92	66.77	64.97	62.79

표36. 받침 ‘ㅌ’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소유격 조사 결합형)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단어에 대한 조사는 이전 방언 조사에서 전혀 실시된 적이 없어 마땅히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번 서울과 경기도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기 동부와 경기 서부가 뚜렷이 나뉘지는 않았다. 다만 다른 조사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경기 동남부 지방에 비해 경기 서북부 지방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결아	74.2	77.7	78.8	72.2	63.3
겉아	68.4	74.1	72.6	71.4	61.1
밑아	66.1	71.4	73.7	67.5	63
물아	64.8	67	66.5	57.9	61.4
머리말아	64.1	64.3	58.7	60.3	57.6
바깥아	47.8	51.8	56.4	58.7	50.2
발아	44.4	48.2	49.7	47.6	46.3
뒤곶아	44.2	46.4	47.5	49.2	47.3
별아	43.7	50.9	45.3	46	49.5
끝아	43	49.1	41.3	41.3	46.9
살아	37.7	37.5	36.9	45.2	38.9
술아	32.3	38.4	38	34.1	40.2
솔아	30.9	36.6	33.5	42.9	35.7
날아	22.2	27.7	21.8	29.4	26.4
팔아	21.3	26.8	21.8	28.6	28
평균값	47.01	51.19	49.50	50.15	47.72

표37. 받침 ‘ㅌ’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호격 조사 결합형)

3. ‘ㄱ’ 받침

받침 ‘ㄱ’으로 끝나는 단어로는 ‘부엌’과 ‘새벽녘’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ㄱ’이 [ㄱ]로 평음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두 단어 모두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은 낮은 응답률 분포를 보였다.

	ㄱ	ㄱ		ㄱ	ㄱ		ㄱ	ㄱ
부엌이	27.25	72.05	부엌에서	43.6	55.5	부엌은커녕	31.8	72.05
새벽녘이	44.6	53.9	새벽녘에	39.65	59.4	새벽녘을	22.85	76.5
부엌의	30.5	67.8	부엌아	21.95	76.7			
새벽녘의	36.9	59.5	새벽녘아	28.6	68.75			

표38. 받침 ‘ㄱ’의 발음

3.1 단어별

3.1.1 부엌

‘부엌’의 경우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형태부터 배열하면 ‘부엌에서, 부엌은커녕, 부엌의, 부엌이, 부엌아’이다. ‘에서’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호격 조사 ‘아’가 결합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가장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부엌에서’조차 표준 발음 비율이 약 43.6%로 응답자의 반을 넘어서지 못했고 [부어게서]가 55.5%를 차지하였다. ‘부엌은커녕’은 [부어큰커녕] 31.8%, [부어근커녕] 51.65%이며 ‘부엌의’는 [부어키/부어케] 약 30%, [부어기/부어게] 약 70%이고 ‘부엌이’는 [부어키] 27.25%, [부어기] 약 75%이며 ‘부엌아’는 [부어카] 21.95%, [부어가] 67.5%로 전반적으로 [ㄱ]로 발음되는 비율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표준 발음	[ㄱ]
부엌이	27.25	72.05
부엌에서	43.6	55.5
부엌은커녕	31.8	51.65
부엌의	30.5	67.8
부엌아	21.95	76.7

표39. ‘부엌’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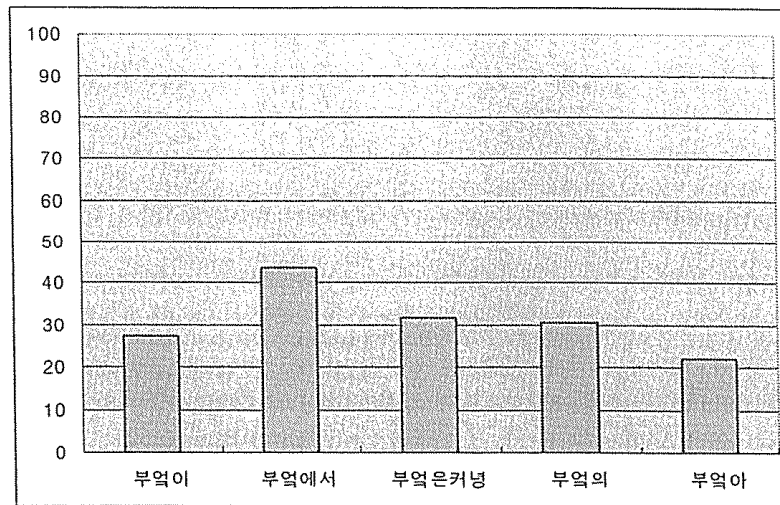


그림36. '부엌'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3.1.2 새벽녘

‘새벽녘’의 경우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형태부터 배열하면 ‘새벽녘이, 새벽녘에, 새벽녘의, 새벽녘아, 새벽녘을’이다. ‘새벽녘이’는 [새병녀키] 44.6%, [새병녀기] 53.9%이며 ‘새벽녘에’는 [새병녀케] 39.65%, [새병녀게] 59.4%이며 ‘새벽녘을’은 [새병녀클] 22.85%, [새병녀글]이 76.5%이며 ‘새벽녘의’는 [새병녀키키/새병녀케] 36.9%, [새병녀기/새병녀게] 59.5%이며 ‘새벽녘아’는 [새병녀카] 28.6%, [새병녀가] 68.75%이다.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새벽녘이’가 ‘새벽녘에’보다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엌’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어	표준 발음	[ㄱ]
새벽녘이	44.6	53.9
새벽녘에	39.65	59.4
새벽녘을	22.85	76.5
새벽녘의	36.9	59.5
새벽녘아	28.6	68.75

표40. ‘새벽녘’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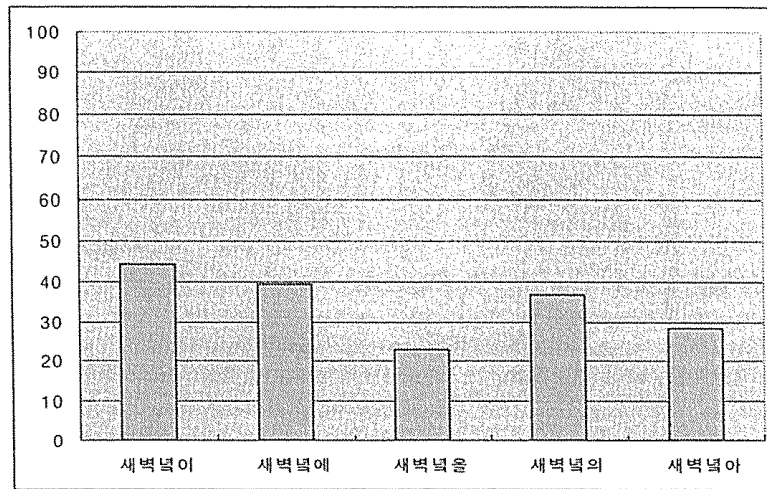


그림37. '새벽녘'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3.2 결합하는 조사별 변이

결합하는 조사별로 '부엌'과 '새벽녘'의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이', '의', '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새벽녘'이 '부엌'보다 표준 발음 비율이 더 높았고 조사 '에', '을'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부엌'이 '새벽녘'보다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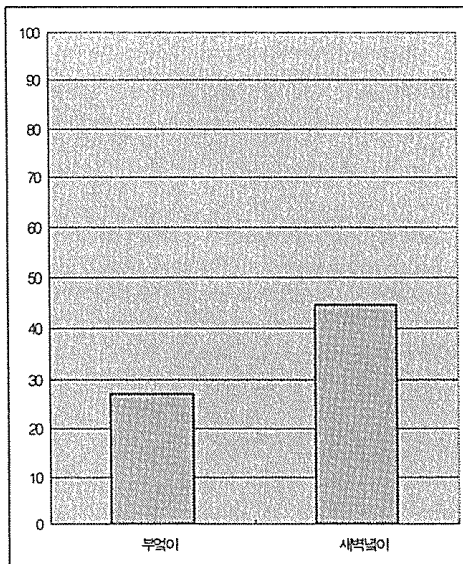


그림38. 받침 'ㄷ' + 조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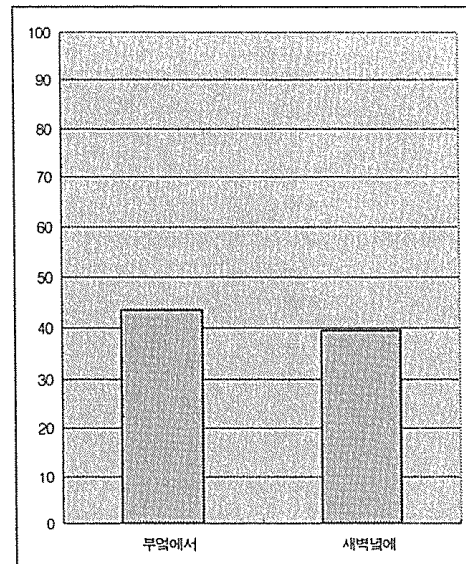


그림39. 받침 'ㄷ' + 조사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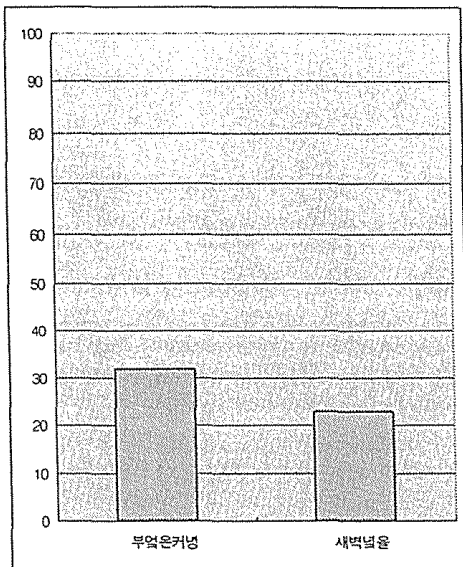


그림40. 받침 'ㄱ'+ 조사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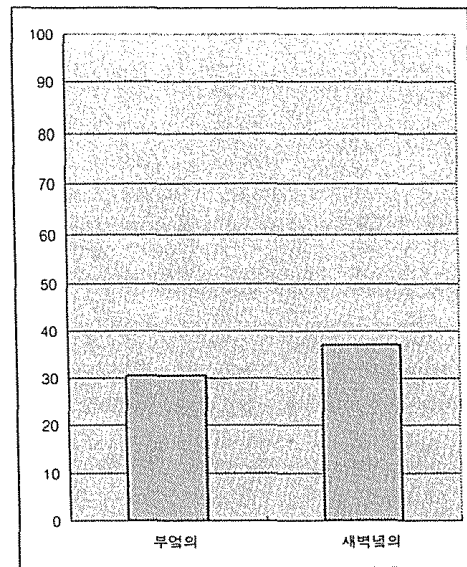


그림41. 받침 'ㄱ'+ 조사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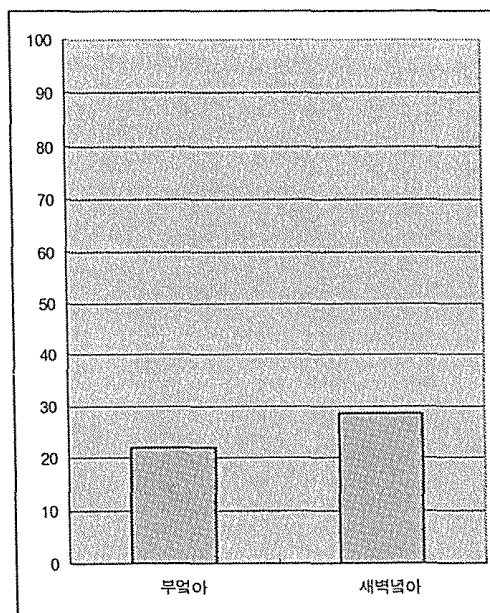


그림42. 받침 'ㄱ'+ 조사 '아'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가운데 'ㄷ'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 '에'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이, 의, 으' 순이며 조사 '아'가 결합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표준 발음 비율
이	35.93
에(서)	41.63
으로, 을	27.33
의	33.70
아	25.28

표41. ‘ㄱ’ 받침 어간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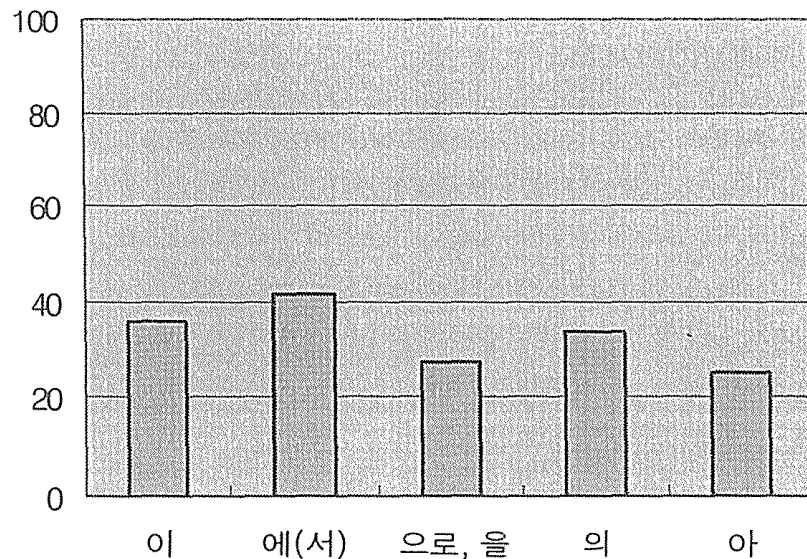


그림43. ‘ㄱ’ 받침 어간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3.3 연령별 변이

받침 ‘ㄱ’으로 끝나는 ‘부엌’과 ‘새벽녘’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을 연령 대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대체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엌’보다 ‘새벽녘’이에서 더 뚜렷한데 ‘새벽녘이, 새벽녘에, 새벽녘을, 새벽녘의’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단어의 재구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부엌이	24.8	26.6	32.1	27.5
새벽녘이	39.2	45.5	47.2	56.9

표42. 받침 ‘ㄱ’+ 조사 ‘이’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40대	50대	60대	70대
부엌에서	38.2	46.5	46.4	45.1
새벽녘에	36	39.7	42.9	46.1

표43. 받침 ‘ㄱ’+ 조사 ‘에’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40대	50대	60대	70대
부엌은커녕	28.2	32.2	36.1	33.3
새벽녘을	19	23	24.6	34.3

표44. 받침 ‘ㄱ’+ 조사 ‘을, 은커녕’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40대	50대	60대	70대
부엌의	26.5	30.51	34.1	37.3
새벽녘의	33.3	36.8	39.7	45.1

표45. 받침 ‘ㄱ’+ 조사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40대	50대	60대	70대
부엌아	20	20.6	27	22.5
새벽녘아	25.8	29.5	32.1	27.5

표46. 받침 ‘ㄱ’+ 조사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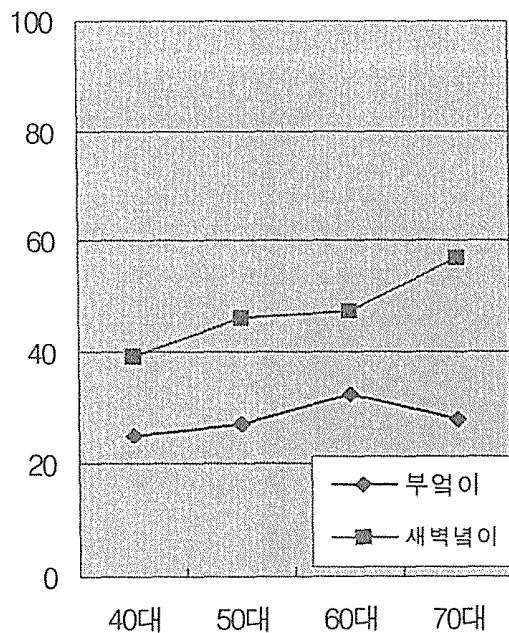


그림44. 받침 ‘ㄱ’+ 조사 ‘이’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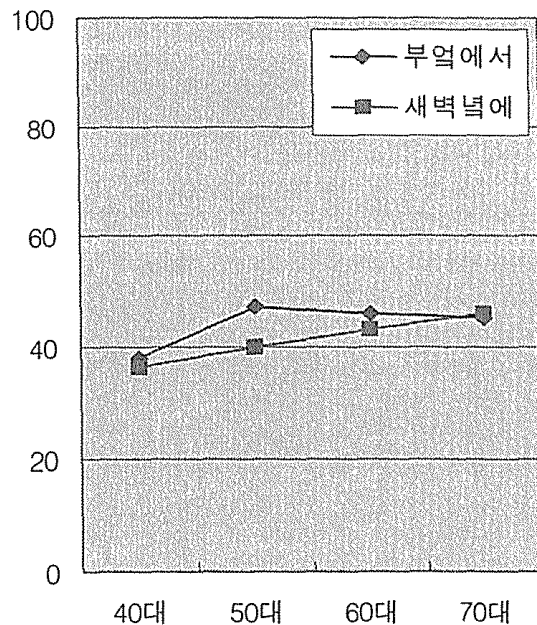


그림45. 받침 ‘ㄱ’+ 조사 ‘에서’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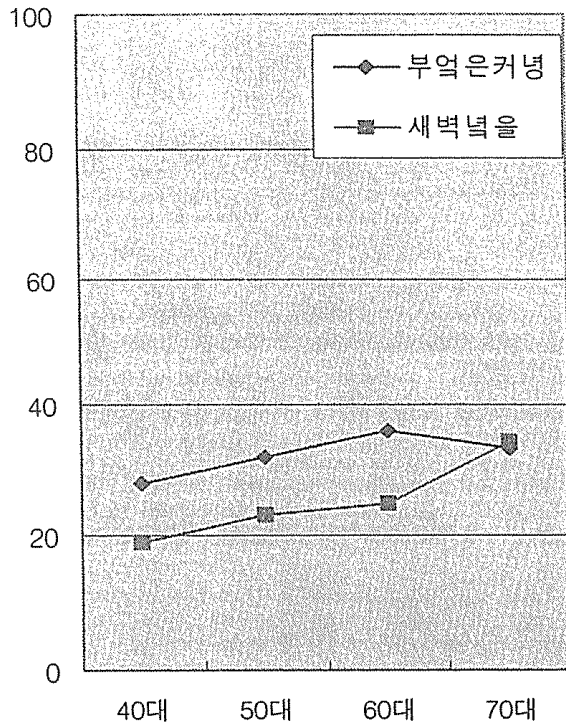


그림46. 받침 'ㄱ'+ 조사 '을, 은커녕'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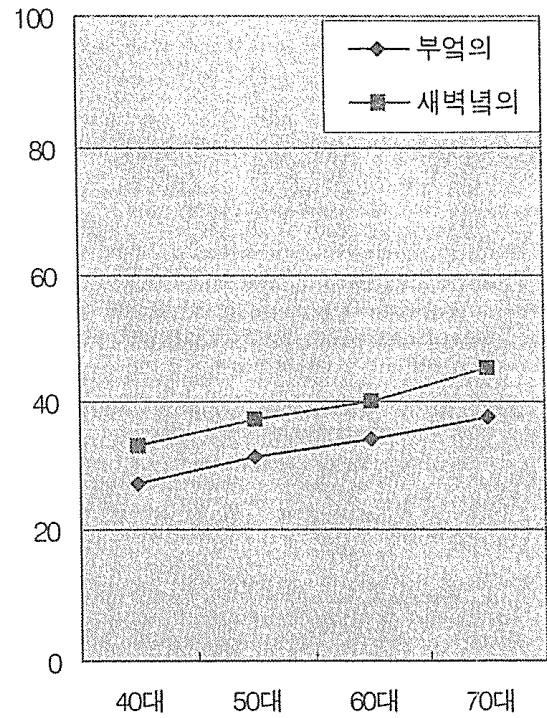


그림47. 받침 'ㄱ'+ 조사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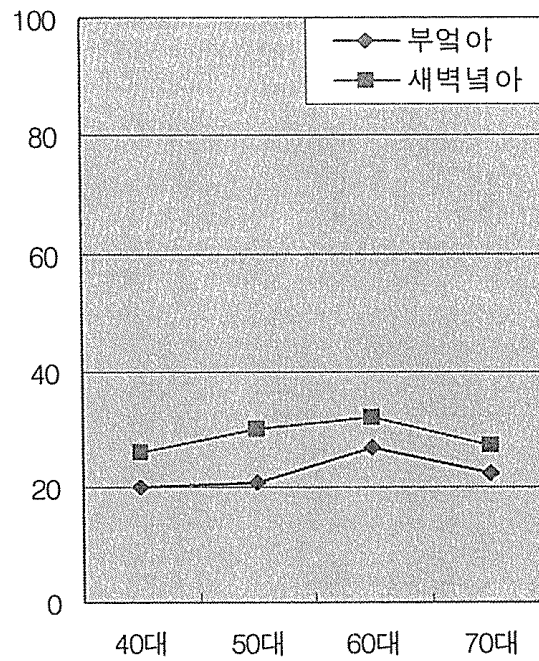


그림48. 받침 'ㄱ'+ 조사 '을, 은커녕'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3.4 학력별 변이

학력에 따른 표준 발음 비율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부엌이’, ‘새벽녘에’, ‘새벽녘을’, ‘부엌의’, ‘부엌아’는 중졸까지 표준 발음 비율이 상승하다가 고졸과 대졸에서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새벽녘이’, ‘부엌에서’, ‘부엌은커녕’, ‘새벽녘의’, ‘새벽녘아’는 학력이 올라갈수록 표준 발음 비율도 상승하였다.

단어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부엌이	14.3	28.6	35	26.1	26.4
새벽녘이	25	41	44.3	44.3	47.4

표47. ‘부엌이’, ‘새벽녘이’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단어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부엌에서	3.6	40	41.4	44.5	46.6
새벽녘에	32.1	39	47.9	42.1	34.3

표48. ‘부엌에서’, ‘새벽녘에’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부엌은커녕	10.7	28.6	32.9	31.8	33.5
새벽녘을	25	25.7	31.4	23.1	18.6

표49. ‘부엌은커녕’, ‘새벽녘을’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단어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부엌의	17.9	28.6	44.3	31.8	25.2
새벽녘의	17.9	32.4	31.4	37.4	40.6

표50. ‘부엌의’, ‘새벽녘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단어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부엌아	7.1	23.8	27.9	23.3	18.4
새벽녘아	7.1	24.8	27.1	29.8	30.2

표51. ‘부엌아’, ‘새벽녘아’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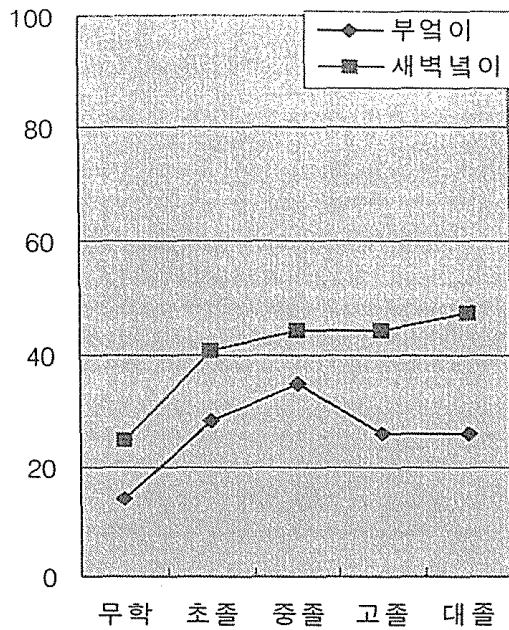


그림 49. 받침 'ㄷ' + 조사 '이'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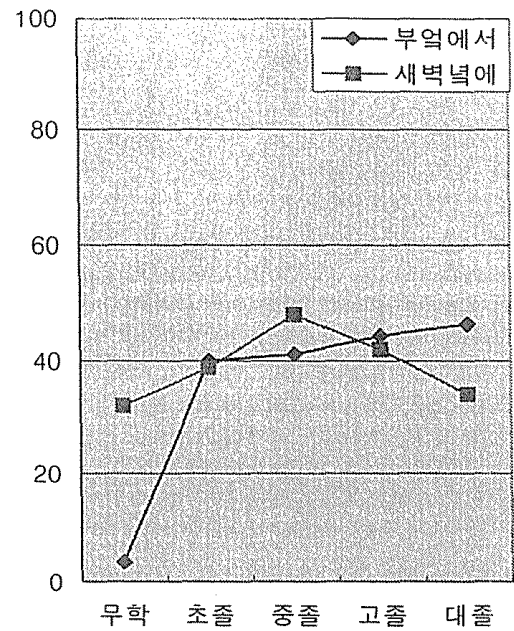


그림 50. 받침 'ㄷ' + 조사 '에서'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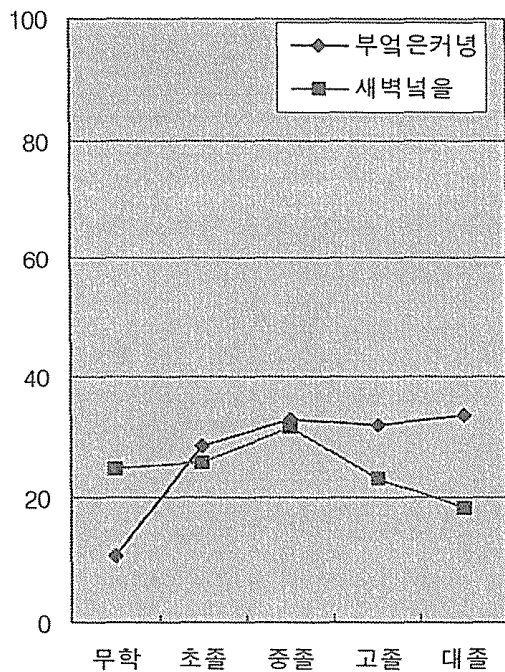


그림 51. 받침 'ㄷ' + 조사 '을, 은커녕'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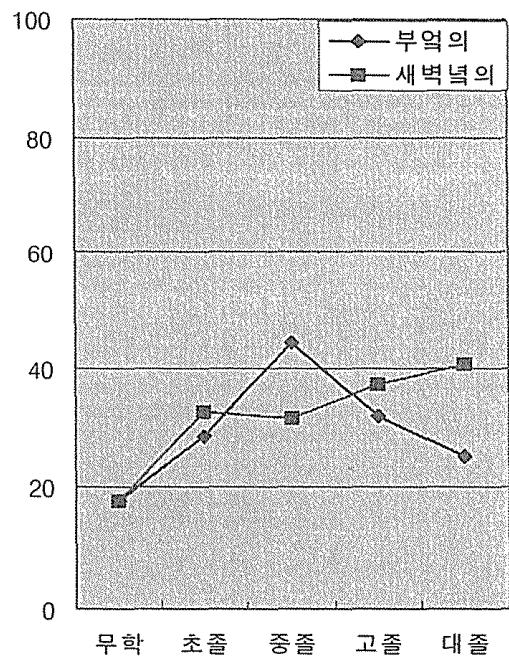


그림 52. 받침 'ㄷ' + 조사 '의'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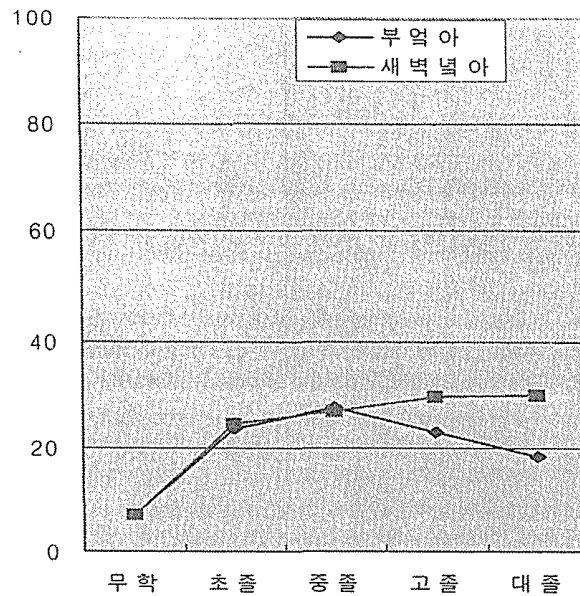


그림53. 받침 ‘ㄱ’+ 조사 ‘아’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3.5 출신지별 변이

대체로 응답률이 낮은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조사 ‘에’와 결합할 때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여 주었다. 경기 서북부 출신의 화자가 상대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¹⁶⁾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부엌이	24.2	27.7	22.3	33.3	32.2
새벽녘이	43.9	44.6	51.4	50	39.9

표52. ‘부엌이’, ‘새벽녘이’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부엌에	43.5	40.2	44.7	47.6	42.8
새벽녘에	35.7	44.6	38	40.5	44.1

표53. ‘부엌에서’, ‘새벽녘에’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16) 한국방언조사(1995)에서는 ‘부엌이’, ‘부엌에’를 조사하였는데 제보자 대부분이 받침을 평음화하지 않은 형태 [ㄱ]으로 발음하였다. 지역마다 큰 차이는 없었고 다만 몇몇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ㄱ]으로 발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부엌은커녕	31.8	27.7	35.2	29.4	32.2
새벽녘을	21.1	23.2	17.3	19.8	29.6

표54. '부엌이', '새벽녘이'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부엌의	26.2	32.1	27.9	30.2	37.6
새벽녘의	38.6	42	34.6	36.5	35

표55. '부엌에서', '새벽녘에'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부엌아	17.5	22.3	17.3	23	30.2
새벽녘아	28.9	29.5	22.3	33.3	30.2

표56. '부엌아', '새벽녘아'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4. ‘ㅈ’ 받침

받침 ‘ㅈ’이 붙은 조사 대상 단어는 ‘꽃, 낫, 닳, 돛, 몇몇, 쥐뿔, 빗, 살갓, 솟, 옷, 옷’¹⁷⁾이다. 받침 ‘ㅈ’으로 끝나는 단어들에 비해 표준 발음 비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인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사용 빈도¹⁸⁾가 높은 단어들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높았다.

몇	햇빛	돛	꽃	닳	낫	뿔	솟	살갓	옷	옷
(65.43)	(57.58)	(54.47)	(54.14)	(54.04)	(51.17)	(51.18)	(44.71)	(36.25)	(31.2)	(30.99)

표 57. 단어별 표준 발음 평균 응답률(‘ㅈ’ 받침)

4.1. 단어별 변이

4.1.1 꽃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형태부터 배열하면 ‘꽃이(72.65%), 꽃으로(67.75%), 꽃의(57.95%), 꽃에서(47.1%), 꽃아(25.25%)’순이다.

‘ㅈ’이 어간 받침인 단어들과 달리 조사 ‘에(서)’가 결합된 형태 ‘꽃에서’의 표준 발음 비율은 47.1%밖에 안 되었다. 이는 ‘꽃의’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꽃이’는 [꼬치]와 [꼬시]로 발음되었으며 ‘꽃으로’는 [꼬츠로]와 [꼬스로]로 발음되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꼬트로]로 발음된다고 하는 경우도 27회 있었다. ‘꽃의’는 [꼬치/꼬체], [꼬식/꼬세]로 발음되었으며 [꼬테/꼬틱]로 발음된 경우도 14회 있었다. ‘꽃에서’는 [꼬체서]와 [꼬세서]로 발음되었으며 [꼬테서]로 발음된 경우가 107회나 있었다. ‘꽃아’는 [꼬차] 25.25%, [꼬사] 약 59%, [꼬다] 약 10%로 나왔으며 [꼬자] 11회, [꼬타] 16회 발음되었다.

17) 유필재(2001)에서는 ‘옷, 옷, 쥐뿔, 돛’으로 이미 재구조화가 완성된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몇: 186, 꽃: 470, 달빛: 6036, 솟: 7286, 낫: 7726, 살갓: 9181, 닳: 11066, 돛: 18307, 돛: 42777, 옷: 51462, 옷: 없음. (국립국어연구원(2002) 참조)

단어	표준 발음	[人]
꽃이	72.65	26.85
꽃에서	47.1	40.75
꽃으로	67.75	28.8
꽃의	57.95	37.4
꽃아	25.25	58.8

표58. '꽃'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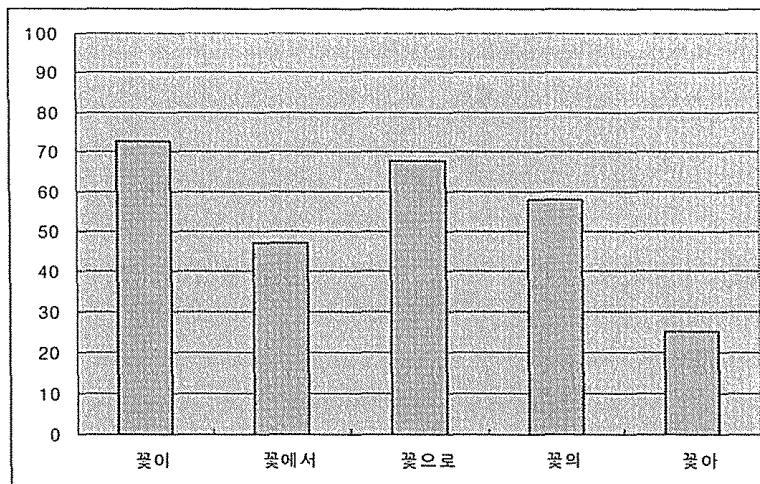


그림54. '꽃'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2 낮

역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여 준 것은 주격 조사 결합형이었는데 다른 단어에 비해서 응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처격 조사 '에'가 붙은 형태도 응답률이 낮았다.

'낮이나'는 [나치나]와 [나시나]로 발음되었으며 '낮으로'는 [나츠로]와 [나스로](36.4%)로 발음되었으며 [나트로]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 있었다. '낮의'는 [나치/나체]와 [나식/나세]로 발음되었으며 [나직/나제]로 7회 발음되었고 [나틱/나테]로도 5회 발음되었다.

'낮아'는 [나차] 27.55%, [나사] 48.15%, [나다] 10.5%로 나왔으며 기타 발음으로 [나자]가 68회, [나타]가 3회의 응답을 보였다.

단어	표준 발음	[人]
낮이나	68.25	30.8
낮에	47.25	51.2
낮으로	62.85	36.4
낮의	49.95	45.7
낮아	27.55	48.15

표59. '낮'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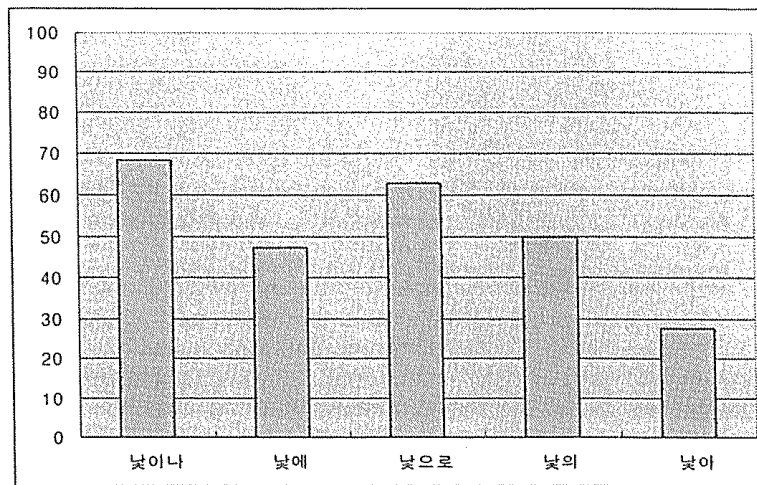


그림55. '낮'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3 닳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 '닳에'가 '닳이랑'과 '닳을'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닳이랑'은 [다치랑]과 [다시랑](32.6%)으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다지랑]이 4회 발음되었다. '닳을'은 [다출]과 [다슬](36.25%)로 발음되었으며 [다틀]과 [다즐]로 각각 1회 발음되었다. '닳에'는 [다체]와 [다세](37.9%)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다제]가 3회, [다테]가 4회 관찰되었다. '닳의'는 [다치/다체], [다식/다세]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다틱/다테]가 3회 나타났다. '닳아'는 [다차](28.65%), [다사](54.75%), [다다](15%)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다자]도 4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入]
닳이랑	66.2	32.6
닳에	60.25	37.9
닳을	62.3	36.25
닳의	52.8	44.4
닳아	28.65	54.75

표60. '닳'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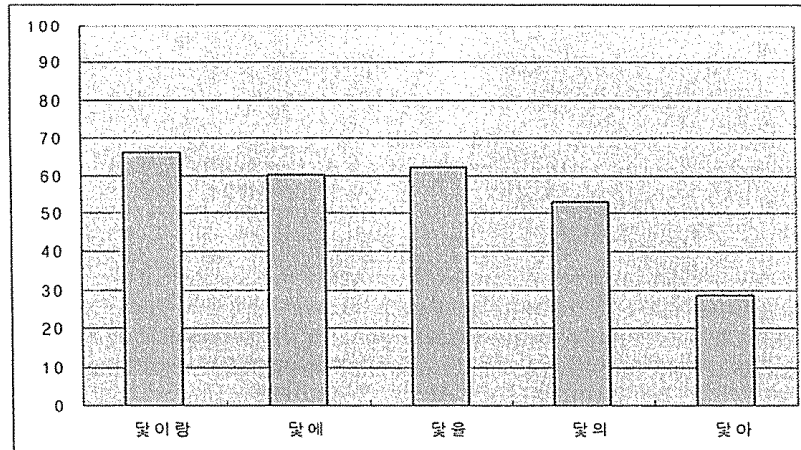


그림56. '닷'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4 돛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형태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낮은 가운데 '돛에'와 '돛의'도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돛으로'는 [도츠로](68.85%), [도스로](30.2%)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도즈로]와 [도트로]로 각각 2회씩 나왔다. '돛이'는 [도치](64.1%)와 [도시](34.8%)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도지]가 4회 나왔다. '돛의'는 [도치/도체](57%), [도식/도세](40%) 발음되었으며 [도테]가 2회가 관찰되었다. '돛에'는 [도체](55.7%), [도세](42.7%) 기타 발음으로 [도테] 5회, [도데] 4회, [도제] 1회가 나왔다. '돛아'는 [도차](26.7%), [도사](55.2%)로 발음되었으며 [도다]로 13.2% 발음되었다. 기타 발음으로 [도타] 3회, [도자] 3회, [도다] 1회가 나왔다.

단어	표준 발음	[入]
돛이	64.1	34.8
돛에	55.7	42.7
돛으로	68.85	30.2
돛의	57	40
돛아	26.7	55.2

표61. '돛'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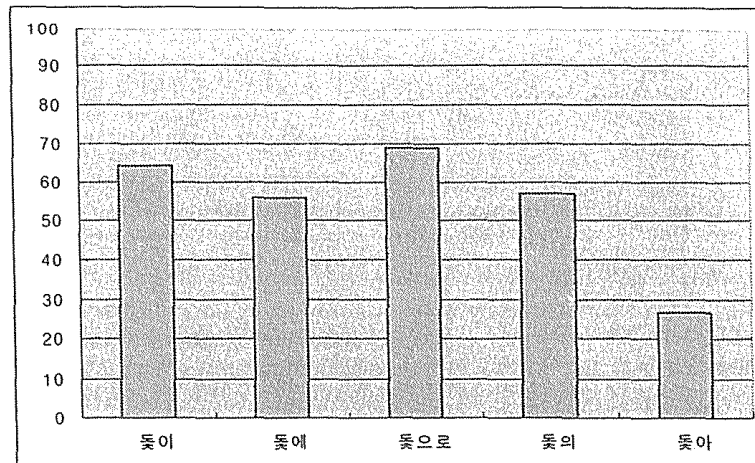


그림57. '뭇'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5 뭇

같은 부류의 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뭇'은, '뭇이'가 표준 발음 [며치]로 발음된 비율이 90.85%로 다른 단어와 비교해서 유독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합하는 조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의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이는 '아' 결합형도 다른 단어에 비해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뭇이'는 [며치](90.85%), [며시](8.9%)로 발음되었고 '뭇으로'는 [며츠로는](74.8%), [며스로는](21.55%)으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며트로(는)]가 26회 나타났다. '뭇에'는 [며체](65.4%), [며세](27.6%)로 발음되었고 기타 발음으로는 [며테]가 53회 나타났다. '뭇뭇의'는 [면며치/면며체](56.35%), [면며식/면며세](39.05%)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면며티/면며테]가 20회 나타났다. '뭇아'는 [며차] 39.75%, [며사] 36.4%, [며다] 11.8%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며타]가 30회, [며자]가 8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入]
뭇이	90.85	8.9
뭇에	65.4	27.6
뭇으로	74.8	21.55
뭇뭇의	56.35	39.05
뭇아	39.75	36.4

표62. '뭇'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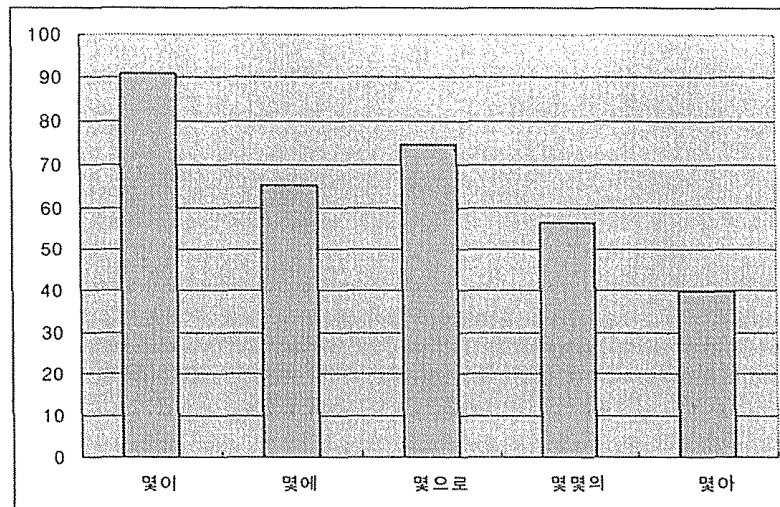


그림58. '뎃'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6 뎃

표준 발음이 높은 형태부터 배열하면 '뎃이랑', '뎃에', '쥐뎃으로', '쥐뎃의', '뎃아' 순이다. '뎃'은 어떤 조사가 결합되든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뎃이랑'은 [더치랑](68.7%), [더시랑](30.9%)으로, '뎃에'는 [더체](63.9%), [더세](33.7%)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더테]가 19회 나왔다. '쥐뎃으로'는 [쥐더츠로](48.35%), [쥐더스로](50.25%)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쥐더트로] 4회, [쥐더드로] 2회가 나왔다. '쥐뎃의'는 [쥐더치/쥐더체]이 47%, [쥐더식/쥐더세]이 47.55%로 나왔으며 기타 발음으로 [쥐더티/주더테]가 7회 나왔다. '뎃아'는 [더차] 27.95%, [더사] 58.35%, [더다] 10.5%로 발음되었으며 [더타]가 7회 나왔다.

단어	표준 발음	[入]
뎃이랑	68.7	30.9
뎃에	63.9	33.7
쥐뎃으로	48.35	50.25
쥐뎃의	47	47.55
뎃아	27.95	58.35

표63. '뎃'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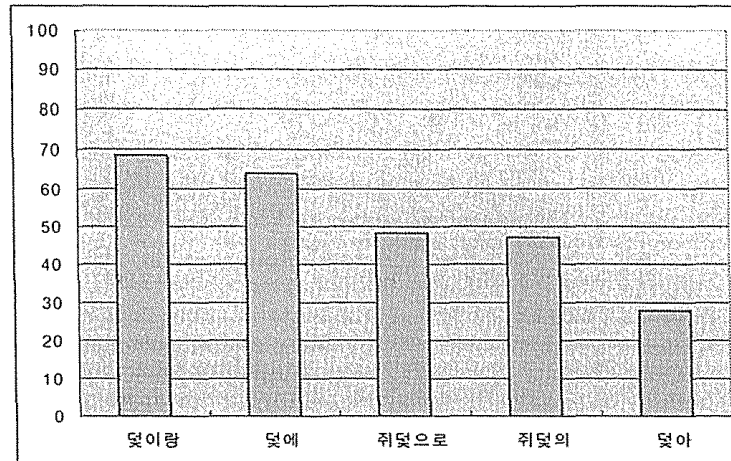


그림59. '뎃'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7 빛

비교적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처격 조사 '에서'가 붙은 형태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또한 같은 발음으로 날 가능성이 많은 '빛의'와의 응답률 차이가 현격하여 [달비체서] 54.75%, [비치] 70.5%의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다.

'햇빛이'는 [해비치] 71%, [해비시] 28.6%로 나타났고 '빛의'는 [비치/비체] 70.5%, [비식/비세] 27.15%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비틱/비테]가 11회 나타났다. '빛을'은 [비출] 63.7%, [비슬] 35.6%로 나타났고 기타 발음으로 [비틀]이 3회 나타났다. '달빛에서'는 [달비체서] 54.75%, [달비세서] 35.6%로 나타났고, 기타 발음으로 [달비테서]가 74회(6.25%)로 나타났다. '빛아'는 [비차] 27.95%, [비사] 57.45%, [비다] 11.55%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비타]가 18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入]
햇빛이	71	28.1
달빛에서	54.75	35.6
빛을	63.7	35.6
빛의	70.5	27.15
빛아	27.95	57.45

표64. '빛'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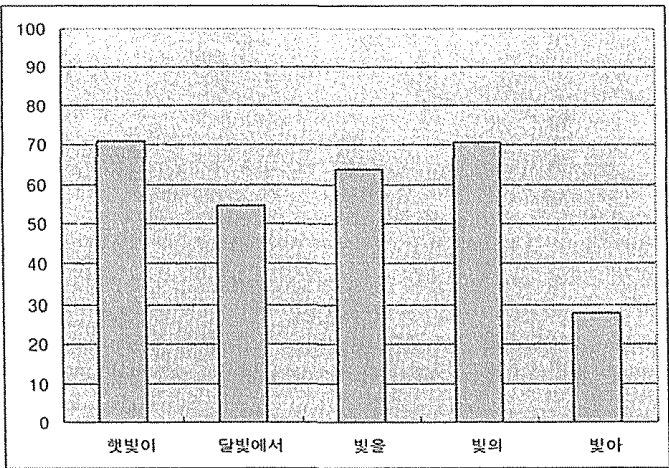


그림60. ‘빛’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8 살갓

전반적으로 어떤 조사가 결합하든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만큼 조사별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살갓이’는 [살까치](50%), [살까시](49.9%)로, ‘살갓의’는 [살까치/살까체](39%), [살까식/살까세](58.6%)로, ‘살갓에’는 [살까체](36.2%), [살까세](58.2)로 발음되었으며 기타 발음으로 [살까테]가 55회 나타났다, ‘살갓은커녕’은 [살까튼커녕] 35.3%, [살까순커녕] 62.35%로 나타났고 기타 발음으로 [살까튼커녕]이 5회 나타났다. ‘살갓아’는 [살까차] 20.75%, [살까사] 68.35%, [살까다] 6%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살까타]가 8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入]
살갓이	50	49.9
살갓에	36.2	58.2
살갓은커녕	35.3	62.35
살갓의	39	58.6
살갓아	20.75	68.35

표65. ‘살갓’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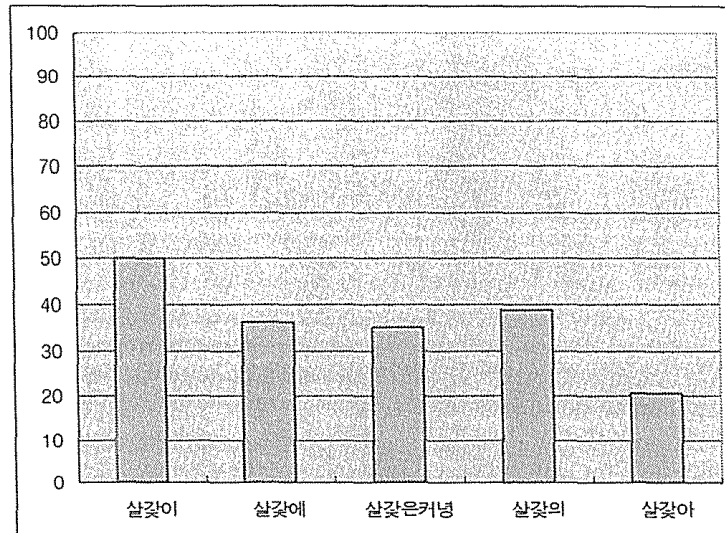


그림61. '살갓'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9 솟

어떤 조사가 결합하든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솟' 역시 주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솟이'는 [수치] 55.15%, [수시] 43.6%로 나타났다. '솟으로'는 [수츠로] 53.5%, [수스로] 44.1%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수트로]가 19회 나타났다. '솟의'는 [수치/수체] 49.5%, [수식/수세] 46.85%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수틱/수테]가 16회 나타났다. '솟에'는 [수체] 41.05%, [수세] 54.2%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수테]가 46회 나타났다. '솟아'는 [수차] 24.35%, [수사] 59.15%, [수다] 11.5%이며 기타 발음으로 [수타]가 21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ㅅ]
솟이	55.15	43.6
솟에	41.05	54.2
솟으로	53.5	44.1
솟의	49.5	46.85
솟아	24.35	59.15

표66. '솟'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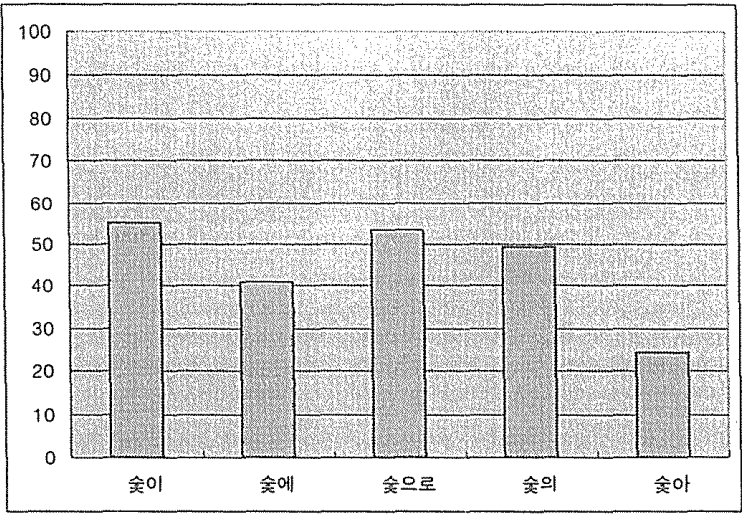


그림62. ‘숯’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4.1.10 옷

‘옷’은 받침 ‘ㅈ’로 끝나는 단어 중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은 단어 중 하나이다. 또한 조사 대상 단어 중 빈도수가 가장 낮은 단어이기도 한다.

‘옷이’는 [오치] 36.75%, [오시] 60.95%, ‘옷을’은 [오출] 35.5%, [오슬] 63.65%, ‘옷의’는 [오척/오체] 32.65%, [오식/오세] 65.15%, ‘옷에’는 [오체] 30%, [오세] 68%로 나타났으며 [오테] 12회로 나타났다. ‘옷아’는 [오차] 19.3%, [오사] 69.85%, [오다] 8.5%로 나타났으며 기타 발음으로 [오타]가 4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入]
옷이	37.5	60.95
옷에	30	68
옷을	35.5	63.65
옷의	32.65	65.15
옷아	19.3	69.85

표67. ‘옷’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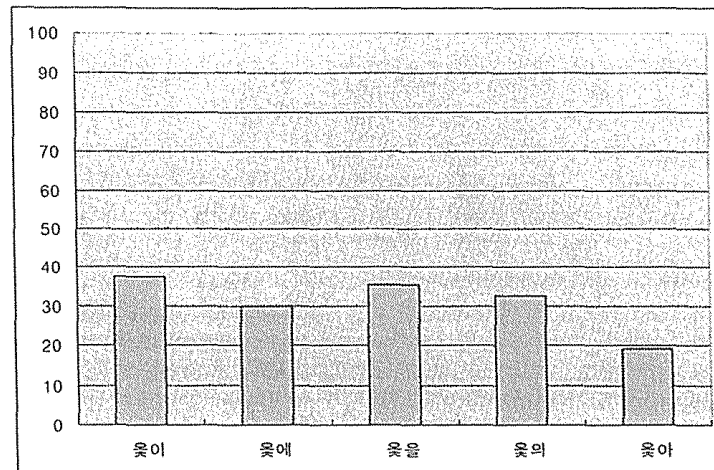


그림63. '옷'의 조사별 발음 비율

4.1.11 옷

‘옷’은 받침 ‘ㅈ’로 끝나는 단어 중 ‘옷’과 함께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은 단어이다. 어떤 의미에서 ‘ㅅ’으로의 재구조화 단계가 이미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다른 ‘ㅈ’ 받침 어간과 달리 ‘옷으로는’을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옷으로는’은 [유츠로는] 39.4%, [유스로는] 58.6%, ‘옷이’는 [유치] 36.75%, [유시] 62.8%이며, ‘옷에는’은 [유체는] 31.4%, [유세는] 65.5%이며 기타 발음으로 [유테는]가 27회 나타났다. ‘옷의’는 [유치/유체] 29.75%, [유식/유세] 67.6%이며 ‘옷아’는 [유차] 18.7%, [유사] 68.8%, [유다] 10%이며 기타 발음으로 [유타]가 9회 나타났다.

단어	표준 발음	[ㅅ]
옷이	36.75	62.8
옷에는	31.4	65.3
옷으로는	39.4	58.6
옷의	29.75	67.7
옷아	18.7	68.8

표68. '옷'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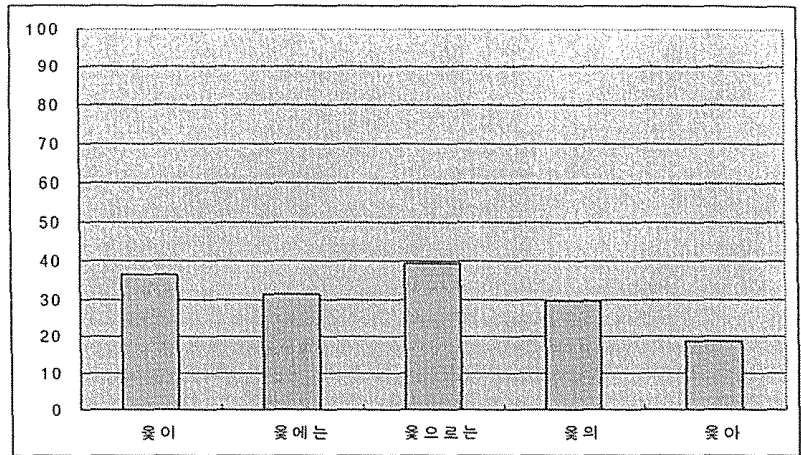


그림64. ‘옷’의 조사별 발음 비율

4.2 결합하는 조사별 변이

개별 조사와 결합할 때 전체 단어의 평균만을 놓고 볼 때에는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할 때가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으로, 을’, ‘의’, ‘에’ 순으로 평균 응답률의 분포를 보였다. 다른 단어 부류와 마찬가지로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표준 발음보다는 마찰음 [ㄴ]로 발음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았고 평균 약 10% 정도는 [ㄷ]로 발음하였다.

꽃이	72.65	꽃으로	67.75	꽃에서	47.1	꽃의	57.95	꽃아	25.25
낮이나	68.25	낮으로	62.85	낮에	47.25	낮의	49.95	낮아	27.55
닷이랑	66.2	닷을	62.3	닷에	60.25	닷의	52.8	닷아	28.65
돛이	64.1	돛으로	68.85	돛에	55.7	돛의	57	돛아	26.7
몇이	90.85	몇으로	74.8	몇에	65.4	몇몇의	56.35	몇아	39.75
덧이랑	68.7	뒤덧으로	48.35	덧에	63.9	귀덧의	47	덧아	27.95
햇빛이	71	빛을	63.7	달빛에서	54.75	빛의	70.5	빛아	27.95
살갓이	50	살갓은커녕	35.3	살갓에	36.2	살갓의	39	살갓아	20.75
숫이	55.15	숫으로	53.5	숫에	41.05	숫의	49.5	숫아	24.35
옷이	37.5	옷을	35.5	옷에	30	옷의	32.65	옷아	19.3
웃이	36.75	웃으로	39.4	웃에	31.4	웃의	29.75	웃아	18.7
	61.92		55.66		48.45		49.31		26.08

표69. ‘ㅈ’ 받침 어간의 조사별 발음 비율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받침 ‘ㅈ’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경우 조사 ‘의’가 결합할 때보다 ‘에’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으나 받침 ‘ㅈ’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에’보다 ‘의’와 결합할 때 표준 발음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는 것이다.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받침 ‘ㄷ’은 대부분 마찰음 [ㅈ]로 발음되는데 간혹 [ㅌ]로 발음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체언 어간말 ‘ㄷ’이 [ㅌ]로 실현되는 것은 대격 또는 처격 조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며 특히 처격 조사와의 결합에서 그 실현율이 높다¹⁹⁾.

이에 대해 백두현(1992)은 20세기 초 문헌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ㄷ’이 [ㅌ]로 실현되는 것을 유추적 과도 교정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ㄷ’을 [ㅌ]로 실현하는 것은 ‘꼬틀-꼬치’, ‘바틀-바치’와 같은 패러다임의 실현에 의해 ‘꼬틀-꼬치’로 유추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패러다임의 통일을 지향하려는 의도에서 실현되는 유추적 과도 교정으로, 이 결과 화자는 기억상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조사와 결합할 때에 표준 발음 응답률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조사	표준 발음 비율
이	61.92
에(서)	48.45
으로, 을	55.66
의	49.31
아	26.08

표70. 받침 ‘ㄷ’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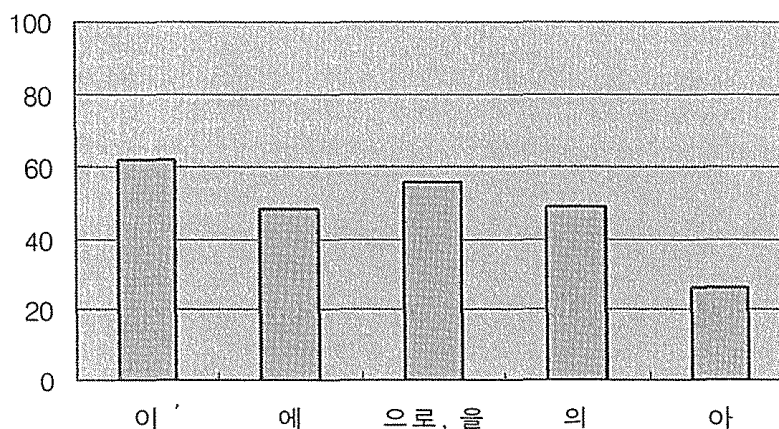


그림65. 받침 ‘ㄷ’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19) 이런 현상에 대해 최명옥(1974)은 중화 상태에서 그대로 유기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조사가 결합하든 ‘읏, 읏, 살갓’은 표준 발음 비율이 낮고 ‘멧’은 표준 발음 비율이 높다. 아래에 각각 조사별로 표준 발음이 높은 순서에 따라 표와 그림을 제시하였다.

기준	형태	퍼센트
81-100%	멧이	90.85
61-80%	꽃이	72.65
	햇빛이	71
	멧이랑	68.7
	낮이나	68.25
	닷이랑	66.2
	돛이	64
41-60%	숯이	55.5
	살갓이	50
21-40%	읏이	37.5
	읏이	36.75

표71. 받침 ‘ㄷ’ + ‘이’

기준	형태	퍼센트
61-80%	멧으로	74.8
	돛으로	68.85
	꽃으로	67.75
	빛을	63.7
	낮으로	62.85
	닷을	62.3
41-60%	숯으로	53.5
	쥐멧으로	48.35
21-40%	읏으로는	39.4
	읏을	35.5
	살갓은커녕	35.3

표72. 받침 ‘ㄷ’ + ‘으’

기준	형태	퍼센트
61-80%	멧에	64.4
	돛에	63.9
	닷에	60.25
41-60%	돛에	55.7
	달빛에서	54.75
	낮에	47.25
	꽃에서	47.1
	숯에	41.05
21-40%	살갓에	36.2
	읏에는	31.4
	읏에	30

표73. 받침 ‘ㄷ’ + ‘에’

기준	형태	퍼센트
61-80%	빛의	70.5
41-60%	꽃의	57.95
	돛의	57
	멧멧의	56.35
	닷의	52.8
	낮의	49.95
	숯의	49.5
	쥐멧의	47
21-40%	살갓의	39
	읏의	32.65
	읏의	29.75

표74. 받침 ‘ㄷ’ + ‘의’

기준	형태	퍼센트
21-40%	몇아	39.75
	닷아	28.65
	덧아	27.95
	빚아	27.95
	낫아	27.55
	똥아	26.7
	꽃아	25.25
	숯아	24.35
	살갓아	20.75
	웃아	19.3
	웃아	18.7

표75. 받침 ‘ㄷ’ + ‘아’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할 때에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던 ‘ㄷ’ 받침 어간의 경우와 달리 ‘ㄷ’으로 끝나는 조사 대상 단어들 중 한 경우도 ‘에’와 결합할 때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경우가 없었다. ‘ㄷ’ 받침의 경우 ‘몇, 닷, 덧, 빚, 낫, 똥, 꽃, 숯, 살갓, 웃, 웃’ 등 사실상 ‘에’와 결합하여 장소를 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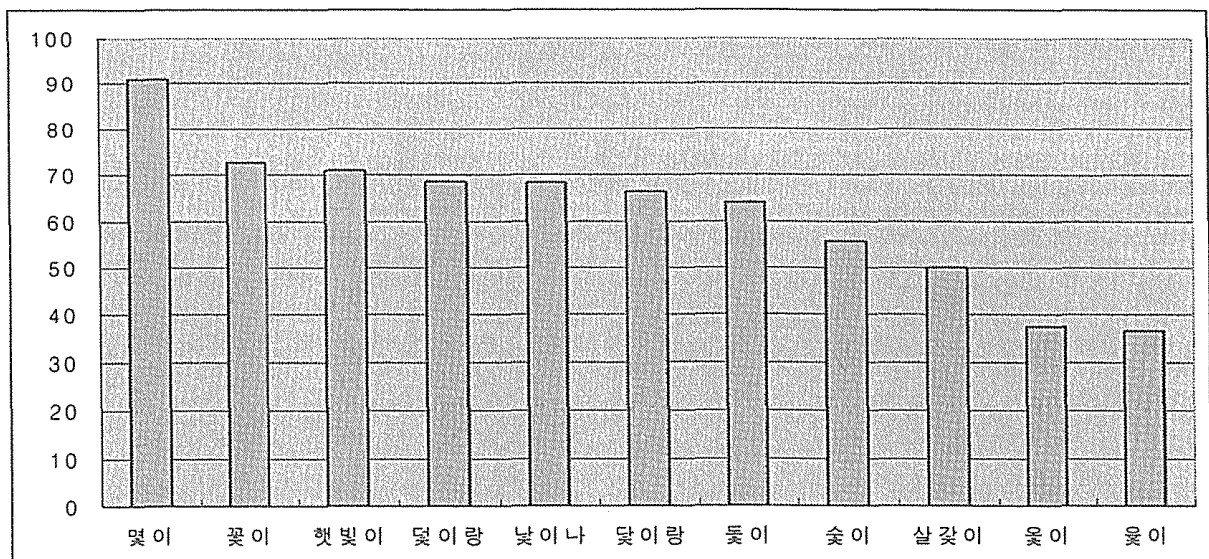


그림66. 받침 ‘ㄷ’ +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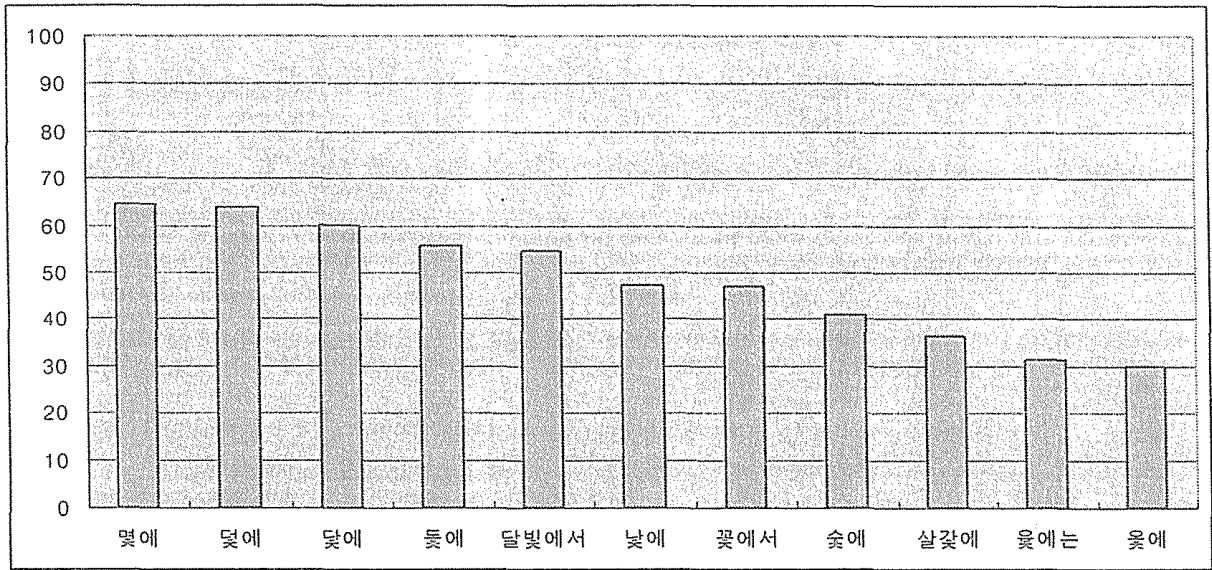


그림67. 받침 ‘ㄷ’ +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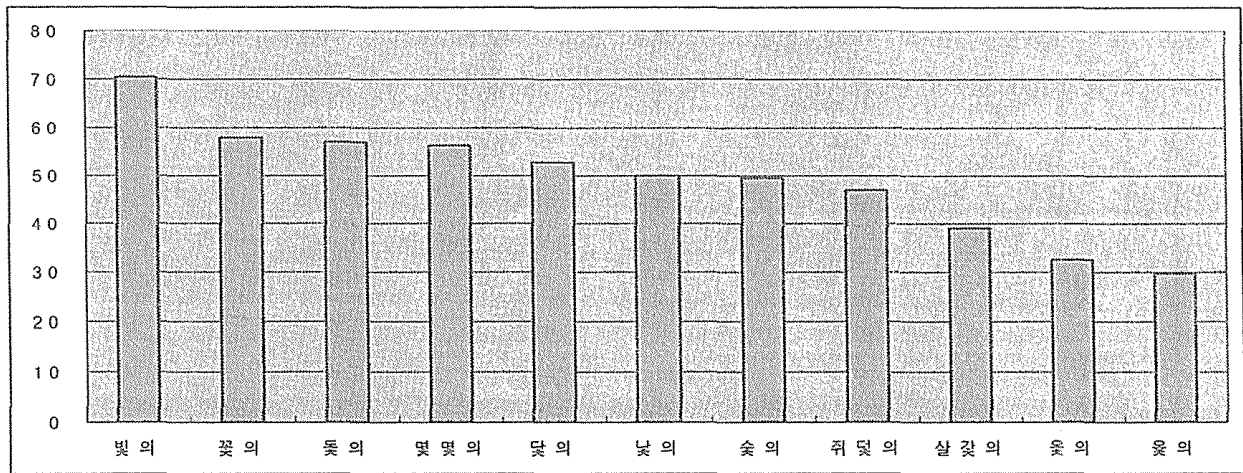


그림68. 받침 ‘ㄷ’ +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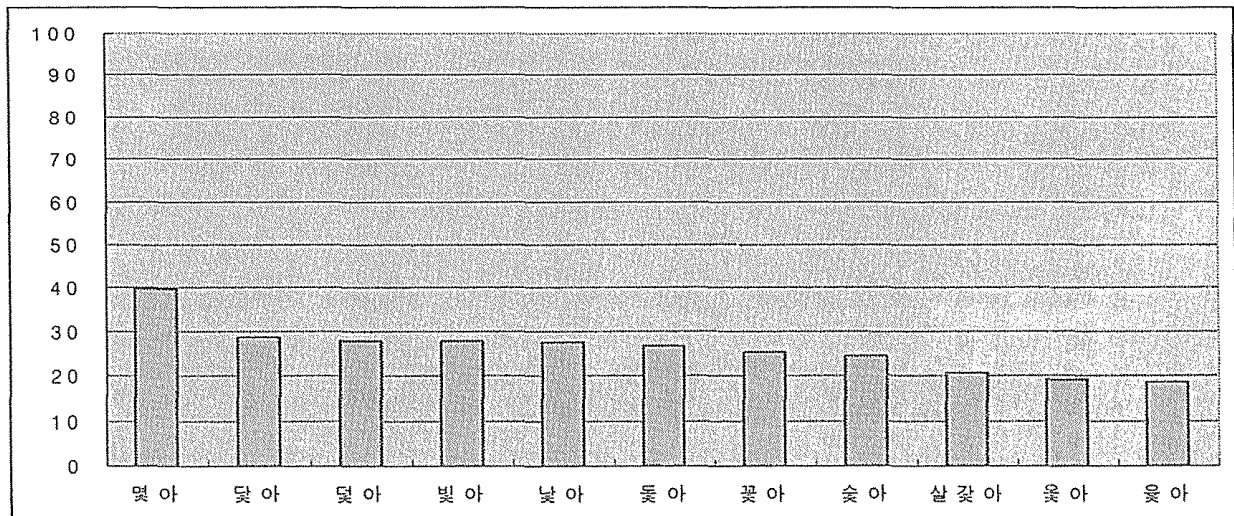


그림69. 받침 ‘ㄷ’ +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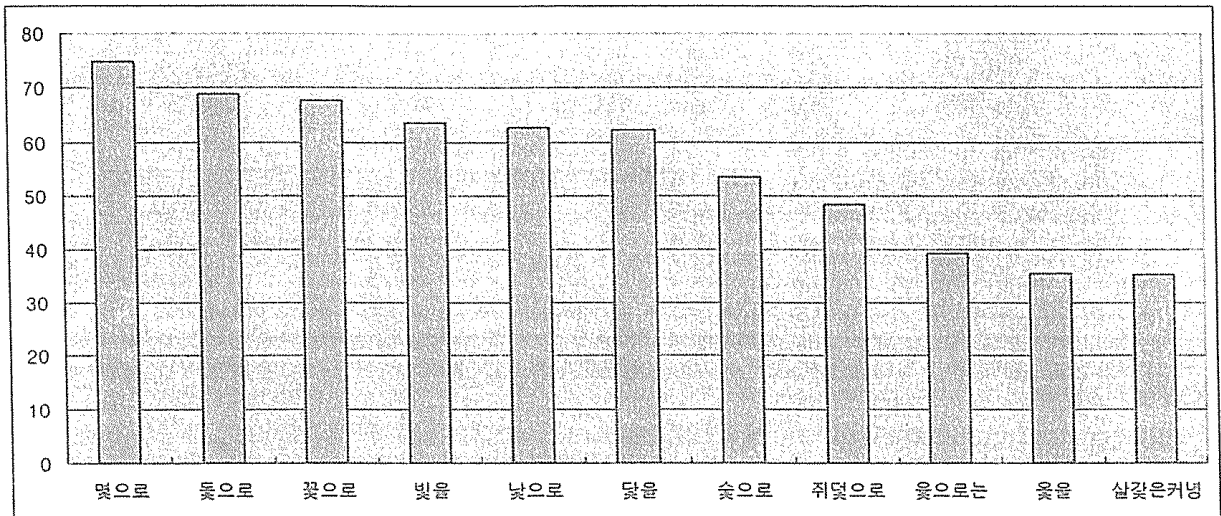


그림70. 받침 'ㄷ' + '으로, 을'

4.3 연령별 변이²⁰⁾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연령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조사 '이', '에'가 결합할 때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주격 조사 결합형의 경우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표준 발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처격 조사 '에' 결합형은 70대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조사 '으로, 은, 을'이 결합할 때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조금씩 내려간다.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표준 발음 비율도 올라간다.

조사 '이'가 결합하는 예들 중 '꽃이, 햇빛이, 돛이, 솟이, 살갓이, 옷이'는 40대에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는데, '살갓이'와 '옷이'만이 그 다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50대였고 나머지 단어에서는 70대가 40대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몇이	89.8	92.3	91.3	88.2
꽃이	74.5	71.4	71.8	72.5
햇빛이	73.7	70.9	66.7	71.6

20) 어느 세대에서도 'ㄷ'이 'ㄷ'보다 [ㅌ]으로 실현되는 정도가 더 높는데 이는 'ㄷ'이 [ㅌ]으로 실현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ㄷ'이 [ㅌ]으로 실현되려면 우선 [ㅌ]으로 실현되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파찰음 'ㄷ'이 폐쇄음과 마찰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ㄷ'의 마찰음화, 즉 [ㅌ]으로의 실현이 폐쇄음 'ㄷ'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낮이나	72.7	65.1	67.9	63.7
덧이랑	69.6	66.6	71.4	66.7
덧이랑	69.3	62.5	65.5	71.6
돛이	69.3	58.6	62.7	68.6
솟이	59.4	50.4	55.6	57.8
살갓이	53.8	49.2	48.4	42.2
웃이	42.3	36.3	32.5	35.3
웃이	42.3	30.3	34.5	47.1
평균값	65.15	59.42	60.75	62.30

표76. 받침 ‘ㄷ’ + ‘이’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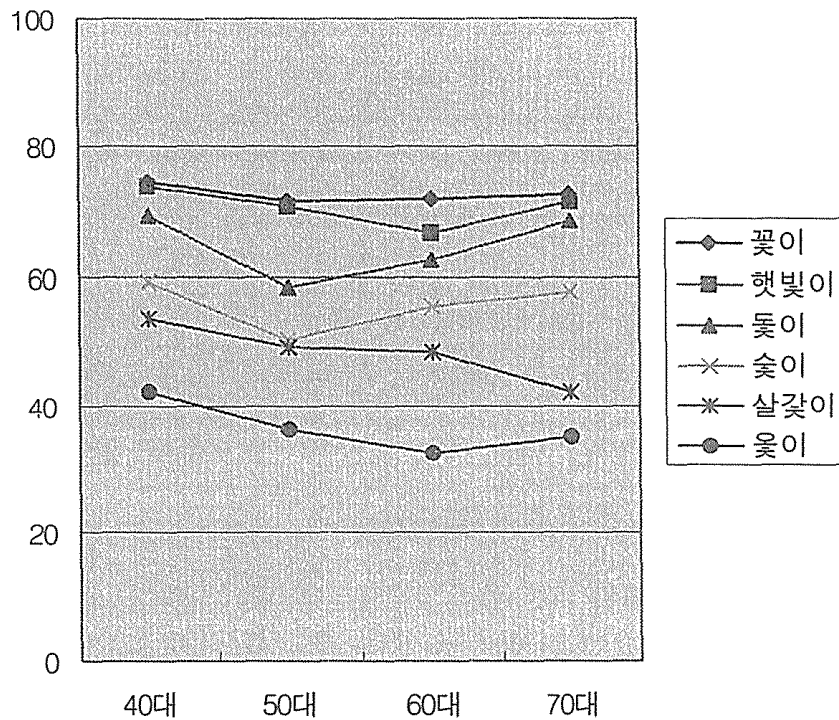


그림71. 받침 ‘ㄷ’ + ‘이’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ㄷ’ 받침 어간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에는 70대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닷에, 돛에, 달빛에서, 날에, 꽃에서’의 발음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수치를 나타냈다. 7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연령층은 40대인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50대와는 평균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덧에	72.7	60.8	57.9	54.9
멋에	64.7	67.1	64.7	62.7
닷에	60.1	59.6	59.5	66.7
돛에	56.2	54.7	52	66.7
달빛에서	53.8	53.5	56	60.8
낮에	46.5	44.8	49.2	55.9
꽃에서	45.5	46	48	55.9
숯에	44.8	35.4	44.8	40.2
살갓에	38.4	34.4	35.7	35.3
옷에는	33.6	26.6	34.9	33.3
옷에	31.9	26.6	32.9	29.4
평균값	49.84	46.32	48.69	51.07

표77. 받침 ‘ㄷ’ + ‘에’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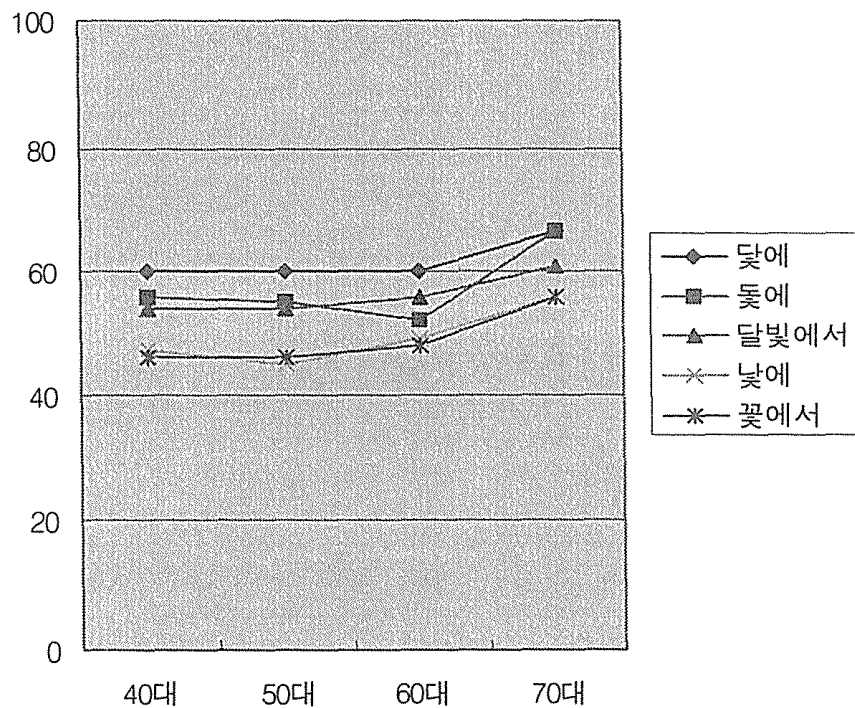


그림72. 받침 ‘ㄷ’ + ‘에’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으로’가 결합한 단어의 평균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면 4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그다지 큰 수치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70대가 약간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 중 ‘멋으로’와 ‘옷을’은 ‘ㄷ’ 받침 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수와 가장 낮은 빈도수의 단어인데 이들 단어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40대	50대	60대	70대
몇으로	78.6	74.8	72.6	65.7
꽃으로	73	66.1	61.9	67.6
뚫으로	72	68	65.9	67.6
낮으로	66.7	61.5	59.9	60.8
닷을	66.2	60.3	57.5	68.6
빚을	65	61.5	62.7	70.6
숯으로	54.5	50.6	59.1	48
쥐뺨으로	50.1	44.8	51.2	50
웃으로는	44.8	35.8	38.5	35.3
웃을	37.7	35.4	34.1	30.4
살갓은커녕	35	36	33	37.3
평균값	58.51	54.07	54.22	54.72

표78. 받침 ‘ㄷ’ + ‘으로, 을’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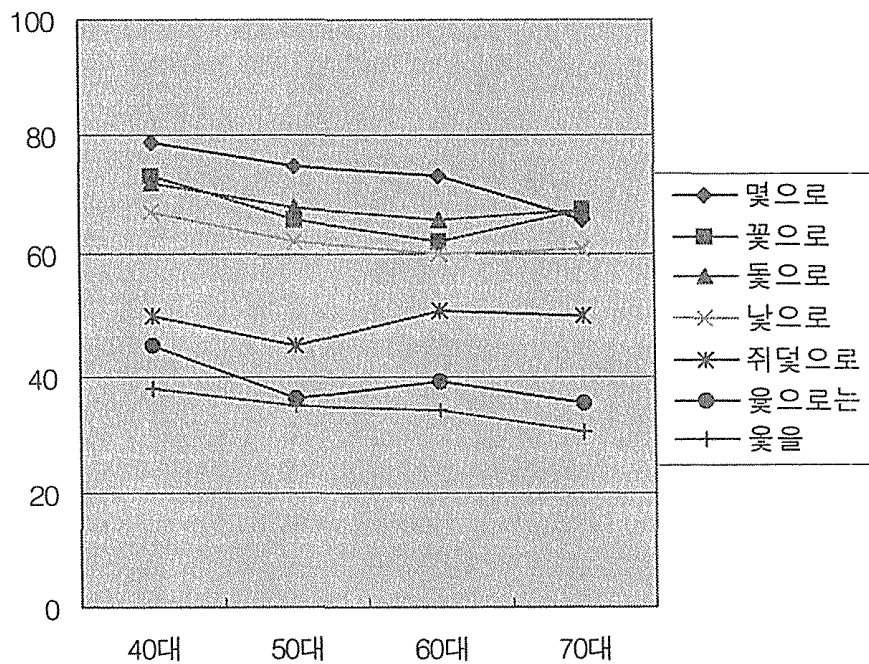


그림73. 받침 ‘ㄷ’ + ‘으로, 을’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소유격 조사 ‘의’가 결합하는 때에는 평균 비율상으로는 40대 다음에 60대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과, 7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빛의 꽃의, 몇몇의, 낮의, 숯의, 웃의’가 해당되고, 후자는 ‘뚫의 닷의, 쥐뺨의, 살갓의, 웃의’가 해당된다.

	40대	50대	60대	70대
빛의	73	71.9	65.5	66.7
꽃의	60.8	57.1	58.3	49
돛의	57.7	51.1	62.7	63.7
몇몇의	57.9	56.7	54	54.9
달의	56.2	47	54	59.8
낮의	51.3	51.3	47.2	46.1
쥐뿔의	47.2	44.8	48	52
숲의	51.8	47.5	51.6	44.1
살갗의	38.9	37.8	39.3	43.1
옷의	35.5	30.3	32.9	29.4
옻의	32.4	23.5	34.1	34.3
평균	51.15	47.18	49.78	49.37

표79. 받침 ‘ㄷ’ +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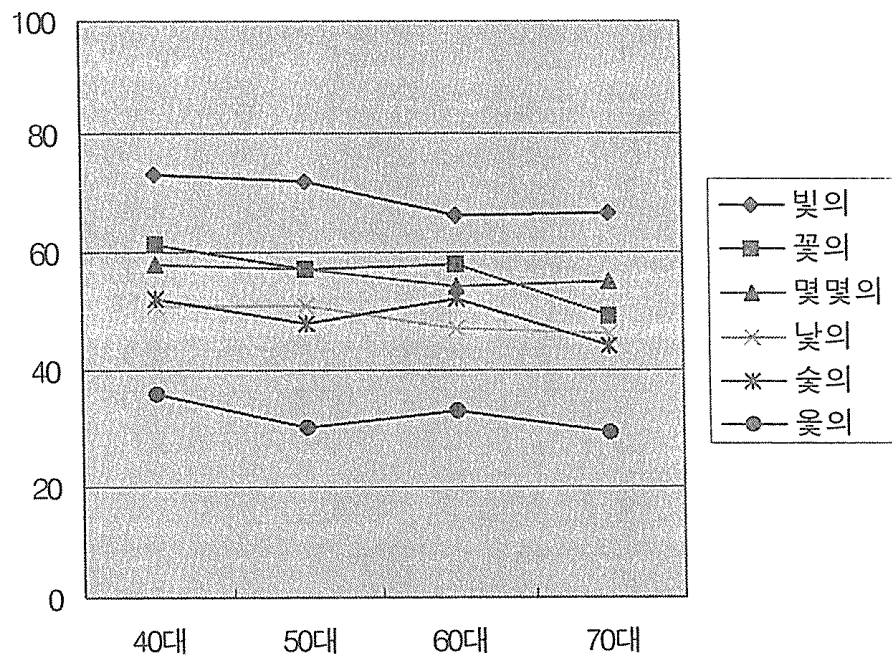


그림74. 받침 ‘ㄷ’ +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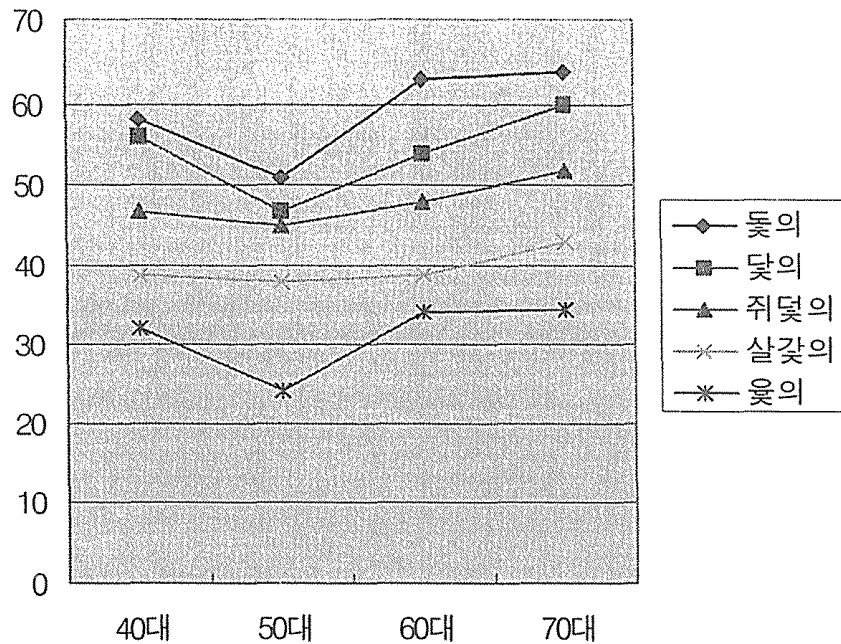


그림75. 받침 'ㅈ' + '의'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2

다른 조사 결합형과 달리 연령별 응답률에서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는 호격 조사 '아' 결합형은 7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낮아졌다. 이는 이전 'ㅈ' 받침 어간의 연령대별 비교와도 상반된 결과로 주목할 만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뫏아	35	41.6	41.3	47.1
뫓아	25.3	24.5	34.1	46.1
뫓아	24.8	24.2	34.1	40.2
낫아	23.8	27.1	30.2	37.3
뫓아	22.1	22.5	33.3	45.1
꽃아	21.4	23.7	29	37.3
빛아	20.2	27.6	37.7	37.3
숯아	20.4	23.2	28.6	35.3
살갓아	17.3	18.9	26.6	27.5
읓아	16.1	17.2	25	27.5
읓아	16.3	16	23.4	28.4
평균	22.06	24.23	31.21	37.19

표80. 받침 'ㅈ' + '아'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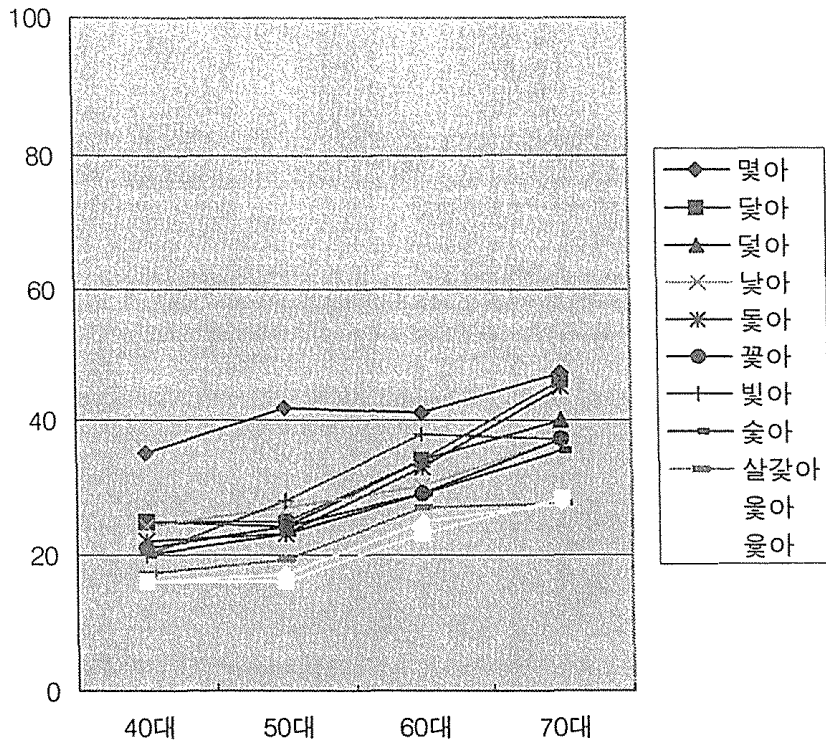


그림 76. 받침 'ㅈ' + '아'의 연령별 표준 발음 비율

4.4 학력별 변이

대체로 학력이 상승할수록 표준 발음 비율도 조금씩 상승하였다. 다만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무학에서 중졸까지 상승하다가 고졸과 대졸에서는 다시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ㅈ' 받침 어간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주격 조사 '이' 결합형은 모든 단어에서 대졸 이상 학력의 응답자들이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무학이나 초졸 학력의 응답자들이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무학이나 초졸자의 수가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소수이기 때문에 차후 응답자 비율을 맞추는 보충 조사가 필요하겠다. 대졸자의 응답에서도 단어에 따른 응답 비율의 격차가 매우 커, '몇이'를 [며치]로 발음한다는 응답자는 91%였지만 '웃이'를 [오치]로 발음한다는 응답자는 42%에 불과하였다. 표준 발음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은 대졸자이지만 자주 쓰지 않는 '웃이'나 '웃이'의 발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뗏이	82.1	89.5	91.4	91.3	90.9
햇빛이	75	61	63.6	70.6	76.8
달이랑	67.9	61	64.3	65	70
꽃이	57.1	62.9	70	73.1	76.6
낮이나	57.1	66.7	67.1	66.6	72.3
돛이	53.6	60	65.7	62.3	67.8
뗏이랑	53.6	67.6	66.4	69.6	69.8
숯이	42.9	59	58.6	51.2	59.2
살갓이	35.7	41	51.4	48.4	54.9
웃이	32.1	31.4	41.4	36.4	37.5
웃이	28.6	30.5	37.1	36.4	41.6
평균	53.25	57.33	61.55	60.99	65.22

표81. 받침 ‘ㄷ’ + ‘이’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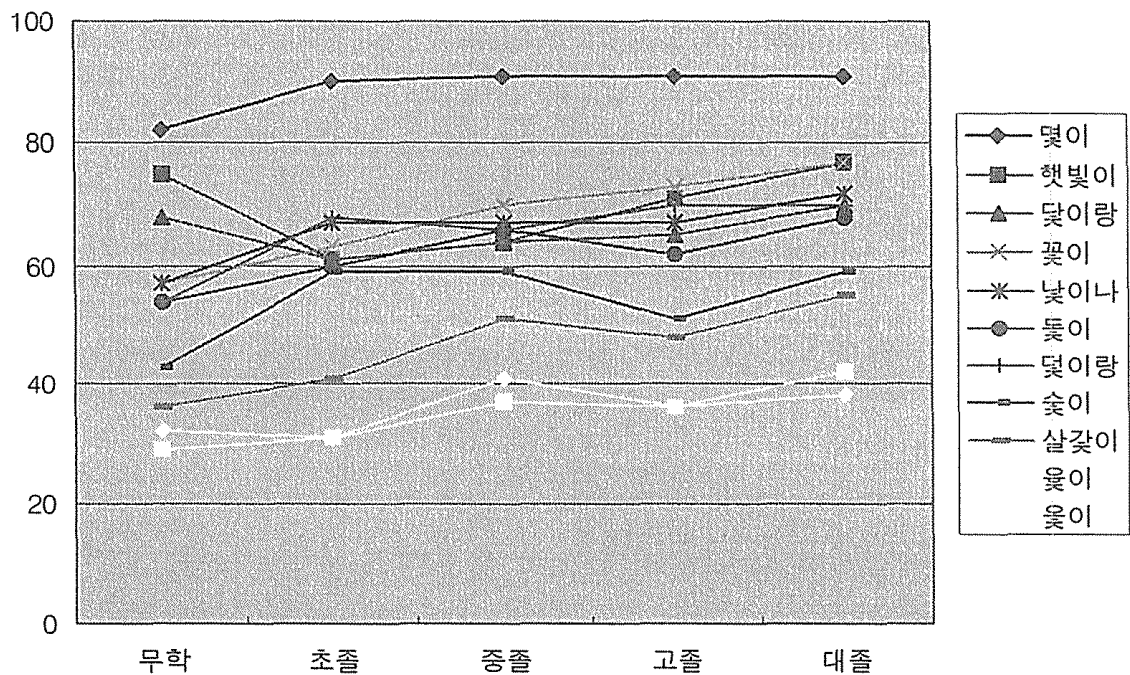


그림77. 받침 ‘ㄷ’ + ‘이’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조사 ‘에’ 결합형에서는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이 대졸자가 가장 높았다. 이 중 ‘뗏에, 달빛에서, 낮에, 달에, 숯에, 웃에’는 개별 단어에서도 대졸자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돛에, 꽃에서, 웃에는’은 중졸자가, ‘뗏에’와 ‘살갓에’는 고졸자가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몇에	50	62.9	63.6	66.8	66
덧에	46.4	49.5	65.7	63.6	68.8
달빛에서	42.9	52.4	50.7	56.1	56.2
낮에	42.9	46.7	47.1	47.2	47.9
돛에	42.9	49.5	58.6	55.9	56.9
꽃에서	39.3	40	50.7	49.4	45.6
닷에	39.3	58.1	62.1	59.3	63
살갓에	32.1	24.8	32.9	38.9	37.3
숯에	21.4	31.4	37.1	41.1	46.6
옷에	14.3	30.5	31.4	29.6	31
옷에는	14.3	33.3	37.1	32	29.5
평균	35.07	43.55	48.82	49.08	49.89

표82. 받침 ‘ㄷ’ + ‘에’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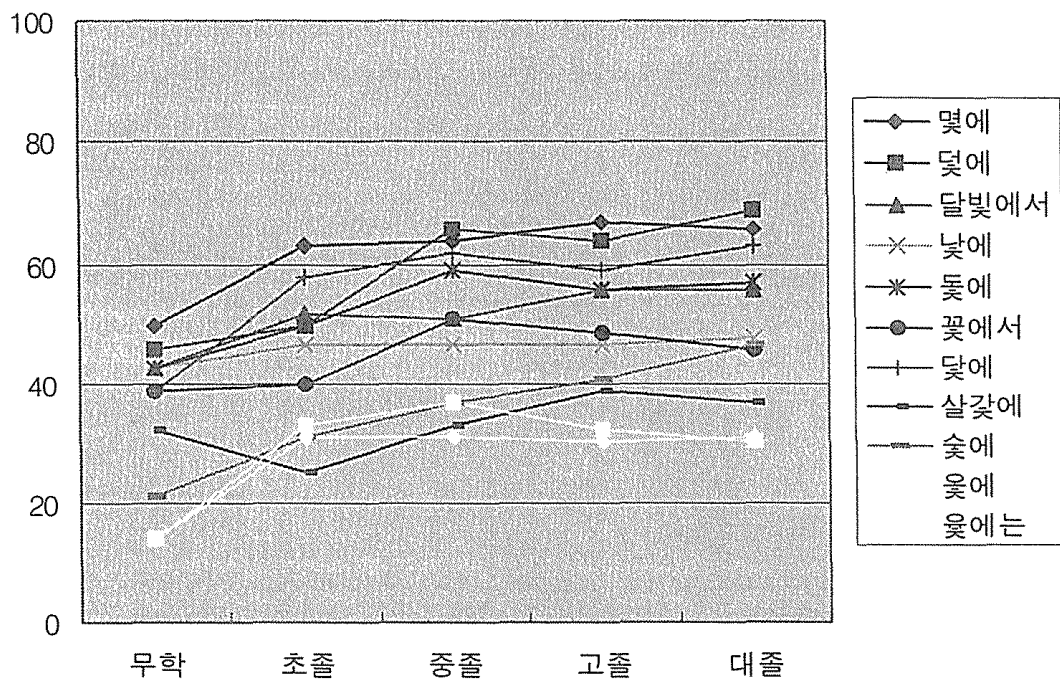


그림78. 받침 ‘ㄷ’ + ‘에’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조사 ‘으로, 을, 은커녕’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거의 예외 없이 대졸자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는데, 다만 ‘취뺨으로’와 ‘숯으로’는 중졸자의 표준 발음 비율이 다른 학력보다 높았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뚝으로	60.7	60	64.3	67.2	75.8
땃을	53.6	52.4	61.4	60.7	68.5
땃으로	50	65.7	72.9	75.3	79.3
쨌땃으로	50	42.9	52.9	48.2	48.6
꽃으로	46.4	51.4	60.7	69	74.6
낫으로	46.4	51.4	59.3	63.2	68.3
빛을	39.3	59	58.6	62.1	70.8
살갓은커녕	35.7	22.9	35.7	34	40.1
숯으로	28.6	54.3	57.9	53	54.4
웃을	25	27.6	37.1	35	38.5
웃으로는	25	33.3	36.4	40.1	42.3
평균	41.88	47.35	54.29	55.25	60.11

표83. 받침 ‘ㄷ’ + ‘으로, 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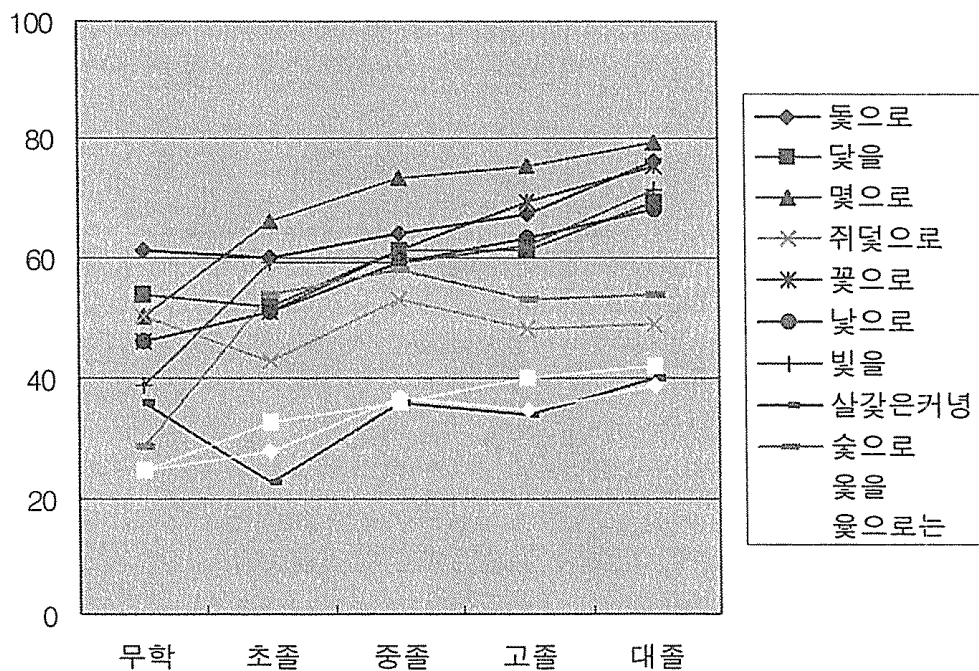


그림79. 받침 ‘ㄷ’ + ‘으로, 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소유격 조사 ‘의’와 결합할 때에도 역시 대졸자의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땃땃의’의 경우 고졸자와 중졸자가 대졸자보다 표준 발음 수치가 높았고, ‘쨌땃의, 웃의, 숯의’는 중졸자가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았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뫼의	53.6	53.3	54.3	56.5	59.7
뫼뫼의	46.4	38.1	59.3	58.5	57.9
꽃의	39.3	44.8	52.1	59.5	63
쥬뫼의	39.3	45.7	51.4	48.4	44.3
낫의	39.3	35.2	42.1	51.6	55.4
뫼의	39.3	49.5	53.6	51	56.4
뫼의	32.1	57.1	68.6	71.5	75.8
살갓의	28.6	33.3	37.1	39.3	41.6
웃의	25	29.5	34.3	29.1	29.5
웃의	21.4	43.8	55.7	49	51.6
웃의	17.9	24.8	34.3	32.2	35.5
평균	34.75	41.37	49.35	49.69	51.88

표84. 받침 ‘ㅈ’ + ‘의’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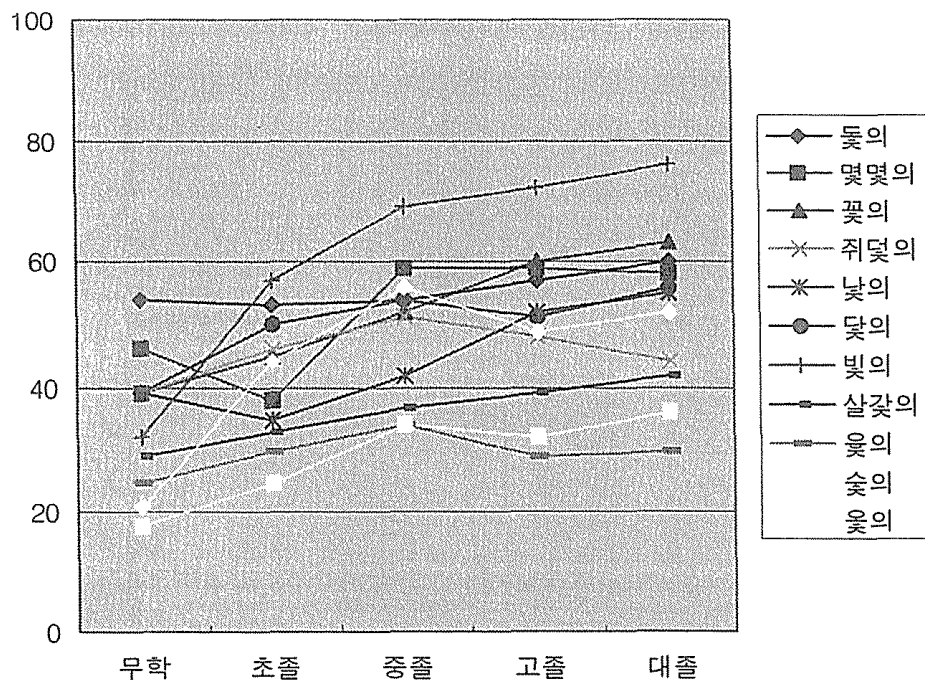


그림80. 받침 ‘ㅈ’ + ‘으로, 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호격 조사 ‘아’ 결합형의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을 초졸 이하와 중졸 이상 학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졸 이하에서는 무학이 현저히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졸 이상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ㅈ’ 받침을 [ㄷ]로 발음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무학의 경우는 응답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어 다른 학력층과 동등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닷아	28.6	32.4	33.6	27.7	27.2
돛아	28.6	30.5	27.9	25.7	26.4
몫아	25	38.1	47.1	45.3	31.7
덜아	25	31.4	35	27.9	24.7
낫아	25	26.7	30.7	28.7	25.2
살갓아	21.4	21.9	27.1	20	18.9
꽃아	17.9	22.9	27.1	26.3	24.2
빛아	17.9	27.6	32.1	29.4	25.4
숯아	14.3	27.6	27.1	24.9	22.7
웃아	14.3	21	20.7	19.8	16.4
웃아	7.1	21	19.3	19.6	19.4
평균	20.46	27.37	29.79	26.85	23.84

표85. 받침 ‘ㄷ’ + ‘아’의 학력별 표준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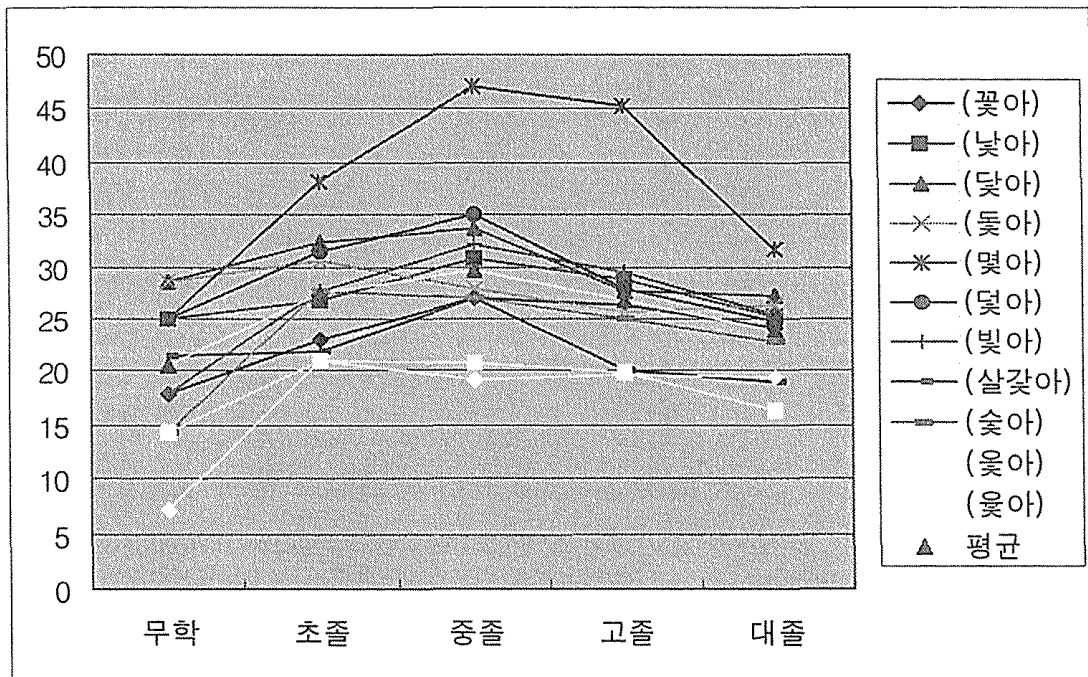


그림81. 받침 ‘ㄷ’ + ‘아’의 학력별 표준 발음

4.5 출신지별 변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의 전국 방언 조사에서 조사된 경기 지역의 ‘ㄷ’ 받침 어간을 보면 물론 단어에 따라, 단어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다른 발음 양상을 보이기 하였지만 대체로 경기 서부 지역 화자의 발음보다 경기 동부 지역 화자의 발음에서 소위 말하는 표준 발음 형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20여 년²¹⁾이 지난 이번 대규모 실태 조사에서는 그러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ㄷ’ 받침 어간의 경우 오히려 경기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의 표준 발음 평균이 다소 높게 나왔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화자는 모든 조사 결합형에서 일관되게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여 주었다.

주격 조사 결합형에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여 준 지역 화자는 경기 동남부 지역 출신의 화자들이었다. 동남부 지역 출신 화자들은 ‘몇이, 몇이랑, 낮이나, 닳이랑, 솟이, 살갓이, 옷이’에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지역 화자의 응답률이 높았는데, 주격 조사 결합형에서도 다른 지역 화자들과 달리 경기 동북부 지역 화자의 평균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몇이	90.6	92	91.1	91.3	91
꽃이	76.2	73.2	65.9	72.2	71.7
햇빛이	72.4	72.3	62	71.4	74.3
몇이랑	71.3	72.3	68.7	66.7	64.3
낮이나	70.2	72.3	60.9	63.5	70.4
닳이랑	68.8	69.6	66.5	62.7	63
돛이	63.5	56.3	66.5	63.5	66.9
솟이	56.5	65.2	46.4	55.6	55.6
살갓이	54	57.1	41.9	48.4	46.9
옷이	39.2	35.7	32.4	46	35
웃이	36.8	43.8	36.3	42.1	32.5
평균	63.59	64.53	58.05	62.13	61.05

표86. 받침 ‘ㄷ’ + ‘이’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21) 1차 조사는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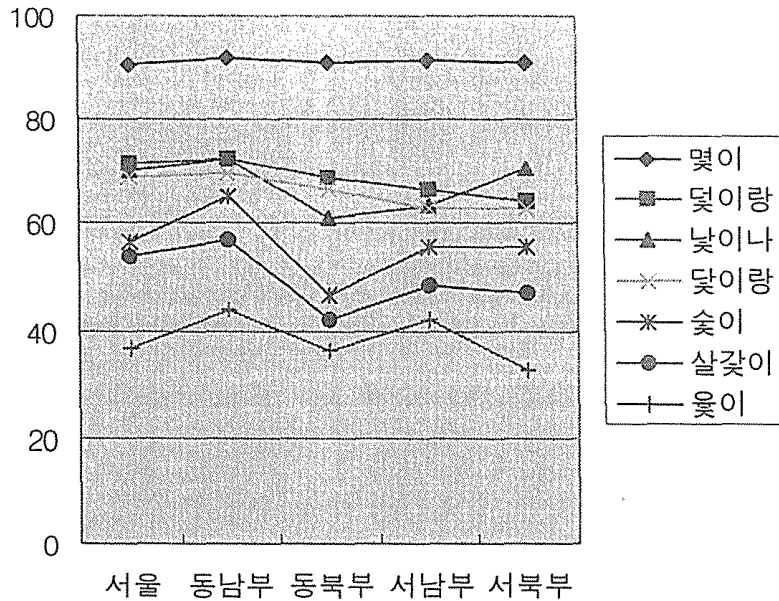


그림82. 받침 'ㄷ' + '이'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조사 '에'의 결합형에서는 경기 서북부 지역 화자들의 평균 표준 발음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동북부 지역 화자들이 가장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경기 서북부 지역 화자들은 '닷에, 돛에, 낮에, 꽃에서, 살갓에'에서 다른 지역 화자들보다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덧에	66.6	61.6	63.7	58.7	62.7
몇에	65	68.8	63.1	60.3	67.8
닷에	60.8	57.1	50.3	57.9	67.8
돛에	57	54.5	50.3	54.8	57.9
달빛에서	55.8	59.8	45.3	61.1	54.7
낮에	48.2	50	39.1	46	50.2
꽃에서	47.1	40.2	45.8	49.2	49.5
솟에	42.4	42	40.2	42.1	39.5
살갓에	36.8	37.5	28.5	36.5	39.9
옷에는	29.6	35.7	32.4	34.1	31.2
옷에	29.1	33	27.9	38.9	28.6
평균	48.95	49.11	44.24	49.05	49.98

표87. 받침 'ㄷ' + '에'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조사 '으로, 을, 은커녕'과 결합한 'ㄷ' 받침 어간은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 화자들의 표준 발음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경기 동북부 지역 화자들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몇으로	76.7	76.8	75.4	69.8	74
뚫으로	71.1	62.5	63.1	65.9	72.7
꽃으로	70.2	69.6	61.5	69	66.9
빛을	67.3	68.8	59.8	65.9	58.5
닷을	65.7	56.3	58.1	59.5	64.6
낮으로	65	58	55.9	65.1	65.3
숫으로	53.1	55.4	49.2	54	55.9
쥐뚫으로	47.3	49.1	47.5	49.2	50.5
웃으로는	41.9	39.3	38	38.1	37.6
살갓은커녕	38.3	33	25.7	34.9	37.6
웃을	34.5	37.5	31.8	42.9	35.4
평균	57.37	55.12	51.45	55.85	56.27

표88. 받침 ‘ㅈ’ + ‘을, 으로’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다른 조사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소유격 조사 ‘의’ 결합형에서도 경기 동북부 지역 화자들은 타 지역 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빛의	74.4	72.3	62	73.8	68.5
꽃의	61.2	55.4	44.7	57.9	62.1
몇몇의	57	63.4	53.1	56.3	54.7
닷의	56.1	50	45.8	53.2	53.1
뚫의	56.1	58.9	50.8	57.9	61.1
낮의	55.2	48.2	37.4	54	48.2
숫의	49.3	52.7	46.9	48.4	51.1
쥐뚫의	45.5	47.3	44.1	46.8	50.2
살갓의	41.7	44.6	27.4	43.7	37.9
웃의	31.8	33	30.7	40.5	31.2
웃의	29.8	32.1	26.3	33.3	29.6
평균	50.74	50.72	42.65	51.44	49.79

표89. 받침 ‘ㅈ’ + ‘의’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호격 조사 결합형에 대한 응답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개의 경우 다른 조사 결합형의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난 화자층에서 다소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학력이 높은 층에서는, 다른 조사 결합형에서는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지만 유독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는 다른 학력의 화자들보다 [ㅈ]로 발음한다는 응답이 낮은 편이다. 출신지별 비교에서도 서울 지역 화자들은 대체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화자들의 비율이 타 지역 출신의

화자들보다 낮지 않지만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는 다른 지역 화자들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경기 동북부 화자들의 경우는 그러한 일반화가 적용되지 않고 일관되게 어느 조사 결합형이나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몇아	37	49.1	43.6	38.1	38.6
빛아	26.5	29.5	19	34.9	32.5
덧아	25.1	32.1	25.7	27.8	32.2
닷아	23.8	28.6	24.6	34.1	35.7
숫아	23.3	25	20.7	26.2	27
뚫아	24.7	26.8	22.3	33.3	29.6
낮아	22.9	30.4	22.3	38.1	31.5
꽃아	20.6	22.3	18.4	34.1	33.8
살갓아	19.1	22.3	12.8	27	24.4
웃아	17.9	19.6	12.3	24.6	22.8
웃아	17	22.3	12.8	24.6	21.5
평균	23.45	28.00	21.32	31.16	29.96

표90. 받침 ‘ㄷ’ + ‘아’의 출신지별 표준 발음 비율

5. ‘표’ 받침

받침 ‘표’이 붙은 조사 대상 단어는 ‘늪, 무릎, 섰, 숲, 앞, 옆, 오지랖, 나뭇잎, 벗짚, 형짚’으로 모두 열 단어이다. 대체로 사용 빈도가 높은 ‘옆, 앞, 숲, 나뭇잎²²⁾’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무릎’은 비교적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무르피], [무르페])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비표준 발음([무르비], [무르베])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 외에도 ‘오지랖’과 ‘형짚’이 다른 단어에 비해 받침 ‘표’을 [ㅂ]으로 발음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옆	앞	늪	숲	나뭇잎	섰	벗짚	무릎	오지랖	형짚
(90.49)	(89.88)	(82.88)	(79.4)	(78.71)	(59.94)	(43.37)	(35.35)	(29.64)	(18.83)

표91. 단어별 표준 발음 평균 응답률(‘표’ 받침)

받침 ‘표’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표준 발음 그대로 발음되는 경우와 [ㅂ]로 발음되는 경우로 나뉘고 그 외에 눈에 띄는 기타 발음은 관찰되지 않는다.

5.1 단어별 변이

5.1.1 늪

‘늪’은 결합되는 조사 중 가장 낮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이는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도 [표]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전체 71%가 넘을 만큼 전체적으로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았다. 처격 조사 ‘에’ 결합형보다 목적격 조사와 결합한 형태가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다.

단어	표준 발음	[ㅂ]
늪이	85.35	13.65
늪에	87.15	12.1
늪을	87.5	11.5
늪의	83.05	14.65
늪아	71.35	26.9

표92. ‘늪’의 발음 비율

22) 앞: 64, 옆: 444, 숲: 1038, 무릎: 1637, 앞: 1680, 나뭇잎: 4778, 형짚: 13967, 벗짚: 16924, 오지랖: 19105, 늪: 8703, 섰: 14534 (국립국어연구원(20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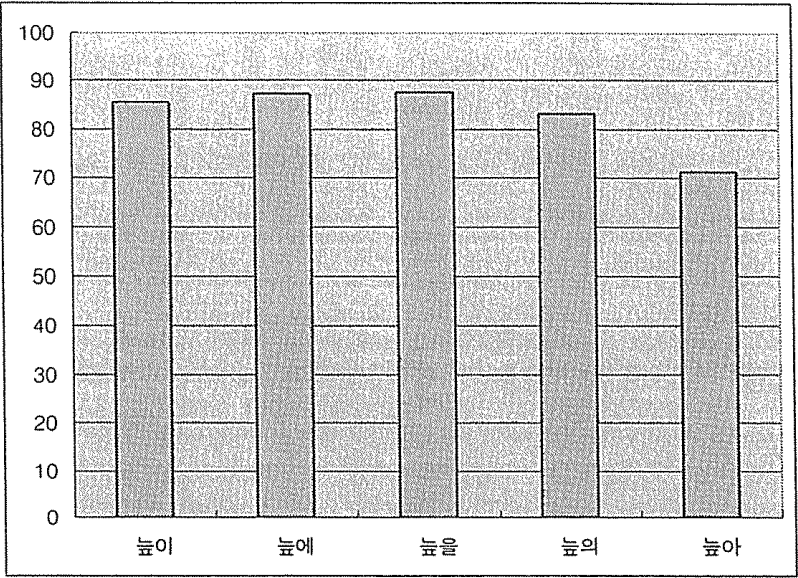


그림83. ‘높’의 표준 발음 비율

5.1.2 무릎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편이다. [ㅂ]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화자가 전체 화자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무릎’의 경우에도 처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보다 주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가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다.

단어	표준 발음	[ㅂ]
무릎이	41.25	58.4
무릎에	36.65	63.1
무릎으로	36.75	62.55
무릎의	36	61.6
무릎아	26.1	72.65

표93. ‘무릎’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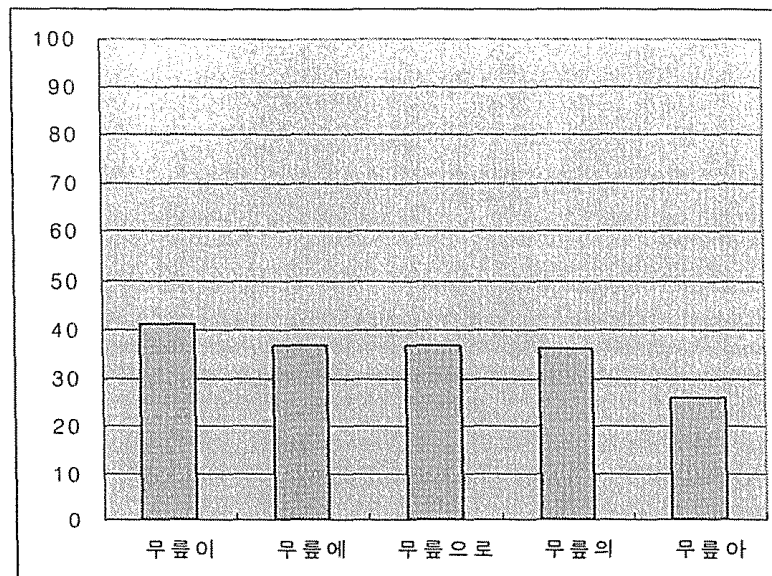


그림 84. '무릎'의 표준 발음 비율

5.1.3 섣

처격 조사가 결합된 '섣에'가 표준 발음 비율이 높고, 그 뒤를 '섣이랑, 섣으로, 섣의, 섣아'가 잇고 있다.

단어	표준 발음	[ㅂ]
섣이랑	64.75	34.1
섣에	67.2	31.8
섣으로	61.95	36.95
섣의	60.4	38.2
섣아	45.4	52.45

표 94. '섣'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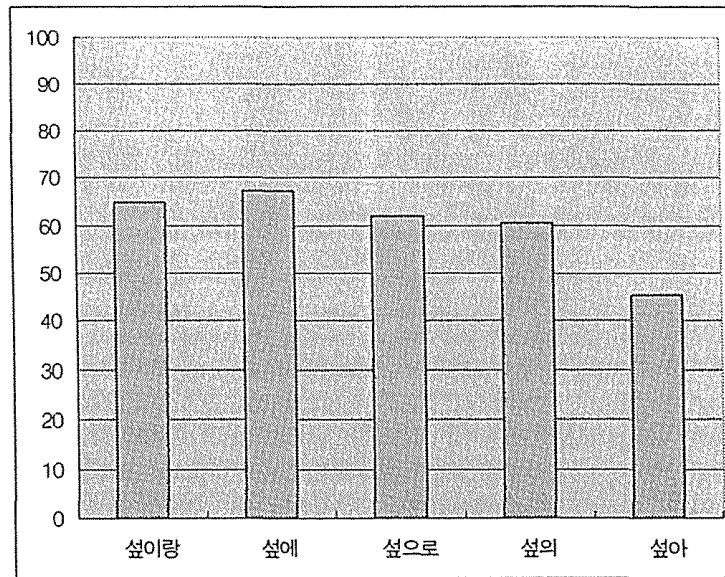


그림85. '설'의 표준 발음 비율

5.1.4 숲23)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처격 조사 결합형보다 주격 조사 결합형이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격 조사 결합형인 '숲아'도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표준 발음 [포]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어	표준 발음	[비]
숲이	86.95	12.5
숲에	85.65	14
숲은커녕	78.7	20.7
숲의	81.1	17.8
숲아	64.6	33.65

표95. '숲'의 발음 비율

23) '앞, 옆, 숲'과 같은 어간들은 재구조화를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구조화가 단어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필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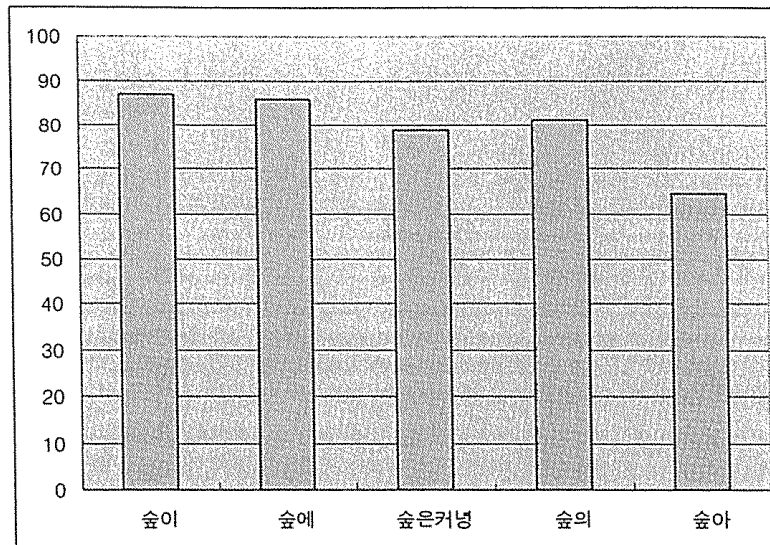


그림86. '숲'의 표준 발음 비율

5.1.5 앞

표준 발음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앞으로'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화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앞아'를 [아파]로 발음한다고 응답한 화자들도 70%를 넘어선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단어	표준 발음	[비]
앞이	93.95	5.6
앞으로	95.4	4.3
앞에서	94.35	5.4
앞의	92	6.85
앞아	70.3	26.75

표96. '앞'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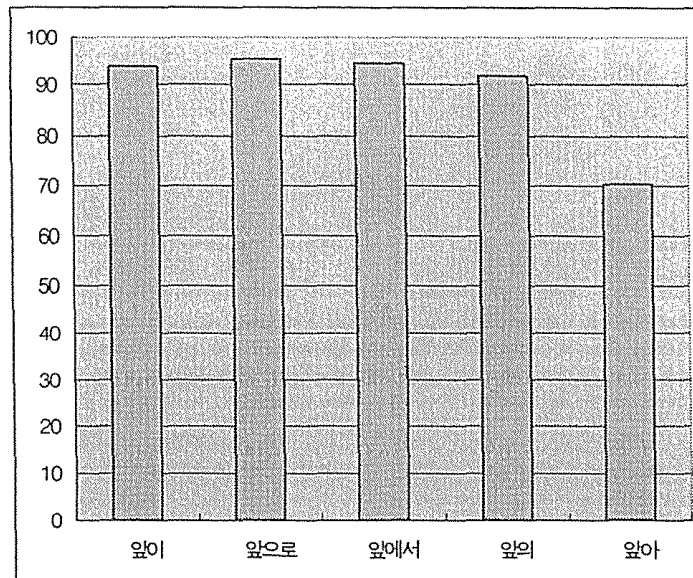


그림87. ‘앞’의 표준 발음 비율

5.1.6 옆

‘표’ 받침 어간 중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은 단어이다. 호격 조사 결합형인 ‘옆아’도 [여파]로 발음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어느 조사가 결합하든 표준 발음 비율이 높다. 그 중 처격 조사가 결합한 ‘옆에서’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단어	표준 발음	[ㅂ]
옆이	92.35	7.15
옆에서	94.3	5.35
옆으로	93.9	5.8
옆의	92.75	5.45
옆아	79.15	18.85

표97. ‘옆’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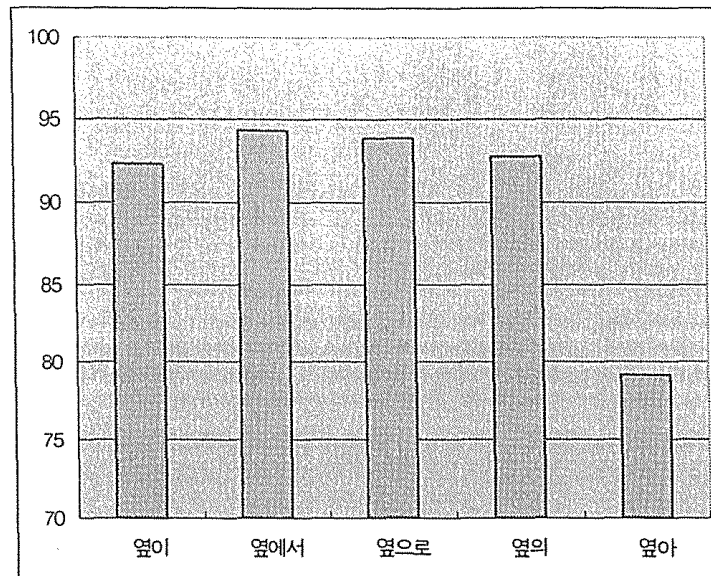


그림88. '옆'의 표준 발음 비율

5.1.7 오지랴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편이다. 다른 '츠' 받침 어간에서 결합하는 조사 중 비교적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던 주격 조사 결합형이 이 단어에선 호격 조사 결합형인 '오지랴아'에 대한 응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은 형태는 처격 조사가 결합된 '오지랴에'이다.

단어	표준 발음	[ㄷ]
오지랴이	24.8	74.7
오지랴에	33.75	65.25
오지랴으로	30.05	68.95
오지랴의	32.9	64.65
오지랴아	26.7	72.15

표98. '오지랴'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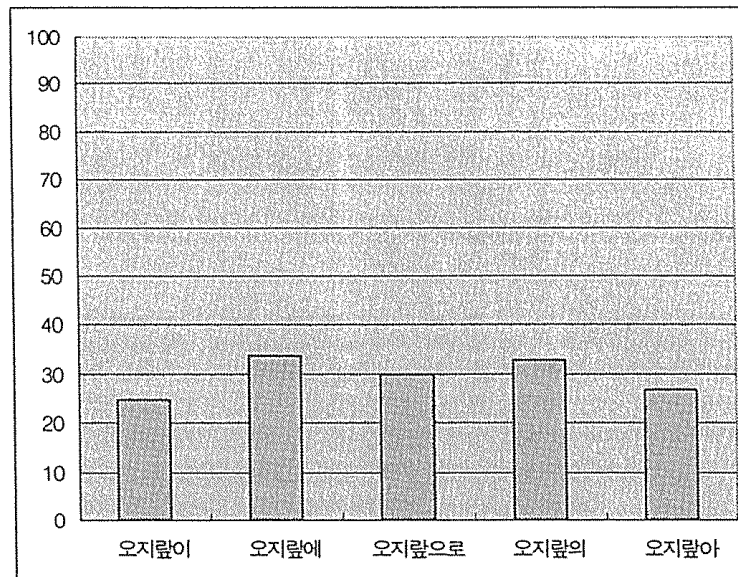


그림 89. '오지랴'의 표준 발음 비율

5.1.8 나뭇잎

‘옆’, ‘앞’과 함께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단어에 속한다. 주격 조사 결합형인 ‘잎이’의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처격 조사가 결합된 ‘나뭇잎에’ 순이었고, ‘잎아(58.7%)’가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단어	[표]	[비]
잎이	88.7	10.7
나뭇잎에	85.65	13.6
뽕잎을	77.6	21.55
나뭇잎의	82.9	15.45
잎아	58.7	39

표 99. '나뭇잎'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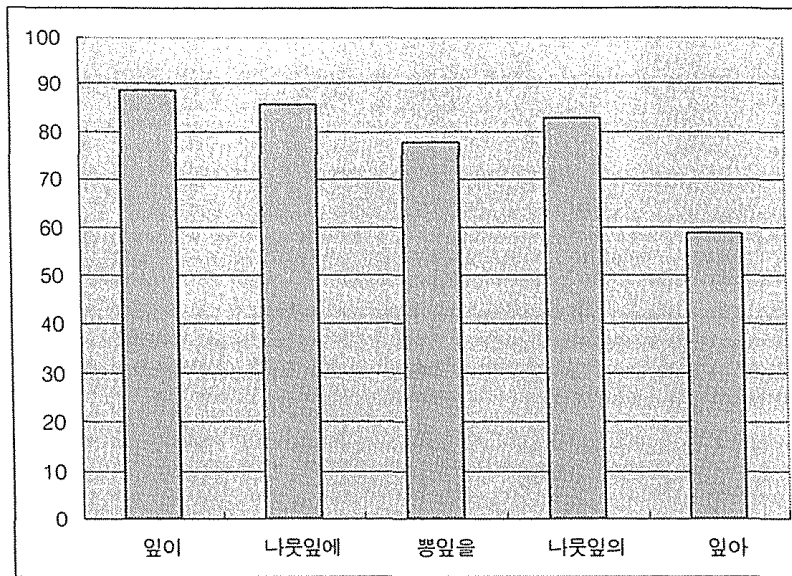


그림90. '나뭇잎'의 표준 발음 비율

5.1.9 벚꽃

‘꽃으로’ 외에 다른 조사와 결합한 형태는 표준 발음 비율이 낮다. 그리고 다른 조사가 결합된 형태와 비교해서 가장 표준 발음 비율이 낮았던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형태 ‘꽃아’가 비교적 표준 발음 비율이 높게 나타나 ‘꽃으로’ 다음으로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여 주었다.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표’ 받침 어간이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던 주격 조사 결합형이 이 단어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단어	표준 발음	[ㅂ]
벚꽃이	33.4	65.8
벚꽃에서	34.35	64.85
꽃으로	69.35	30.3
벚꽃의	37.85	60.1
꽃아	41.9	56

표100. '벚꽃'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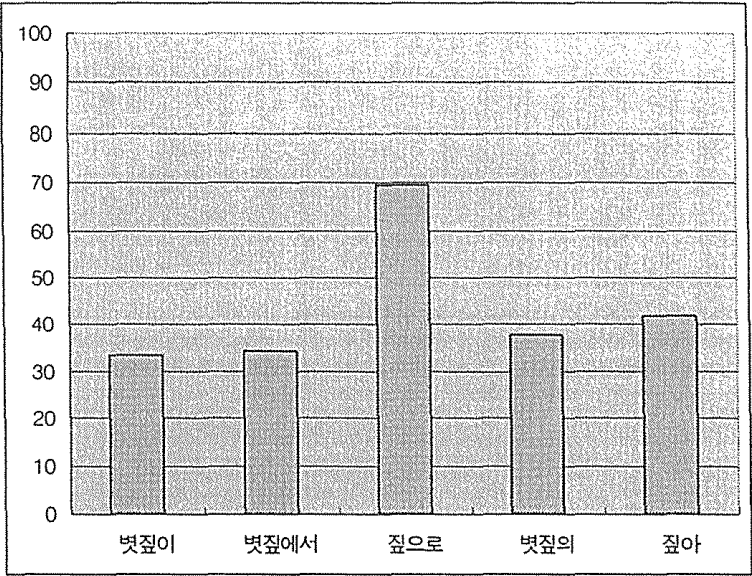


그림91. ‘벧짚’의 표준 발음 비율

5.1.10 형짚

받침 ‘ㅍ’으로 끝나는 단어 중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았다.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조사 결합형 중 ‘형짚아’의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았고 주격 조사나 처격 조사 결합형보다 ‘형짚으로’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수치 차이는 다른 조사 결합형과 크지 않았다.

단어	표준 발음	[ㅂ]
형짚이	20.65	78.05
형짚에	18.3	80.9
형짚으로	21.9	77.3
형짚의	19.7	78.7
형짚아	13.6	84.8

표101. ‘형짚’의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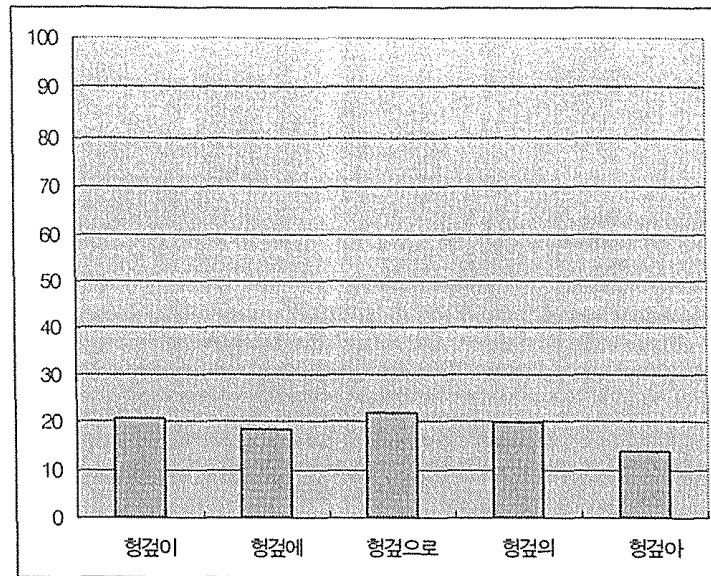


그림92. '형질'의 표준 발음 비율

5.2 결합하는 조사별 변이

각 조사와 결합할 때의 표준 발음 응답률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결합형		'으로, 을' 결합형		'에(서)' 결합형		'의' 결합형		'아' 결합형	
앞이	93.95	앞으로	95.4	앞에서	95.4	앞의	94.35	옆아	79.15
옆이	92.35	옆으로	93.9	옆에서	94.3	옆의	92.75	높아	71.35
앞이	88.7	높을	87.5	높에	87.15	높의	83.05	앞아	70.3
숲이	86.95	숲은커녕	78.7	숲에	85.65	나뭇잎의	82.9	숲아	64.6
높이	85.35	뽕잎을	77.6	나뭇잎에	85.65	숲의	81.1	잎아	58.7
섞이랑	64.75	짚으로	69.35	섞에	67.2	섞의	60.4	섞아	45.4
무릎이	41.25	섞으로	61.95	무릎에	36.65	벗짚의	37.85	짚아	41.9
벗짚이	33.4	무릎으로	36.75	벗짚에서	34.35	무릎의	36	오지랴아	26.7
오지랴이	24.8	오지랴으로	30.05	오지랴에	33.75	오지랴의	32.9	무릎아	26.1
형질이	20.65	형질으로	21.9	형질에	18.3	형질의	19.7	형질아	13.6
	63.22		65.31		63.84		62.10		49.78

표102. '표' 받침 어간의 표준 발음 비율

평균값을 보면 조사 '으로'가 결합할 때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지만 개별 단어의 응답에서는 '이'나 '에'가 결합할 때의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단어들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의' 결합형보다 '에(서)' 결합형이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나타냈지만 '벗짚'과 '형질'의 경우에는 소유격 조사 결합형이 처격 조사 결합형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다른 부류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표' 받침 어간에서도 호격 조사 결합형은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조사	퍼센트
‘이’	63.22
‘에’	63.84
‘으로, 을’	65.31
‘의’	62.10
‘아’	49.78

표103. 받침 ‘ㄹ’의 조사별
발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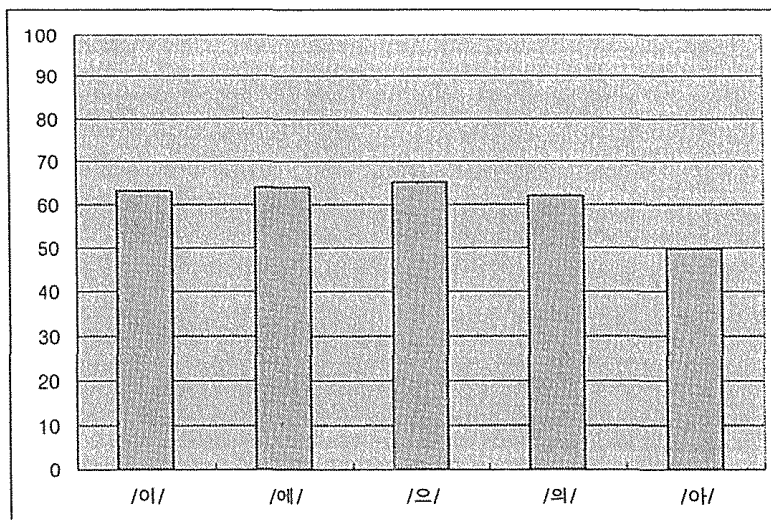


그림93. 받침 ‘ㄹ’의 조사별 표준 발음 비율

어떤 조사가 결합하든 ‘앞, 옆’은 표준 발음 비율이 높고 ‘무릎, 오지랴, 형곶’은 표준 발음 비율이 낮아 [ㅂ]로 발음되는 비율이 높았다. ‘짚’은 조사 ‘으로’가 결합한 형태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국립국어연구원(2002)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 의하면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앞’과 ‘옆’은 빈도 순위가 각각 64위, 444위로 높게 나타났고, 표준 발음 비율이 낮은 ‘오지랴’, ‘형곶’은 19105위, 13976위로 낮게 나타나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과 단어의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다만 ‘무릎’은 빈도 순위가 1637로 비교적 높은데도 표준 발음 응답률은 낮았다.

기준	형태	퍼센트
80-100·%	앞이	93.95
	옆이	92.35
	앞이	88.7
	숲이	86.95
	높이	85.35
60-80%	섞이랑	64.75
40-60%	무릎이	41.25
20-40%	벗짚이	33.4
	오지랴이	24.8
	형짚이	20.65

표104. 받침 ‘ㄷ’+ 조사 ‘이’

기준	형태	퍼센트
80-100·%	앞에서	94.35
	옆에서	94.3
	높에	87.15
	숲에	85.65
	나뭇앞에	85.65
60-80%	섞에	67.2
20-40%	무릎에	36.65
	벗짚에서	34.35
	오지랴에	33.75
0-20%	형짚에	18.3

표105. 받침 ‘ㄷ’+ 조사 ‘에’

기준	형태	퍼센트
80-100·%	옆의	92.75
	앞의	92
	높의	83.05
	나뭇앞의	82.9
	숲의	81.1
60-80%	섞의	60.4
20-40%	벗짚의	37.85
	무릎의	36
	오지랴의	32.9
0-20%	형짚의	19.7

표106. 받침 ‘ㄷ’+ 조사 ‘의’

기준	형태	퍼센트
80-100·%	앞으로	95.4
	옆으로	93.9
	높을	87.5
60-80%	숲은커녕	78.7
	뽕앞을	77.6
	짚으로	69.35
	섞으로	61.95
20-40%	무릎으로	36.75
	오지랴으로	30.05
	형짚으로	21.9

표107. 받침 ‘ㄷ’+ 조사 ‘으로, 을’

기준	형태	퍼센트
80-100·%	옆아	79.15
	높아	71.35
	앞아	70.3
60-80%	숲아	64.6
40-60%	앞아	58.7
	섞아	45.4
	짚아	41.9
20-40%	오지랴아	26.7
	무릎아	26.1
0-20%	형짚아	13.6

표108. 받침 ‘ㄷ’+ 조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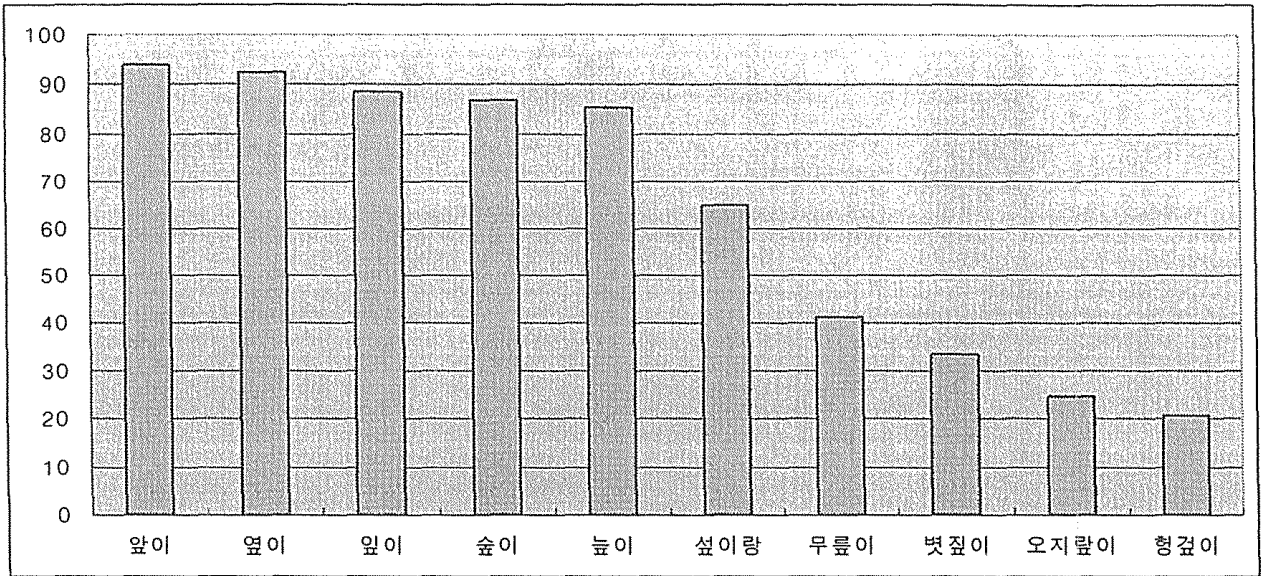


그림94. 받침 'ㄷ'+ 조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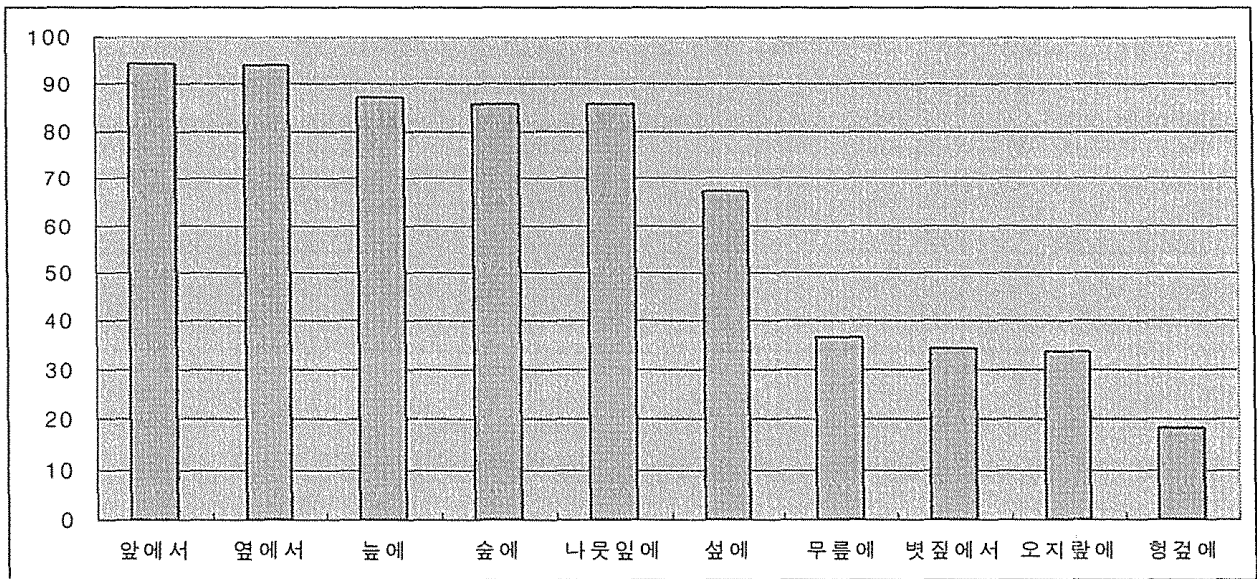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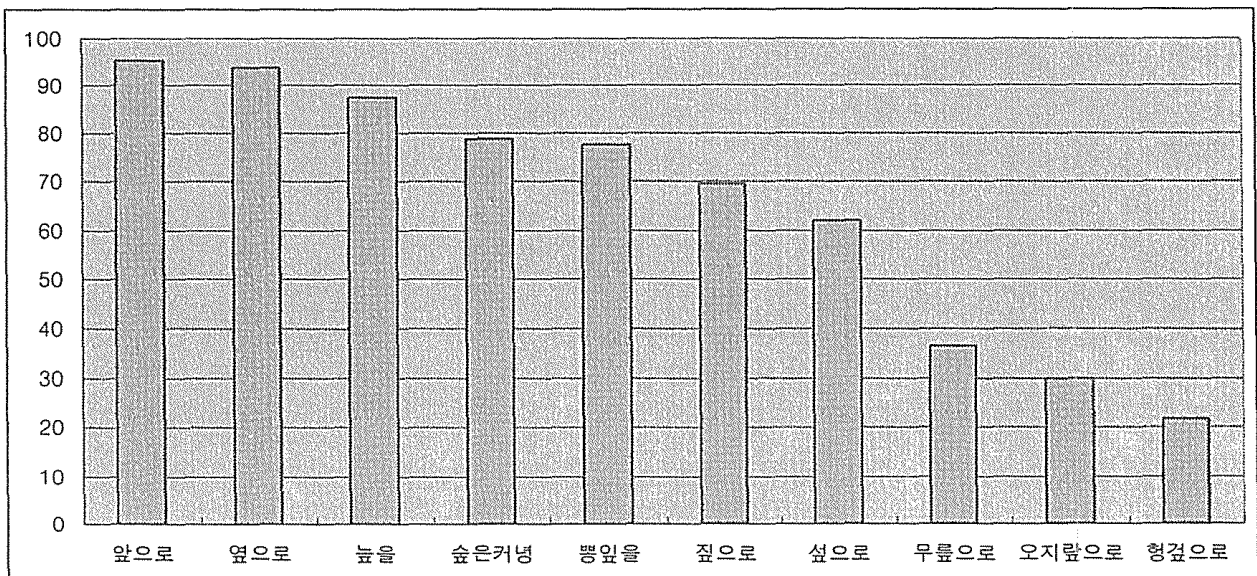


그림95. 받침 'ㄷ'+ 조사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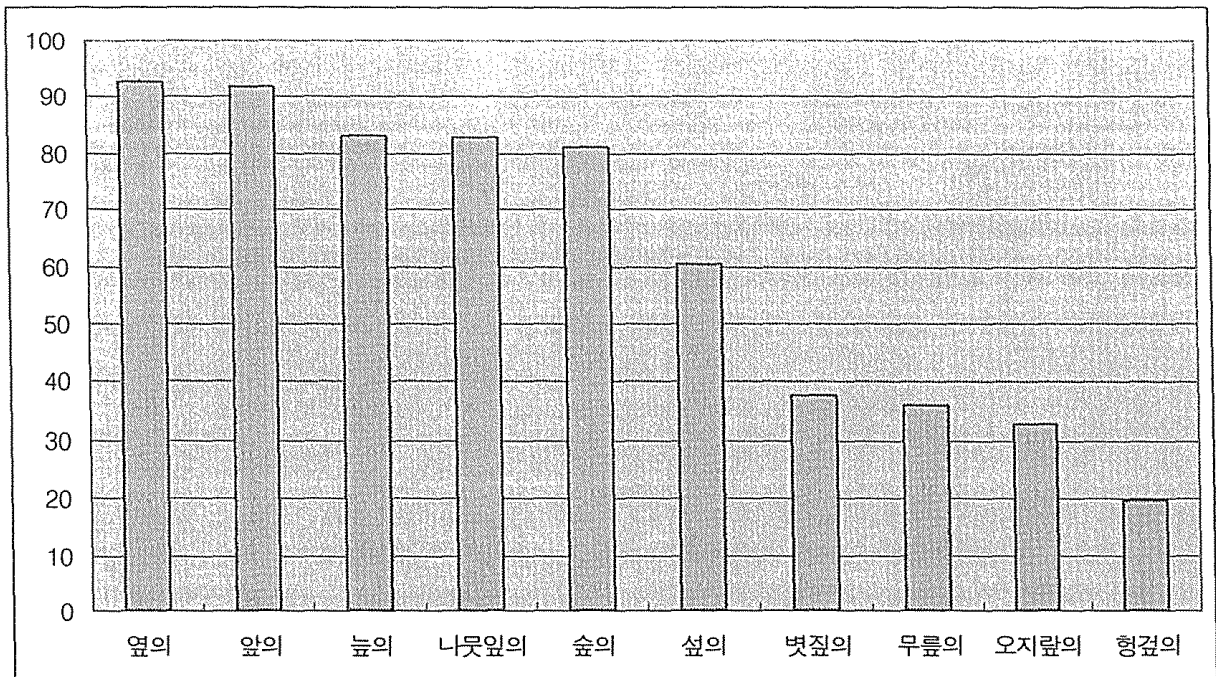


그림97. 받침 ‘ㄷ’+ 조사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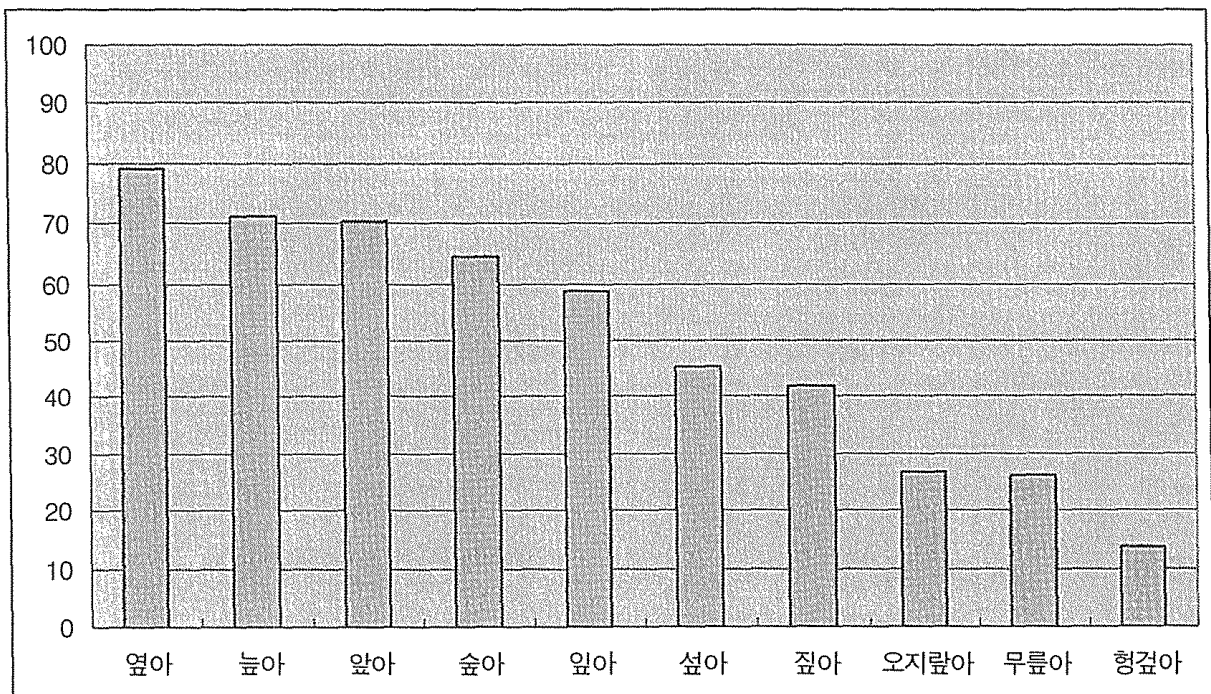


그림98. 받침 ‘ㄷ’+ 조사 ‘아’

5.3 연령별 변이

받침 ‘표’으로 끝나는 어간들의 연령별 변이를 살펴보면 수치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표준 발음 비율이 70대>60대>40대>50대 순으로 높았다. 이는 어느 형태의 조사가 결합하든 관계없이 일정한 평균값 비율을 보여 주었는데 50대 이상의 연령대와 40대 이하의 연령대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발음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조사 ‘이’가 결합하는 형태에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70대이다. 60대가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50대에서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나타내었다. ‘무릎이’, ‘오지랴이’, ‘벗짚이’, ‘형짚이’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기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높이’나 ‘옆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40대	50대	60대	70대
높이	89.5	83.3	82.9	82.4
무릎이	38.7	38.7	46.4	49
옆이랑	62.5	65.9	65.5	67.6
숲이	90.3	84	86.9	86.3
앞이	95.6	92	96.4	89.2
옆이	93.9	92.3	91.3	89.2
오지랴이	17.5	20.8	36.9	39.2
앞이	90	85.5	91.3	90.2
벗짚이	31.9	27.6	40.1	46.1
형짚이	17.5	20.1	22.2	32.4
평균	62.74	61.02	65.99	67.16

표 109. 받침 ‘표’ + 조사 ‘이’의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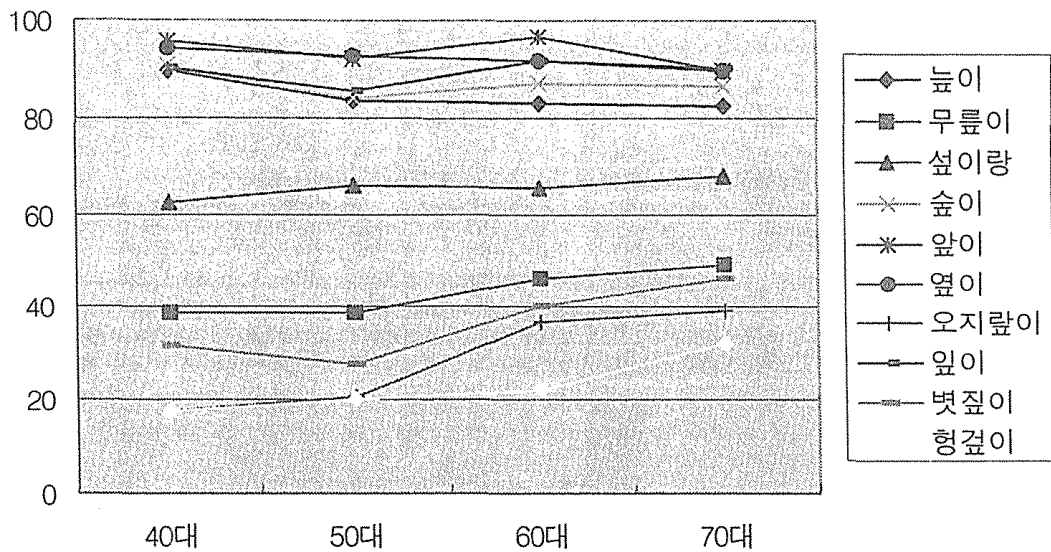


그림 99. 받침 '표' + 조사 '이'의 연령별 평균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한 경우에도 다른 조사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70대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여 주었다. '무릎, 오지랖, 뱃짚, 형짚'은 '표' 받침 어간들 중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는 단어인데 70대 화자들의 경우 조사 '에' 결합형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흥미로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 반대로 '옆에서, 숲에, 나뭇잎에, 높에' 등 비교적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에서는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40대 화자들에서 가장 높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높에	92.9	84.5	82.1	87.3
무릎에	35.5	36.8	35.7	42.2
쉼에	64.2	70	67.9	66.7
숲에	90	84	83.7	80.4
앞에서	95.9	94.2	96.8	95.1
옆에서	95.4	93.9	94.4	91.2
오지랖에	29.4	30.8	39.7	47.1
나뭇잎에	88.3	82.1	86.9	86.3
뱃짚에서	33.6	31.5	35.7	45.1
형짚에	13.6	19.9	17.5	33.3
평균	63.88	62.77	64.04	67.47

표 110. 받침 '표' + 조사 '에'의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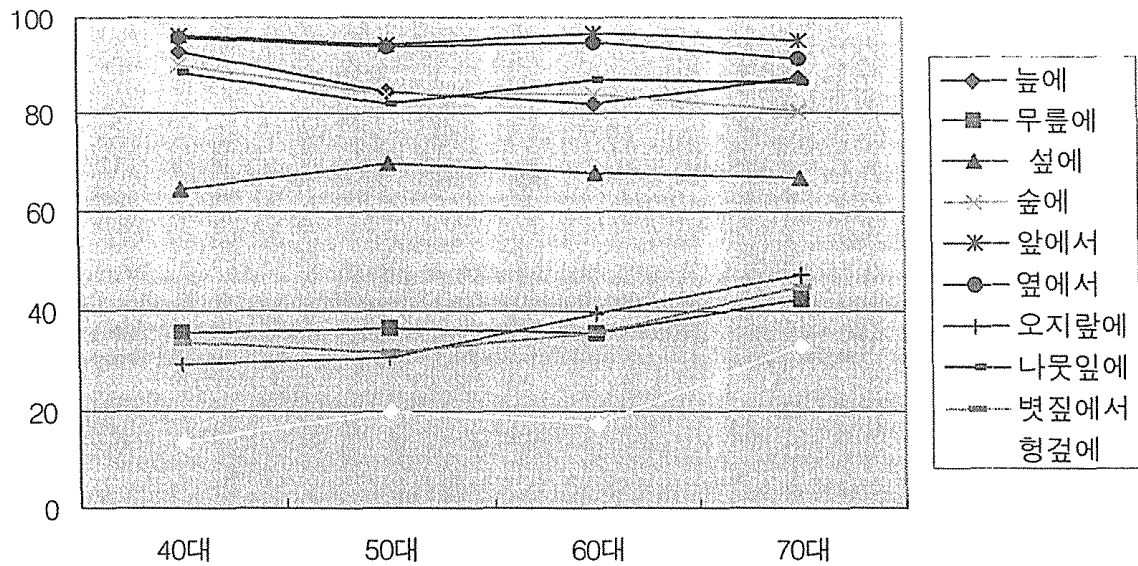


그림100. '표' + 조사 '에'의 연령별 평균

조사 '을, 으로'가 결합한 경우 70대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지만 그 수치는 60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별 단어를 살펴보면 60대 화자들이 '섶으로, 숲은커녕, 앞으로, 옆으로, 뽕잎을'을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40대	50대	60대	70대
높을	93.2	86.2	82.5	81.4
무릎으로	37.5	35.1	35.3	43.1
섶으로	61.1	62	63.1	62.7
숲은커녕	80.3	77	80.6	75.5
앞으로	94.9	93.5	96.4	91.2
옆으로	94.4	93.5	95.2	90.2
오지랖으로	25.3	27.4	37.7	40.2
뽕잎을	77.1	74.8	83.3	76.5
겉으로	71.3	69	66.3	71.6
형겅으로	17.3	22.8	23.8	32.4
	65.24	64.13	66.42	66.48

표111. '표' + 조사 '으로, 을'의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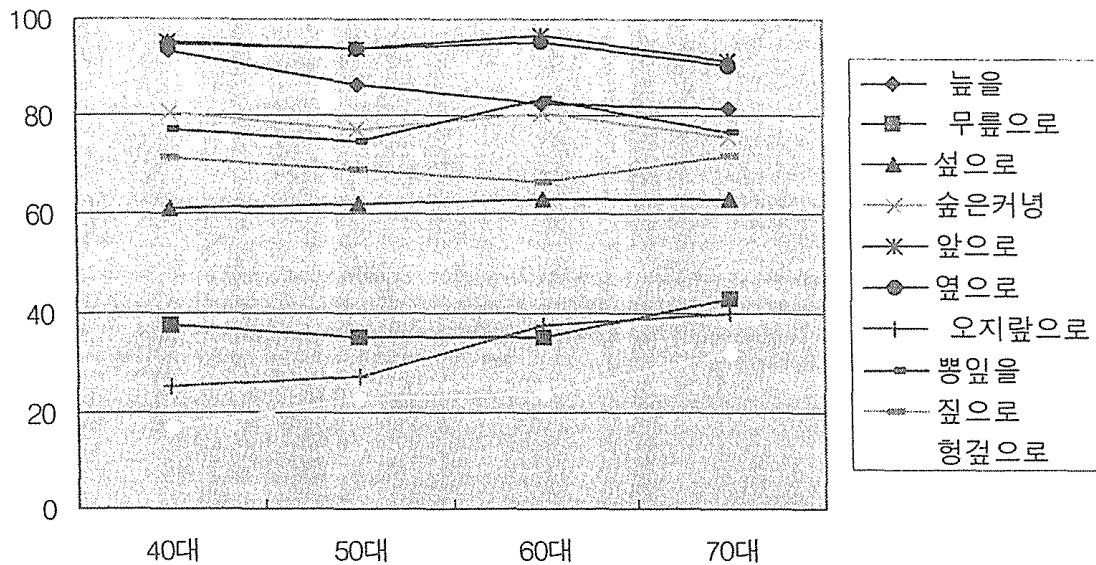


그림101 '표' + 조사 '으로, 을'의 연령별 평균

소유격 조사 '의' 결합형에 대한 화자들의 응답 경향은 처격 조사 결합형과 거의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5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아졌고, 40대는 이러한 연령별 변이의 흐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발음 비율을 보이고 있다. 70대에서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인 것은 '무릎의, 나뭇잎의, 뱃짚의, 형겅의', 40대는 '높의, 숲의, 앞의, 옆의'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처격 조사 결합형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40대	50대	60대	70대
높의	87.1	81.4	80.2	80.4
무릎의	35	35.1	36.1	42.2
섰의	60.6	60	61.5	58.8
숲의	84.7	81.4	77.4	76.5
앞의	93.9	90.8	92.5	88.2
옆의	94.6	92.5	91.7	89.2
오지랖의	27.3	29.5	43.3	43.1
나뭇잎의	84.7	79.4	84.5	85.3
뱃짚의	36.5	36.1	37.3	51
형겅의	14.6	19.9	22.6	32.4
평균	61.90	60.61	62.71	64.71

표112. '표' + 조사 '의'의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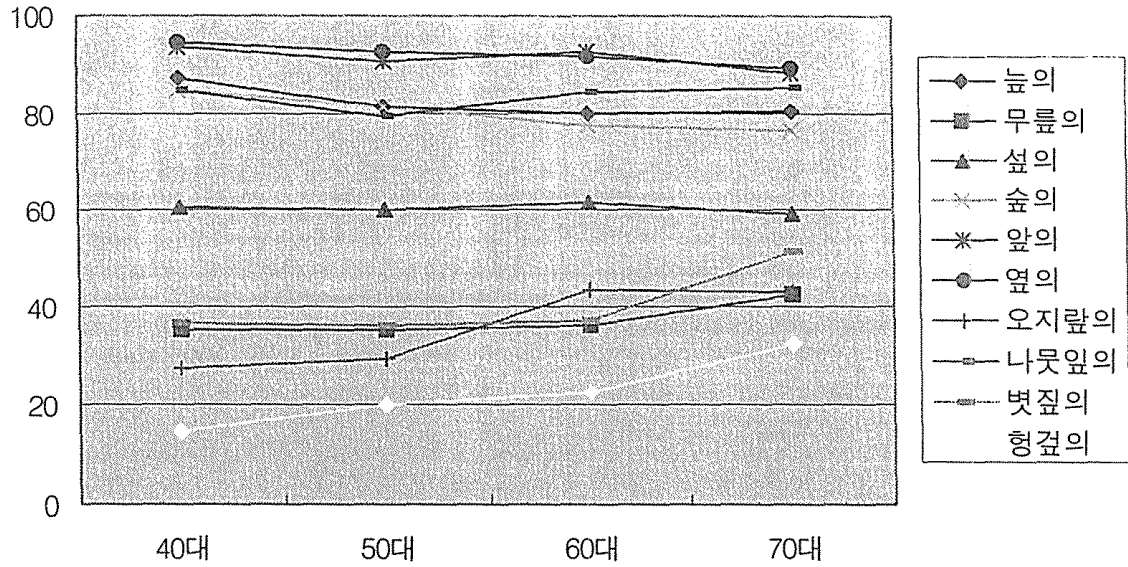


그림102. '표' + 조사 '의'의 연령별 평균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높아'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단어들에서 70대 화자들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는 평균 표준 발음 비율에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0대	50대	60대	70대
높아	74.5	70.2	68.3	70.6
무릎아	23.8	24	29	36.3
섰아	39.2	45.3	52	54.9
숲아	63.5	63.7	65.5	71.6
앞아	70.3	66.6	72.2	79.4
옆아	80.8	75.5	81	82.4
오지랖아	21.9	24.7	32.1	39.2
잎아	55.2	54.7	64.7	73.5
꽃아	41.4	39.7	42.9	51
형질아	9.7	14.3	15.1	22.5
평균	48.03	47.87	52.28	58.14

표113. '표' + 조사 '아'의 연령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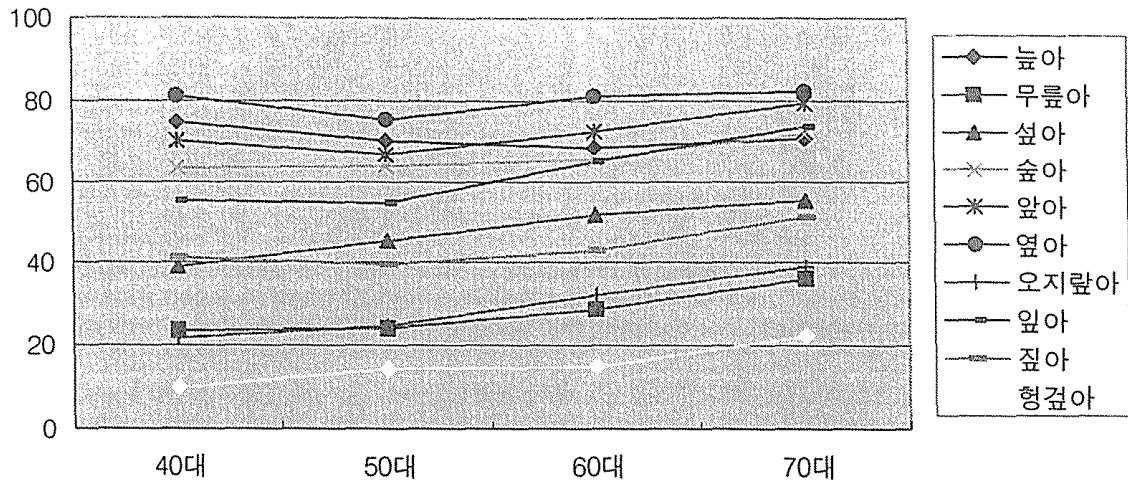


그림103. 'ㅏ' + 조사 '아'의 연령별 평균

5.4 학력별 변이

주격 조사와 처격 조사 결합형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그 외 다른 조사 결합형에서는 초졸 이하와 중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중졸 이상의 학력자들의 경우 중졸자들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격 조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 발음 비율도 조금 상승하였는데, '늑이, 섰이랑, 숲이, 앞이, 옆이'에서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였다. '무릎이, 오지랴이, 형짚이'에서는 중졸 학력의 화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늑이	57.1	78.1	79.3	86.4	90.2
무릎이	28.6	32.4	45.7	43.1	40.6
섰이랑	39.3	61	61.4	63.8	69.8
숲이	67.9	83.8	85	86.4	90.7
앞이	89.3	95.2	92.1	92.7	96.5
옆이	89.3	91.4	90	91.7	94.5
오지랴이	21.4	25.7	30.7	25.5	21.4
앞이	71.4	87.6	82.1	89.5	91.4
벧짚이	42.9	37.1	32.1	35	30
형짚이	17.9	20	25	20.8	19.4
평균	52.51	61.23	62.34	63.49	64.45

표114. 'ㅏ' + 조사 '이'의 학력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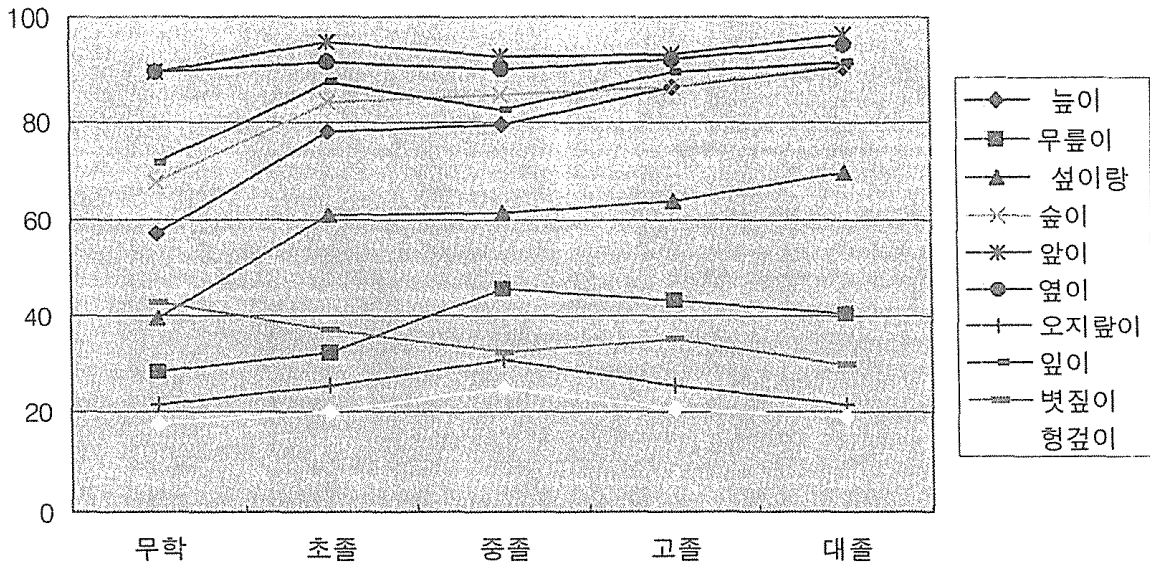


그림104. '표' + 조사 '이'의 학력별 평균

조사 '에'가 결합할 때에도 주격 조사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높았는데, '높에, 섶에, 숲에, 옆에서, 나뭇잎에, 뱃짚에서'는 대졸자가, '무릎에, 오지랖에, 형겅에'는 중졸자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비교에서 연령대가 낮은 화자가 전자와 유사한 발음을, 연령대가 높은 화자가 후자와 유사한 발음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높에	71.4	81	82.9	87.2	91.7
무릎에	28.6	28.6	42.1	34.4	40.3
섶에	50	62.9	64.3	65.8	72.3
숲에	67.9	81	84.3	86.2	88.4
앞에서	96.4	98.1	94.3	94.1	96.7
옆에서	92.9	95.2	92.1	93.3	96.2
오지랖에	39.3	31.4	40	37.9	25.7
나뭇잎에	64.3	86.7	77.9	86.2	89.2
뱃짚에서	28.6	34.3	30.7	35	35
형겅에	10.7	21	22.1	17.6	17.9
평균	55.01	62.02	63.07	63.77	65.34

표115. '표' + 조사 '에'의 학력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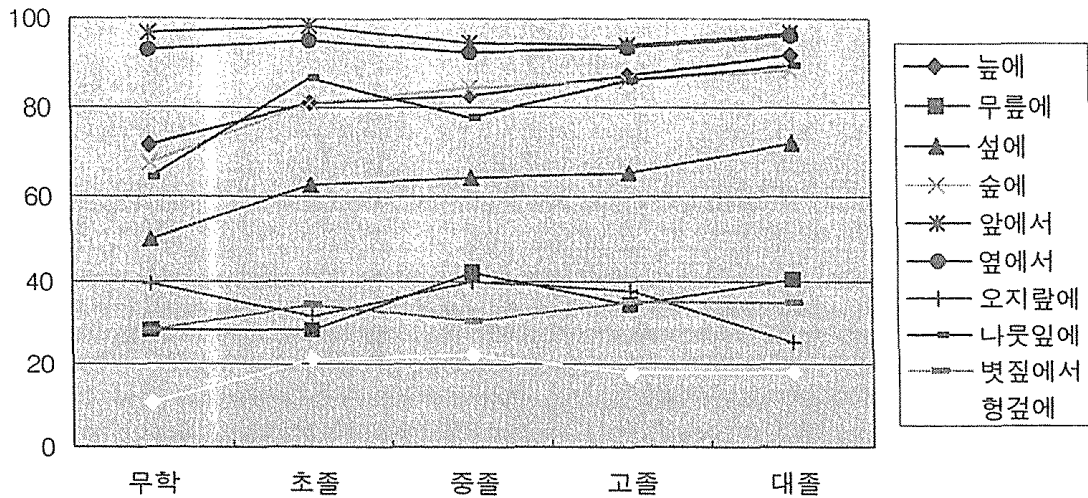


그림105. '표' + 조사 '에'의 학력별 평균

조사 '을, 으로', '의', '아' 결합형에서는 초졸 이하 학력층과 중졸 이상 학력층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 조사의 결합형에서 무학과 초졸 학력의 화자들은 중졸 이상 학력자들보다 대체로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였다.

'을, 으로' 결합형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였는데, 무학의 경우는 그 평균 값에서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였다. 평균값으로 볼 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중졸이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었다. 중졸 이상의 화자만을 한정하여 보면 '늪을, 섶으로, 옆으로'는 대졸자가, '무릎으로, 숲은커녕, 오지랖으로, 뽕잎을, 형겅으로'는 중졸자가 가장 높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여 주었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늪을	60.7	74.3	86.4	87.7	92.7
무릎으로	21.4	19	44.3	36.8	39.5
섶으로	32.1	56.2	61.4	63.4	63.7
숲은커녕	60.7	77.1	80	79.4	79.1
앞으로	92.9	97.1	92.9	93.9	95
옆으로	92.9	95.2	91.4	93.1	95.5
오지랖으로	28.6	32.4	37.9	32.8	22.7
뽕잎을	57.1	76.2	80.7	76.9	79.1
겉으로	35.7	63.8	67.9	73.3	68.8
형겅으로	14.3	23.8	25	22.7	19.6
평균	49.64	61.51	66.79	66.00	65.57

표116. '표' + 조사 '으로, 을'의 학력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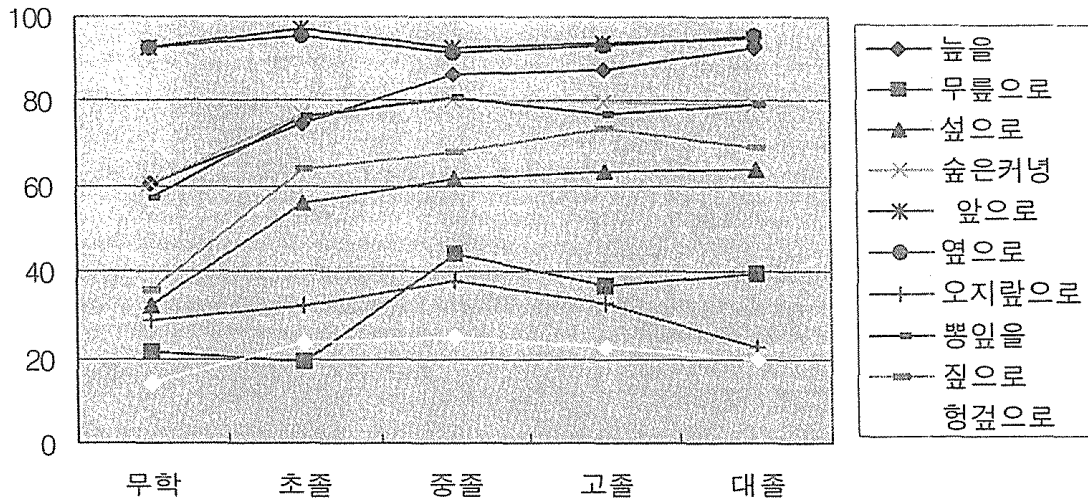


그림106. '표' + 조사 '으로, 을'의 학력별 평균

조사 '의' 결합형도 '을, 으로' 결합형과 비슷한 응답 결과를 보이는데, 중졸 이상에서는 역시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중졸의 평균 표준 발음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중 '높의, 섰의, 옆의, 나뭇잎의'는 대졸자가, '무릎의, 오지랖의, 숲의'는 중졸자가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높의	50	77.1	77.9	82.6	89.4
무릎의	25	27.6	47.9	36.6	34
섰의	35.7	57.1	58.6	61.7	62.2
숲의	64.3	80	82.1	81.6	81.9
앞의	92.9	93.3	89.3	91.9	92.7
옆의	92.9	91.4	91.4	93.1	93.2
오지랖의	39.3	40	45	34	24.7
나뭇잎의	75	79	77.1	84.4	84.4
뽕잎의	35.7	35.2	35	40.5	35.8
짚의	17.9	25.7	22.1	18.8	18.6
평균	52.87	60.64	62.64	62.52	61.69

표117. '표' + 조사 '의'의 학력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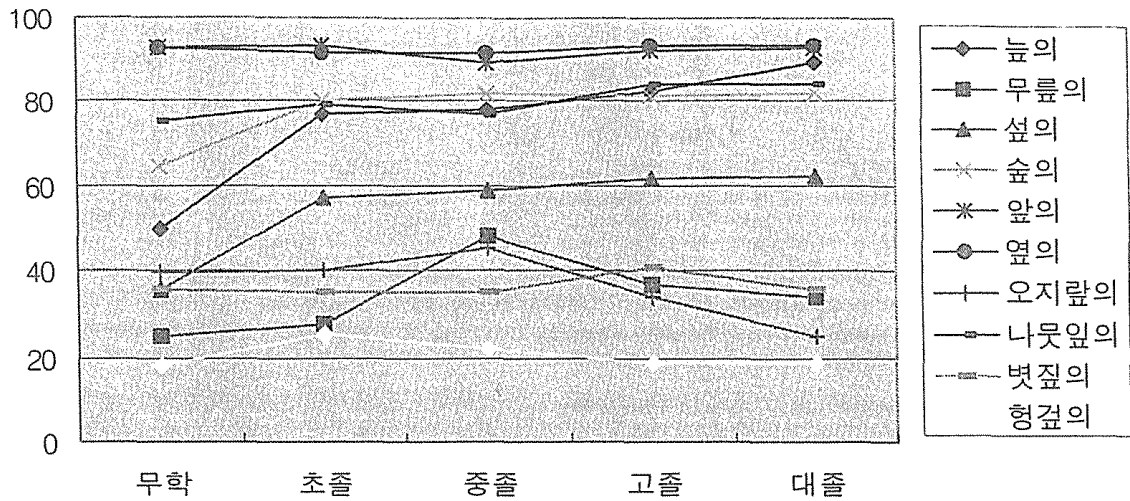


그림 107. '표' + 조사 '의'의 학력별 평균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도 중졸이 가장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였다. 중졸 화자들은 '늪아, 무릎아, 섬아, 숲아, 앞아, 오지랴아'에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을, 으로' 결합형이나 '의' 결합형에서는 '무릎', '오지랴'류에 한하여 중졸자들의 표준 발음 응답률이 높은 것에 대비되는 결과이다.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늪아	46.4	67.6	74.3	72.7	71.3
무릎아	25	17.1	31.4	26.9	25.7
섬아	28.6	43.8	52.1	47.2	42.1
숲아	53.6	64.8	70.7	67.2	59.9
앞아	78.6	72.4	72.1	73.7	63.7
옆아	75	78.1	78.6	80	78.6
오지랴아	14.3	27.6	32.1	29.1	21.9
잎아	46.4	58.1	59.3	62.6	54.2
꽃아	25	41.9	42.1	44.5	39.5
형질아	10.7	14.3	14.3	14.6	11.8
평균	40.36	48.57	52.70	51.85	46.87

표 118. '표' + 조사 '아'의 학력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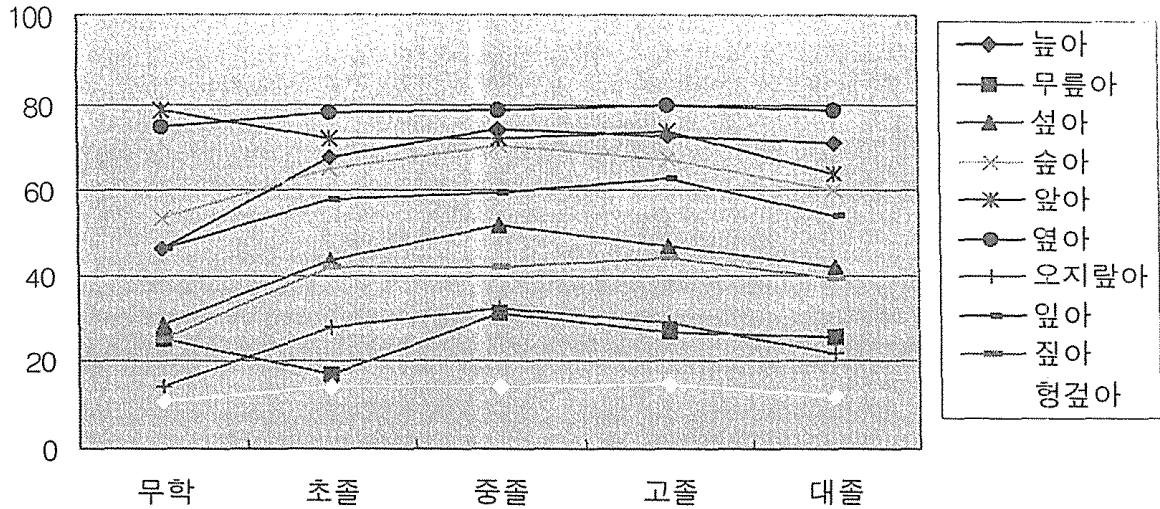


그림108. '표' + 조사 '아' 학력별 평균

5.5 출신지별 변이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전국 방언 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항목은 '무릎에, 무릎을, 짚이'이었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경기 동부와 경기 서부 화자의 발음 경향이 달랐다. 물론 응답 형태가 동일한 것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 동부 화자가 경기 서부 화자에 비해서 [표]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이러한 발음 경향은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 개 조사 결합형 모두에서 경기 동남부와 동북부 지역의 화자들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이와 상대적으로 경기 서부 지역 화자들의 응답률은 낮았다.

서울 지역 화자들의 표준 발음 응답률은 경기 동부 지역 화자들보다 낮았고 경기 서부 지역 화자들보다는 높았다. 다만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는 경기 서부 지역 화자들보다 표준 발음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앞이	95.1	98.2	98.3	96	87.5
옆이	94.2	98.2	97.8	92.1	84.6
일이	89.9	93.8	92.2	94.4	81
숲이	87.9	92	86	88.1	84.6
높이	87.7	84.8	89.4	84.1	80.1
섞이랑	70.4	67.9	70.4	65.1	53.1
무릎이	42.4	40.2	35.8	40.5	43.7
벧짚이	30.7	40.2	39.7	30.2	31.8
오지랴이	20.9	27.7	34.6	23	23.8
형짚이	17.9	28.6	23.5	19	20.9
평균	63.71	67.16	66.77	63.25	59.11

표119. ‘ㅍ’ + 조사 ‘이’의 출신지별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앞에서	96.4	99.1	98.3	96.8	90.4
옆에서	95.1	97.3	98.9	96.8	88.4
높에	89.2	90.2	89.4	81.7	84.6
숲에	88.1	90.2	87.7	83.3	81
나뭇잎에	86.3	91.1	91.6	86.5	79.1
섞에	71.3	68.8	70.4	70.6	58.5
무릎에	36.8	33.9	39.7	37.3	35.7
벧짚에서	32.3	38.4	38.5	35.7	33.1
오지랴에	29.4	35.7	43.6	31.7	33.8
형짚에	16.1	21.4	21.2	19	18.3
평균	64.10	66.61	67.93	63.94	60.29

표120. ‘ㅍ’ + 조사 ‘에’의 출신지별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옆으로	95.7	96.4	98.3	92.1	88.4
앞으로	95.1	100	97.8	96.8	88.4
높을	89.5	92.9	88.8	78.6	85.5
숲은커녕	80	85.7	77.7	77.8	75.9
뽕잎을	76.9	84.8	80.4	83.3	72.7
짚으로	69.3	77.7	72.6	70.6	65
섞으로	63.2	66.1	65.9	60.3	57.6
무릎으로	37.9	30.4	35.2	32.5	40.2
오지랴으로	22.2	40.2	41.9	25.4	32.2
형짚으로	18.4	26.8	23.5	23	23.8
평균	64.82	70.10	68.21	64.04	62.97

표121. ‘ㅍ’ + 조사 ‘으로, 을’의 출신지별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앞의	94.4	95.5	97.2	95.2	83
옆의	94.4	99.1	98.9	92.9	84.6
높의	87.4	83.9	88.3	78.6	75.2
나뭇잎의	84.3	87.5	88.8	84.1	75.6
숲의	82.3	86.6	85.5	78.6	76.8
설의	61.7	65.2	67	59.5	54.3
벗짚의	33.4	40.2	43	43.7	37.9
무릎의	32.7	35.7	33	36.5	42.4
오지랴의	25.6	41.1	45.3	32.5	33.4
형견의	17.3	22.3	21.2	18.3	21.9
평균	61.35	65.71	66.82	61.99	58.51

표122. ‘표’ + 조사 ‘의’의 출신지별 발음 비율

	서울	동남부	동북부	서남부	서북부
옆아	79.4	76.8	86	81	74.9
높아	71.3	75.9	76	65.9	68.8
앞아	67.5	80.4	85.5	68.3	62.1
숲아	62.8	72.3	67.6	61.1	64.6
잎아	55.8	65.2	64.2	63.5	55.3
설아	41.9	50.9	52.5	49.2	43.1
짚아	38.8	42.9	42.5	44.4	45
무릎아	25.1	26.8	23.5	32.5	25.4
오지랴아	19.1	32.1	35.8	27	29.6
형견아	10.3	17.9	12.8	15.1	16.4
평균	47.20	54.12	54.64	50.80	48.52

표123. ‘표’ + 조사 ‘아’의 출신지별 발음 비율

6. 정 리

격음 ‘ㅍ, ㅌ, ㅋ, ㆁ’로 끝나는 어간들 중 ‘ㅌ’로 끝나는 어간 받침의 발음에 대한 표준 발음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으로, 을’ 결합형에서는 ‘ㅍ’ 받침 어간의 표준 발음 평균이 높았다. 전체적인 평균값을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ㅌ’>‘ㅍ’>‘ㆁ’>‘ㅋ’ 순이다. ‘ㅋ’ 받침은 유독 현행 표준 발음법대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극히 낮아 어떻게 보면 이미 재구조화를 마무리한 단계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받침	조사	응답률	조사	응답률	조사	응답률	조사	응답률	조사	응답률
ㅌ	이	60.82	에	76.04	으로, 을	50.76	의	65.32	아	48.35
ㆁ		61.92		48.45		55.66		49.31		26.08
ㅍ		63.22		63.84		65.21		61.87		49.78
ㅋ		35.93		41.63		27.33		33.7		25.28

표124. 전체 받침별 표준 발음 비율

주격 조사 결합형의 평균 표준 발음 응답률을 살펴보면 ‘ㅋ’ 받침을 제외하고는 고른 응답률을 보이는데, 처격 조사 ‘에’가 결합할 때에는 유독 ‘ㅌ’ 받침에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다른 조사와 달리 처격 조사는 생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재구조화된 발음을 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ㆁ’ 받침의 어간에서는 이러한 일반화를 적용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ㆁ’ 받침의 발음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조사 결합형에서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보이는 ‘ㅋ’ 받침 어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ㅌ’이나 ‘ㅍ’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들은 호격 조사 결합형에서 가장 낮은 표준 발음 비율을 나타낸다. ‘ㆁ’도 물론 그러하지만 다른 두 받침의 어간보다 급격한 하락 비율을 보였다.

받침이 ‘ㅍ’일 때에는 ‘ㅍ’을 중심으로 표준 발음 비율이 높은 단어들과 그렇지 않은 단어들로 확연히 나뉘는데, ‘옆, 늪, 앞, 숲, 잎’은 모든 조사 결합형에서 50% 이상의 화자들이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을 보였고, ‘짚, 무릎, 오지랖, 형짚’은 50% 이하의 표준 발음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표준 발음 비율에서 성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령별, 학력별, 출신지별 발음의 변이에 대해 기술했는데 받침의 종류, 단어의 종류,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발음 양상을 보였다.

‘ㅌ’ 받침이 주격 조사나 소유격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40대와 70대에서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인 반면, ‘으로, 을’이 결합할 때나, 호격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처격 조사 ‘에’와 결합할 때의 표준 발음 평균값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받침 ‘ㄷ’으로 끝나는 ‘부엌’과 ‘새벽녘’은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대체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재구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ㄷ’ 받침 어간의 경우 조사 ‘이’, ‘에’가 결합할 때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격 조사 결합형의 경우 40대가, 처격 조사 ‘에’ 결합형은 70대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조사 ‘으로, 은, 을’이 결합할 때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표준 발음 비율이 조금씩 내려간다. 조사 ‘아’가 결합할 때에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표준 발음 비율도 올라갔다. 받침 ‘표’으로 끝나는 어간은 표준 발음 비율이 70대>60대>40대>50대 순으로 높았다.

학력별 발음 변이를 살펴보면 받침 ‘ㅌ’의 경우 대체로 대졸자의 표준 발음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학력과 표준어 인식 정도가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이 대졸자 다음으로 높은 표준 발음 응답률을 보인 학력층이 중졸이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ㄷ’ 받침 어간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각기 다른 발음 양상을 보여 학력과 표준 발음 응답률의 상관성을 논하기 어려웠다. ‘ㄷ’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표준 발음 응답률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받침의 경우 주격 조사와 처격 조사 결합형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상승하였다. 그 외 다른 조사 결합형에서는 중졸자들이 표준 발음 비율을 가장 높았다.

출신지에 따른 표준 발음 응답률의 변이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동부 지역, 경기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표준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응답률이 경기 동부 지역 화자가 높았고 경기 서부 지역 화자들이 낮았다. 그러나 다른 사회 언어학적인 요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에서나 적용되는 일률적인 경향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치로 볼 때의 해석일 뿐이다.

참고 문헌

- 곽충구(1984)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91
- 국립국어연구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 백두현(199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 유필재(2001) “서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명옥(1974) “경남 삼천포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32
- 한국방언자료집(I) 경기도편(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ㄷ), (ㄷ)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제11권 1호
- J. C. Wells(1999) "British English pronunciation preferences: a changing sce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29

빈 면

부록 1. 설문지

1. 걸

1.1 이 옷은 속이랑 걸이 많이 다르네.

①거치 ②거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2 봉투 걸에다가 주소를 써주세요.

①거세다가 ②거테다가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3 내가 걸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

①거츠로는 ②거트로는 ③거스로는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4 걸의 모양만 보면 꼭 살아있는 짐승 같네.

①거테(거틱) ②거세(거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5 수박 걸아! 속은 맛있는데 너는 아니구나!

①거타 ②거사 ③거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2. 걸

2.1 아버지 걸이 비었으니까 빨리 가봐라.

①겨치 ②겨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2.2 자식을 걸에 두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지.

①겨세 ②겨테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2.3 네가 내 걸을 떠나려고?

①겨슬 ②겨를 ③겨틀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2.4 철수 걸의 베개 좀 줘라.

①겨세(겨식) ②겨테(겨틱)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2.5 엄마 걸아! 참으로 포근하구나.

①겨타 ②겨사 ③겨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3. 꽃

3.1 이 공원에는 꽃이랑 나비가 참 많구나.

①꼬치랑 ②꼬시랑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3.2 이 꽃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

- ①꼬세서 ②꼬체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3.3 다 시든 꽃으로 뭐 할래?

- ①꼬츠로 ②꼬스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3.4 이 꽃의 꽃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①꼬체(꼬칙) ②꼬세(꼬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3.5 꽃아! 정녕 아릅답구나!

- ①꼬차 ②꼬사 ③꼬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4. 끝

4.1 사람이 처음이랑 끝이 다르면 안 되지.

- ①끄시 ②끄치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4.2 손맛은 손끝에서 나온대.

- ①끄테서 ②끄세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4.3 사람이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지.

- ①끄슬 ②끄틀 ③끄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4.4 영화 끝의 분위기가 재밌더라.

- ①끄테(끄틱) ②끄세(끄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4.5 5월의 끝아! 네가 가니 아쉽다!

- ①끄타 ②끄사 ③끄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5. 낮

5.1 너한테 그랬으니 대할 낮이나 있겠냐?

- ①나시나 ②나치나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5.2 옷은 낮에 침 못 빨는다며?

- ①나체 ②나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5.3 무슨 낮으로 철수를 만나겠냐?

- ①나츠로 ②나스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5.4 웬지 낮의 빛깔이 좋지 않구나.

①나세(나식) ②나체(나치)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5.5 낮아! 갈수록 혈색이 좋아지는구나!

①나차 ②나사 ③나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6. 날

6.1 하늘에는 별 수천 날이 반짝인다.

①나치 ②나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6.2 사과 한 날에 오백원이다.

①나테 ②나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6.3 연필을 날으로 팝니까?

①나스로 ②나트로 ③나츠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6.4 공책 한 날의 가격은 사백원이다.

①나테(나퇴) ②나세(나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6.5 성냥개비 한 날아! 찾으려니 없구나.

①나타 ②나사 ③나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7. 높

7.1 높이 참 아름답구나.

①느피 ②느비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7.2 무선 조종 비행기가 높에 빠졌다.

①느페 ②느베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7.3 높을 들어다봐.

①느플 ②느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7.4 이 높의 깊이는 아무도 모른다.

①느페(느피) ②느베(느비)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7.5 높아!

①느파 ②느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8. 닳

8.1 달이랑 돛은 서로 달라.

①다치랑 ②다시랑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8.2 배 달에 구멍대가 걸려 있네.

①다체 ②다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8.3 고기잡이배의 달을 직접 들어본 적 있니?

①다출 ②다슬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8.4 저 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①다세(다식) ②다체(다치)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8.5 달아! 내 님을 실은 배를 멈추어주려므나!

①다차 ②다사 ③다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9. 돛

9.1 바람이 불어서 배 돛이 퍼져야 할 텐데.

①도치 ②도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9.2 저 배 돛에 있는 그림 보이니?

①도체 ②도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9.3 배 돛으로 천막을 만들 수 있을까?

①도츠로 ②도스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9.4 저 돛의 높이가 얼마예요?

①도체(도치) ②도세(도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9.5 돛아! 우리 배를 나가게 해다오!

①도차 ②도사 ③도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0. 뒤꼍

10.1 뒤꼍이 아니라 앞 마당에 있다니까.

①뒤껴치 ②뒤껴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0.2 자전거는 뒤꼍에 갖다 두었어.

①뒤껴테 ②뒤껴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0.3 너네 고양이 뒤꼍으로 갔어.

①뒤겨츠로 ②뒤겨스로 ③뒤겨트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0.4 뒤결의 우물에서 물 좀 퍼 와.

①뒤겨태(뒤겨틱) ②뒤겨세(뒤겨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0.5 뒤결아! 저절로 정리 좀 되어라.

①뒤겨타 ②뒤겨사 ③뒤겨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1. 머리말

11.1 잔디밭에 누우니까 머리말이 허전하네.

①머리마치 ②머리마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1.2 너 잘 때 용돈 머리말에 놓아두었는데.

①머리마테 ②머리마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1.3 거기 있잖아. 네 머리말을 더듬어봐.

①머리마틀 ②머리마출 ③머리마슬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1.4 머리말의 말이 뭘까?

①머리마테(머리마틱) ②머리마세(머리마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1.5 머리말아! 시원하고 좋구나.

①머리마타 ②머리마사 ③머리마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2. 몇

12.1 아이들이 몇이세요?

①며치세요 ②며시세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2.2 방금 화살이 숫자 몇에 꽂혔지?

①며세 ②며체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2.3 그거 사람 몇으로는 안 되지.

①며스로는 ②며츠로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2.4 이게 우리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죠.

①면며체(며척) ②면며세(며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2.5 이놈들 몇아!

①며차 ②며사 ③며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3. 무릎

13.1 꿇어 앉아 있으니 무릎이 아프지?

①무르피 ②무르비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3.2 반창고 좀 애 무릎에 붙여줘.

①무르페 ②무르베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3.3 무릎으로 누르니까 아프잖아!

①무르프로 ②무르브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3.4 무릎의 상처가 아직도 안 나았어.

①무르페(무르피) ②무르베(무르비)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3.5 무릎아! 많이 아팠지?

①무르파 ②무르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4. 물

14.1 몇 해 가물더니 강바닥 물이 나왔대.

①무치 ②무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4.2 물이랑 물에서 다 살 수 있는 동물이 뭐게?

①무체서 ②무테서 ③무세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4.3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면 당연히 물으로 가겠지.

①무트로 ②무스로 ③무츠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4.4 물의 사람들과 섬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낸다.

①무테(무티) ②무세(무시) ③무체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4.5 물아! 이 향긋한 흙 냄새여!

①무타 ②무사 ③무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5. 밭

15.1 바가지 밭이 샌다.

①미치 ②미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5.2 밭에서요?

①미세서요 ②미테서요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5.3 테니스 공이 차 밑으로 들어갔어.

- ①미트로 ②미츠로 ③미스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5.4 책상 밑의 먼지도 잘 닦아야 돼.

- ①미체(미치) ②미테(미티)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5.5 발 밑아! 물기 좀 말려라.

- ①미타 ②미사 ③미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6. 바깥

16.1 안이랑 바깥이랑 분위기가 꽤 다르구나.

- ①바까치랑 ②바까시랑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6.2 너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마.

- ①바까세 ②바까테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6.3 바깥으로 나가다가 들키면 알지?

- ①바까스로 ②바까트로 ③바까츠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6.4 형이 바깥의 물건들 치우래.

- ①바까테(바까티) ②바까세(바까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6.5 바깥아! 며칠동안 못 나가봐서 궁금하구나.

- ①바까타 ②바까사 ③ 바까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17. 덧

17.1 덧이랑 함정으로 들짐승을 잡아먹던 시절에는...

- ①더시랑 ②더치랑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7.2 노루가 덧에 걸려서 다쳤던데.

- ①더체 ②더세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7.3 쥐덧으로 족제비를 잡았어.

- ①더스로 ②더츠로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7.4 쥐덧의 부속이 하나 부러졌어.

- ①더체(더치) ②더세(더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7.5 더아!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주라.

- ①더차 ②더사 ③ 더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18. 발

18.1 가지고 계신 발이 얼마나 되세요?

- ①바시 ②바치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8.2 올해는 발에다 무얼 심으셨어요?

- ①바테다 ②바세다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8.3 빨리 발으로 가봐.

- ①바트로 ②바츠로 ③바스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8.4 발의 면적이 상당하네요.

- ①바테(바틱) ②바세(바식)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18.5 발아!

- ①바타 ②바사 ③ 바다 ④ 잘 모르겠음 ⑤기타()

19. 별

19.1. 별이 좋은데 같이 산책이나 할래요?

- ① 벼치 ② 벼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19.2. 너 얼굴이 별에 많이 그을렸구나.

- ① 벼테 ② 벼세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19.3. 햇별으로 불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뭐게?

- ① 벼트로 ② 벼스로 ③ 벼츠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19.4. 고추 말릴 때는 별의 양이 가장 중요하단िका.

- ① 벼테(벼틱) ② 벼세(벼식)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19.5. 오후의 별아! 장정의 어깨로도 너를 견뎌내기 어렵구나!

- ① 벼타 ② 벼사 ③ 벼다 ④ 잘 모르겠음 ⑤기타()

20. 부엌

20.1. 이 집은 부엌이 마음에 드네요.

- ① 부어키 ② 부어기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0.2. 너네 엄마 부엌에서 뭐 하시니?

- ① 부어켜서 ② 부어게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0.3. 그 민박집은 부엌은커녕 화장실도 따로 없던데?

- ① 부어큰커녕 ② 부어근커녕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0.4. 전통 부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① 부어케(부어키) ② 부어게(부어기)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0.5. 정든 부엌아! 널 떠나기가 괴롭구나.

- ① 부어카 ② 부어가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1. 빛

21.1. 햇빛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

- ① 비치 ② 비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1.2. 너는 달빛에서 뭐가 느껴지냐?

- ① 비체서 ② 비세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1.3. 그 사람은 때를 잘 타고 나서 빛을 본 거야.

- ① 비출 ② 비슬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1.4. 저 등불 빛의 색깔이 뭘로 보이냐?

- ① 비체(비치) ② 비세(비식)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1.5. 빛아! 세상 만물을 비춰라!

- ① 비차 ② 비사 ③ 비다 ④ 잘 모르겠음 ⑤기타()

22. 살갓

22.1. 아기 살갓이 참 부드럽지?

- ① 살까치 ② 살까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2.2. 뱀이 살갓에 닿는 상상만 해도 징그럽다야.

- ① 살까체 ② 살까세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2.3. 다이어트 한 뒤로 탄력 있는 살갓은커녕 피부가 엉망이 됐어.

- ① 살까춘커녕 ② 살까슨커녕 ③잘 모르겠음 ④기타()

22.4. 살갓의 색깔은 인종마다 다르지.

- ① 살까체(살까치) ② 살까세(살까식)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2.5 내 고운 살갓아! 햇별이 괴롭히는구나.

- ① 살가차 ② 살가사 ③ 살가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 살

23.1 살바를 당기면 살이 아프거든.

- ① 사치 ② 사시 ③ 사디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2 살바는 살에 감는 거야.

- ① 사테 ② 사세 ③ 사체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3 살을 감싸면 땀이 많이 날 걸.

- ① 사틀 ② 사슬 ③ 사출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4 씨름 선수는 살의 피부가 거칠대.

- ① 사테(사티) ② 사세(사식) ③ 사체(사치)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3.5 살아! 살바에 눌러 애쓰는구나.

- ① 사타 ② 사사 ③ 사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4. 새벽녘

24.1. 새벽녘이 돼서야 간신히 잠들었어.

- ① 새병녀키 ② 새병녀기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4.2. 새벽녘에 비가 왔었대.

- ① 새병녀케 ② 새병녀게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4.3. 새벽녘을 지나서야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니까.

- ① 새병녀클 ② 새병녀을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4.4. 새벽녘의 새소리는 정말 아름다워.

- ① 새병녀케(새병녀키) ② 새병녀게(새병녀기)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4.5. 새벽녘아! 너무 빨리 오지 말아라!

- ① 새병녀카 ② 새병녀가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25. 섶

25.1. 섶이랑 지푸라기랑 다 모아서 뭐 할려고?

- ① 서피랑 ② 서비랑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5.2. 섶에 불을 지피면 아주 잘 타지.

- ① 서페 ② 서베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5.3. 짚이랑 섶으로 뭐 하게?

- ① 서프로 ② 서브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5.4. 그 섶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 ① 서페(서픽) ② 서베(서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5.5. 섶아!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줘라.

- ① 서파 ② 서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6. 솔

26.1. 무쇠 솔이라 꽤 무겁구나.

- ① 소치라 ② 소시라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6.2. 솔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잘 조절해야 돼.

- ① 소테서 ② 소세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6.3. 작은 솔으로 밥을 했더니 모자라네.

- ① 소트로 ② 소스로 ③ 소츠로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26.4. 잠깐 나갔다 왔더니 솔의 바깥쪽이 다 탔지 뭐니?

- ① 소테(소틱) ② 소세(소식)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6.5. 솔아! 너는 우리 부엌의 보배로구나!

- ① 소타 ② 소사 ③ 소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7. 숯

27.1. 숯이 안 좋은 냄새를 없애준대.

- ① 수치 ② 수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7.2. 숯에 불 좀 붙여 봐. 고기 좀 굽게.

- ① 수체 ② 수세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7.3. 눈썹이 숯으로 그린 것 같구나.

- ① 수츠로 ② 수스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7.4. 숯의 용도가 참 다양하더구먼.

- ① 수체(수취) ② 수세(수식)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7.5. 숯아! 정말 검구나.

- ① 수차 ② 수사 ③ 수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28. 술

28.1. 나도 젊을 땐 머리술이 많았는데.

- ① 수치 ② 수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8.2. 머리술에 비해서 머리통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데.

- ① 수테 ② 수세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8.3. 우리 강아지 술을 정리하려고 술가위를 샀어.

- ① 수틀 ② 수술 ③ 수출 ④잘 모르겠음 ⑤ 기타()

28.4. 남자인데 술의 많고 적음이 뭐가 중요해?

- ① 수테(수퇴) ② 수세(수식) ③ 수체(수취)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28.5. 술아! 많기도 한걸.

- ① 수타 ② 수사 ③수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29. 숲

29.1. 숲이 깊어야 야생동물이 잘 살 수 있지.

- ① 수피 ② 수비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9.2. 그 숲에 나무가 울창하니?

- ① 수폐 ② 수배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9.3. 대도시에서는 숲은커녕 나무 한 그루 보기도 어렵지 뭐.

- ① 수픈커녕 ② 수븐커녕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9.3. 이 숲의 넓이가 얼마일까?

- ① 수페(수픽) ② 수베(수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29.5. 쏠아! 메아리를 들려다오!

- ① 수파 ② 수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0. 앞

30.1.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 ① 아피 ② 아비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0.2.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마찬가지로네.

- ① 아프로 ② 아브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0.3. 앞에서 이 말 하고 뒤에서 저 말 하면 안 되지.

- ① 아페서 ② 아베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0.4. 갑자기 앞의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야.

- ① 아페(아픽) ② 아베(아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0.5. 내 인생의 앞아! 제발 좀 열려라.

- ① 아파 ② 아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1. 옆

31.1. 네 그림은 옆이 허전하니까 더 칠해봐.

- ① 여피 ② 여비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1.2. 옆에서 맞장구 쳐주면 안 돼?

- ① 여페서 ② 여베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1.3. 고개 좀 옆으로 돌려 봐.

- ① 여프로 ② 여브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1.4. 옆의 사람 다치지 않게 조심해.

- ① 여페(여픽) ② 여베(여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1.5. 길 옆아! 시원하게 나무나 심어져라.

- ① 여파 ② 여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2. 오지랖

32.1. 그 사람 오지랖이 넓기도 하더라.

- ① 오지라파 ② 오지라비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2.2. 그 오지랖에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겠어.

- ① 오지라페 ② 오지라베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2.3. 그 넓은 오지랖으로 사업이나 하지 그래.

- ① 오지라프로 ② 오지라브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2.4. 누구 오지랖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어?

- ① 오지라페(오지라픽) ② 오지라베(오지라빅)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2.5. 오지랖아! 그만 좀 넓어져라.

- ① 오지라파 ② 오지라바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3. 옷

33.1. 어제 옷닭을 먹었더니 옷이 올랐네.

- ① 오치 ② 오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3.2. 이 장롱에 칠한 것은 옷에 뭔가 섞은 거야.

- ① 오체 ② 오세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3.3. 난 옷을 타잖아, 그래서 옷닭 못 먹어.

- ① 오출 ② 오슬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3.4. 원래 옷의 칠은 아무나 못 해.

- ① 오체(오척) ② 오세(오식)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3.5. 옷아! 빛깔이 참 곱구나.

- ① 오차 ② 오사 ③ 오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34. 옷

34.1. 옷이 참 잘 만들어졌네.

- ① 유치 ② 유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4.2. 이 옷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단다.

- ① 유체는 ② 유세는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4.3. 이 웃으로는 웃놀이하기 어렵겠네?

- ① 유츠로는 ② 유스로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4.4. 혹시 웃의 유래를 아세요?

- ① 유체(유척) ② 유세(유식)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4.5. 웃아! 제발 나와라.

- ① 유차 ② 유사 ③유다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

35. 잎

35.1. 이제 나무에 잎이 참 무성하더라.

- ① 이피 ② 이비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5.2. 저 나뭇잎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어.

- ① 이페 ② 이베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5.3. 잎을 먹고 자라는 벌레가 뭐지?

- ① 이플 ② 이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5.4. 비온 뒤에 나뭇잎의 빛깔이 더 선명해졌어.

- ① 이페(이픽) ② 이베(이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5.5. 잎아! 오늘 유난히 더 푸르구나.

- ① 이파 ② 이바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6. 짚

36.1. 저쪽에 가면 짚이 가득 쌓여 있어.

- ① 지피 ② 지비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6.2. 짚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 ① 지페서 ② 지베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6.3. 짚으로 이엉을 만들어서 초가집을 짓는 거야.

- ① 지프로 ② 지브로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6.4. 짚의 쓰임새가 참 여러 가지야.

- ① 지페(지픽) ② 지베(지빅) ③잘 모르겠음 ④ 기타()

36.5. 짚아! 오늘 비에 완전히 젖었구나.

- ① 지파 ② 지바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7. 팔

37.1. 아무리 우겨도 팔이 쏠이 되지는 않거든.

- ① 파치 ② 파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7.2. 여기 팔에서 돌 좀 가려내라.

- ① 파테서 ② 파세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7.3. 팔으로 메주를 쏘대도 곧이듣는다니까.

- ① 파트로 ② 파스로 ③ 파츠로 ④ 기타()

37.4. 이 팔의 색깔이 왜 이래?

- ① 파테(파티) ② 파세(파식) ③ 파체(파치) ④ 기타()

37.5. 팔아! 올해는 제발 많은 열려라.

- ① 파타 ② 파사 ③ 파다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38. 형쥬

38.1. 민속박물관에 형형색색의 형쥬이 진열되어 있더라고.

- ① 형거피 ② 형거비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8.2. 이 형쥬에 물감 그림이 그려질까?

- ① 형거페 ② 형거베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8.3. 남은 형쥬으로 인형 만들어 줄까?

- ① 형거프로 ② 형거브로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8.4. 형쥬의 촉감이 어때? 부드러워?

- ① 형거페(형거피) ② 형거베(형거비)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38.5. 형쥬아! 제발 좀 늘어나다오.

- ① 형거파 ② 형거바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

부록 2.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

다음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의 통계 결과이다.

전문 인터넷 설문 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구현한 후, 해당 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적격 대상자로 판단되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전자우편으로 모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응답자는 스물다섯 문항의 발음형을 정확히 청취하여 자신의 평소 발음과 가장 유사한 발음을 선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대와 30대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이 서울 지역에서 출생하고, 40대와 50대의 경우 본인이 서울 지역에 출생한 사람을 선정하였다. 105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는데 응답자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전체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4년제대	대학원	기타	200만원 이하	200-400	400만 원 이상
(명)	1052	532	520	319	319	312	102	4	212	191	525	109	11	492	421	139
남자	50.6			50.2	50.2	51.6	50	34.9	46.1	56.6	56.6	61.5	36.4	44.5	56.8	53.2
여자	49.4			49.8	49.8	48.4	50	65.1	53.9	43.4	43.4	38.5	63.6	55.5	43.2	46.8
20대	30.3	30.1	30.6						20.3	39.8	33	22	27.3	56.5	8.3	4.3
30대	30.3	30.1	30.6						33.5	31.9	27.2	38.5	18.2	22.4	42.8	20.9
40대	29.7	30.3	29					25	32.1	23.6	30.7	31.2	27.3	13.4	38.7	59.7
50대 이상	9.7	9.6	9.8					75	14.2	4.7	9.1	8.3	27.3	7.7	10.2	15.1
중졸 이하	0.4	0.4	0.4			0.3	2.9							0.8		
고졸	20.2	13.9	26.5	13.5	22.3	21.8	29.4							24.6	18.5	9.4
전문대	18.2	16.5	19.8	23.8	19.1	14.4	8.8							22.6	17.1	5.8
4년제대	49.9	55.8	43.8	54.2	44.8	51.6	47.1							44.5	51.3	64.7
대학원	10.4	12.6	8.1	7.5	13.2	10.9	8.8							6.5	12.6	17.3
기타	1.0	0.8	1.3	0.9	0.6	1.0	2.9							1.0	0.5	2.9
200	46.8	41.2	52.5	87.1	34.5	21.2	37.3	100	57.1	58.1	41.7	29.4	45.5			
200-400	40.0	44.9	35	11	56.4	52.2	42.2		36.8	37.7	41.1	48.6	18.2			
400	13.2	13.9	12.5	1.9	9.1	26.6	20.6		6.1	4.2	17.1	22	36.4			

이번 설문 조사의 스물다섯 단어는 모두 2001년에서 2003년 실시된 발음 실태 조사의 대상 중에서 선정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통계 자료를 각 항목의 결과 밑에 두어 참조토록 하였다.

문1. 김밥

‘김밥’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김밥] ②[김:밥] ③[김뽕] ④[김:뽕]

	전체	남	여
김뽕	78.6	79.5	77.7
김:뽕	16.8	15.8	17.9
김밥	2.5	3	1.9
김:밥	2.1	1.7	2.5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김뽕	85.6	85.9	67.9	66.7
김:뽕	10	11.3	26	27.5
김밥	2.2	1.6	3.5	2.9
김:밥	2.2	1.3	2.6	2.9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김뽕	75	77.4	75.9	79.4	80.7	90.9
김:뽕	25	19.8	19.4	16	11	9.1
김밥		0.9	2.6	2.5	5.5	
김:밥		1.9	2.1	2.1	2.8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김뽕	80.3	79.8	69.1
김:뽕	15	16.2	25.2
김밥	2.2	2.6	2.9
김:밥	2.4	1.4	2.9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김밥	김(:)뽕	4.1(2)	4.3(3)	5.8(4)	9.9(7)	12.1(11)	7.7(27)	2003
	김(:)뽕	97.9(47)	95.7(67)	94.2(65)	90.1(64)	87.9(80)	92.3(323)	2003

* 괄호 안의 숫자는 인원수, 괄호 밖의 숫자는 백분율을 가리킨다.

문2. 선릉

서울 강남 방면에 있는 '선릉'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선능] ②[설릉]

	전체	남	여
선능	81	78.9	83.1
설릉	19	21.1	16.9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선능	76.8	80.9	86.2	78.4
설릉	23.2	19.1	13.8	21.6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선능	75	85.4	80.1	79.6	80.7	81.8
설릉	25	14.6	19.9	20.4	19.3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선능	79.1	81.9	84.9
설릉	20.9	18.1	15.1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선릉	선능	75.5(37)	71.4(50)	88.4(61)	77.5(55)	80.2(73)	78.3(276)	2003
	설릉	24.5(12)	28.6(20)	11.6(8)	22.5(16)	19.8(18)	21.1(74)	2003

문3. 온라인²⁴⁾

‘온라인’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온나인] ②[올라인] ③[온라인]

	전체	남	여
올라인	52.4	51.7	53.1
온나인	31.7	34	29.4
온라인	15.9	14.3	17.5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올라인	62.1	51.1	45.5	47.1
온나인	20.1	32.6	41.3	36.3
온라인	17.9	16.3	13.1	16.7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올라인	100	56.6	53.9	49.7	51.4	63.6
온나인		29.2	29.8	35.8	23.9	9.1
온라인		14.2	16.2	14.5	24.8	27.3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올라인	611.6	45.1	41.7
온나인	20.5	40.4	45.3
온라인	17.9	14.5	12.9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온라인	올라인	24.1(19)	26.3(21)	24.7(18)	26.3(20)	27.1(16)	25.6(94)	2001
	온나인	41.8(33)	42.5(34)	37(27)	40.8(31)	42.4(25)	40.9(150)	2001
	온라인	34.2(27)	31.3(25)	38.4(28)	32.9(25)	30.5(18)	33.5(123)	2001

24) 현장 실태 조사([온라인] 우세)와 인터넷 실태 조사([올라인] 우세) 결과가 유일하게 엇갈린 발음이 었다.

문4. 밤사이

‘밤사이에 내린 비’에서 ‘밤사이’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밤싸이] ②[밤사이]

	전체	남	여
밤사이	70.5	63.9	77.3
밤싸이	29.5	36.1	22.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밤사이	74.9	67.7	69.9	67.6
밤싸이	25.1	32.3	30.1	32.4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밤사이	50	71.2	72.3	70.5	68.8	54.5
밤싸이	50	28.8	27.7	29.5	31.2	45.5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밤사이	72.6	68.4	69.8
밤싸이	27.4	31.6	30.2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밤사이	밤사이	83.7(41)	80(56)	79.7(55)	50.7(36)	53.8(49)	67.7(237)	2003
	밤싸이	16.3(8)	20(14)	20.3(14)	49.3(35)	46.2(42)	32.3(113)	2003

문5. 수놈

‘암놈’과 상대되는 ‘수놈’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순놈] ②[수놈]

	전체	남	여
순놈	96.7	97	96.3
수놈	3.3	3	3.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놈	98.1	97.2	95.2	95.1
수놈	1.9	2.8	4.8	4.9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순놈	100	94.8	96.9	96.8	99.1	100
수놈		5.2	3.1	3.2	0.9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순놈	96.1	97.6	95.7
수놈	3.9	2.4	4.3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수놈	수놈	0(0)	1.43(1)	1.45(1)	0(0)	3.3(3)	1.43(5)	2003
	순놈	100(49)	98.6(69)	98.6(68)	100(71)	96.7(88)	98.6(345)	2003

문6. 원룸

‘원룸’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원눔] ②[월룸] ③[원룸]

	전체	남	여
원눔	78.2	77.6	78.8
원룸	13.2	12	14.4
월룸	8.6	10.3	6.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원눔	75.5	79.3	79.2	80.4
원룸	14.4	13.8	13.5	6.9
월룸	10	6.9	7.4	12.7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원눔	100	84.9	79.1	77.1	69.7	63.6
원룸		9	12.6	14.5	16.5	18.2
월룸		6.1	8.4	8.4	13.8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원눔	76	80.3	79.9
원룸	13.6	13.1	12.2
월룸	10.4	6.7	7.9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원룸	월룸	35.4(28)	31.3(25)	15.1(11)	23.7(18)	16.9(10)	25.1(92)	2001
	원눔	40.5(32)	47.5(38)	63(46)	47.4(36)	55.9(33)	50.4(185)	2001
	원룸	24.1(19)	21.3(17)	21.9(16)	28.9(22)	27.1(16)	24.5(90)	2001

문7. 게임

‘게임’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게임] ②[게임]

	전체	남	여
게임	88.1	87.4	88.8
게임	11.9	12.6	11.2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게임	92.2	88.4	84.6	85.3
게임	7.8	11.6	15.4	14.7

	중졸	고졸	전문대 재 학/졸업	4년제 재학 /졸업	대학원 재 학/졸업	기타
게임	100	88.2	87.4	90.5	77.1	90.9
게임		11.8	12.6	9.5	22.9	9.1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게임	90.4	87.2	82.7
게임	9.6	12.8	17.3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게임	게임	4.3(1)	3(1)	22.2(7)	24.2(10)	19.2(6)	14(43)	2001
	게임	95.7(66)	97(64)	77.8(42)	75.8(50)	80.8(42)	86(307)	2001

문8. 인사말

‘인사말’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인산말] ②[인사말]

	전체	남	여
인산말	96.1	94.5	97.7
인사말	3.9	5.5	2.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산말	97.8	97.2	94.9	91.2
인사말	2.2	2.8	5.1	8.8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인산말	100	95.3	96.9	96	96.3	100
인사말		4.7	3.1	4	3.7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인산말	96.7	95.7	95
인사말	3.3	4.3	5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인사말	인사말	4.1(2)	2.9(2)	7.2(5)	9.9(7)	26.4(24)	11.4(40)	2003
	인산말	95.9(47)	97.1(68)	92.8(64)	90.1(64)	73.6(67)	88.6(310)	2003

문9. 잼

‘잼 바른 빵’에서 ‘잼’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잼] ②[잼]

	전체	남	여
잼	92.6	93.2	91.9
잼	7.4	6.8	8.1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잼	93.4	93.1	91.7	91.2
잼	6.6	6.9	8.3	8.8

	중졸	고졸	전문대 재 학/졸업	4년제 재학 /졸업	대학원 재 학/졸업	기타
잼	100	92.9	92.1	93.9	89	63.6
잼		7.1	7.9	6.1	11	36.4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잼	92.5	93.6	89.9
잼	7.5	6.4	10.1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잼	잼	29.5(23)	20(18)	31.4(22)	25(19)	35.6(21)	28.4(103)	2001
	잼	70.5(55)	80(72)	68.6(48)	75(57)	64.4(38)	71.6(260)	2001

문10. 강약

‘강약을 조절하다’에서 ‘강약’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강낙] ②[강약]

	전체	남	여
강낙	94	91.4	96.7
강약	6	8.6	3.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강낙	95.6	93.4	93.9	91.2
강약	4.4	6.6	6.1	8.8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강낙	100	93.9	95.8	93.1	94.5	100
강약		6.1	4.2	6.9	5.5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강낙	93.9	94.5	92.8
강약	6.1	5.5	7.2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강약	강낙	91.7(33)	88.1(37)	88.4(38)	78.6(33)	74.5(35)	83.8(176)	2002
	강약	8.3(3)	11.9(5)	11.6(5)	21.4(9)	25.5(12)	16.2(34)	2002

문11. 반값

‘반값 세일’에서 ‘반값’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반:값] ②[반:값] ③[반값] ④[반값]

	전체	남	여
반값	45.1	46.1	44
반:값	43.4	41	46
반값	8.5	10	6.9
반:값	3	3	3.1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반값	52.0	48.6	37.5	35.3
반:값	34.8	41.4	53.5	46.1
반값	10.0	8.8	5.8	10.8
반:값	3.1	1.3	3.2	7.8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반값		44.3	40.3	46.9	45.9	63.6
반:값	50	45.8	44	43.6	38.5	27.3
반값	50	8	11	6.7	11.9	9.1
반:값		1.9	4.7	2.9	3.7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반값	48	45.1	34.5
반:값	40.2	44.4	51.8
반값	8.7	7.4	10.8
반:값	3		2.9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반값	반값	2(1)	0(0)	15.9(11)	14.1(10)	39.6(36)	16.6(58)	2003
	반:값	98(48)	100(70)	84.1(58)	85.9(61)	60.4(55)	83.4(292)	2003

문12. 수소

‘암소’와 상대되는 ‘수소’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수쏘] ②[수소]

	전체	남	여
수쏘	87.6	87	88.3
수소	12.4	13	11.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수쏘	87.5	89.3	86.5	86.3
수소	12.5	10.7	13.5	13.7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수쏘	50	86.8	84.3	89.1	81.9	89.9
수소	50	13.2	15.7	10.9	10.1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수쏘	86.6	87.2	92.8
수소	13.4	12.8	7.2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수소	수소	4.1(2)	1.4(1)	4.3(3)	4.2(3)	8.8(8)	4.9(17)	2003
	수쏘	95.9(47)	98.6(69)	95.7(66)	95.8(68)	91.2(83)	95.1(333)	2003

문13. 관건

‘이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에서 ‘관건’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관건] ②[관건]

	전체	남	여
관건	93.3	92.1	94.6
관건	6.7	7.9	5.4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관건	95.3	94.7	90.7	91.2
관건	4.7	5.3	9.3	8.8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관건	100	96.7	91.1	93	92.7	90.9
관건		3.3	8.9	7	7.3	9.1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관건	94.9	93.1	88.5
관건	5.1	6.9	11.5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관건	관건	4.1(2)	4.3(3)	17.4(12)	7(5)	31.9(29)	14.6(51)	2003
	관건	95.9(47)	95.7(67)	82.6(57)	93(66)	68.1(62)	85.4(299)	2003

문14. 바나나

‘바나나’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빠나나] ②[바나나]

	전체	남	여
바나나	50.2	46.8	53.7
빠나나	49.8	53.2	46.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바나나	49.2	53.6	49.4	45.1
빠나나	50.8	46.4	50.6	54.9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바나나		49.5	52.9	49	52.3	72.7
빠나나	100	50.5	47.1	51	47.7	27.3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바나나	49.6	50.8	50.4
빠나나	50.4	49.2	49.6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바나나	바나나	54.7(41)	53.4(39)	47.1(33)	43.1(31)	52.6(30)	50.1(174)	2001
	빠나나	45.3(34)	46.6(34)	52.9(37)	56.9(41)	47.4(27)	49.9(173)	2001

문15. 효과

‘파급 효과가 크다’에서 ‘효과’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효:파] ②[효:파] ③[효과] ④[효과]

	전체	남	여
효과	59.8	61.8	57.7
효:파	17.2	17.3	17.1
효:과	14.4	13.3	15.4
효과	8.7	7.5	9.8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효과	61.4	64.3	57.4	48
효:파	10.3	16.9	22.8	22.5
효:과	16	11.3	13.8	20.6
효과	12.2	7.5	6.1	8.8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효과	75	62.3	57.6	58.7	63.3	63.6
효:파	25	19.8	19.4	16	14.7	9.1
효:과		14.2	14.7	14.9	11.9	18.2
효과		3.8	8.4	10.5	10.1	9.1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효과	60.4	60.6	55.4
효:파	14.4	19.5	20.1
효:과	15	11.9	19.4
효과	10.2	8.1	5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효과	효과	18.4(9)	11.4(8)	11.6(8)	7(5)	11(9)	11.1(39)	2003
	효파	81.6(40)	88.6(62)	88.4(61)	93(66)	89(82)	88.9(311)	2003

문16. 교과서

‘교과서’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교:파서] ②[교:과서] ③[교ㅍㅍ서] ④[교과서]

	전체	남	여
교ㅍㅍ서	45.8	47.6	44
교:과서	23.5	21.8	25.2
교:파서	17.6	17.7	17.5
교과서	13.1	13	13.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교ㅍㅍ서	50.8	43.9	45.8	36.3
교:과서	23.5	24.5	22.4	23.5
교:파서	10.7	16.3	22.8	27.5
교과서	15	15.4	9	12.7

	중졸	고졸	전문대 재 학/졸업	4년제 재학 /졸업	대학원 재 학/졸업	기타
교ㅍㅍ서	75	44.8	44.5	45	54.1	36.4
교:과서		24.5	20.9	25	18.3	36.4
교:파서		20.3	17.8	18.1	11.9	
교과서	25	10.4	16.8	12	15.6	27.3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교ㅍㅍ서	46.3	46.1	43.2
교:과서	21.3	25.4	25.2
교:파서	16.3	16.4	25.9
교과서	16.1	12.1	5.8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교과서	교과서	34.7(17)	31.4(22)	33.3(23)	47.9(34)	54.9(50)	41.7(146)	2003
	교ㅍㅍ서	65.3(32)	68.6(48)	66.7(46)	52.1(37)	45.1(41)	58.3(204)	2003

문17. 반창고

‘반창고’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반창꼬] ②[반창고]

	전체	남	여
반창꼬	88.5	87.4	89.6
반창고	11.5	12.6	10.4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반창꼬	88.1	89	89.1	86.3
반창고	11.9	11	10.9	13.7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반창꼬	75	93.4	89.5	86.5	89	72.7
반창고	25	6.6	10.5	13.5	11	27.3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반창꼬	87.8	90	86.3
반창고	12.2	10	13.7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반창고	반창고	14.3(7)	14.3(10)	20.3(14)	21.1(15)	39.6(36)	23.4(82)	2003
	반창꼬	83.7(41)	82.9(58)	76.8(53)	73.2(52)	58.2(53)	73.4(257)	2003
	반창코	2(1)	2.9(2)	2.9(2)	5.6(4)	2.2(2)	3.1(11)	2003

문18. 발자취

‘행인의 발자취’에서 ‘발자취’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발짜취] ②[발자취]

	전체	남	여
발자취	79.8	77.4	82.1
발자취	20.2	22.6	17.9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발자취	84.6	86.2	71.8	68.6
발자취	15.4	13.8	28.2	31.4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발자취	50	76.4	82.7	80.2	79.8	81.8
발자취	50	23.6	17.3	19.8	20.2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발자취	81.3	80.3	72.7
발자취	18.7	19.7	27.3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발자취	발자취	85.7(42)	81.4(57)	85.5(59)	78.9(56)	72.5(66)	80(280)	2003
	발짜취	14.3(7)	18.6(13)	14.5(10)	21.1(15)	27.5(25)	20(70)	2003

문19. 뽕지

‘금을 뽕지 마라’에서 ‘뽕지’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밥:찌] ②[발:찌] ③[밥찌] ④[발찌]

	전체	남	여
발:찌	44.3	42.5	46.2
발찌	32.7	33.1	32.3
밥찌	14.3	15.6	12.9
밥:찌	8.7	8.8	8.7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발:찌	37.6	43.3	49.7	52
발찌	40.4	34.2	25	27.5
밥찌	15	15.7	12.2	13.7
밥:찌	6.9	6.9	13.1	6.9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발:찌	50	46.2	40.8	44.8	44	45.5
발찌	50	29.2	33.5	33.9	32.1	27.3
밥찌		17	15.7	12.2	16.5	18.2
밥:찌		7.5	9.9	9.1	7.3	9.1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발:찌	41.3	45.4	51.8
발찌	33.9	34.7	22.3
밥찌	16.5	12.1	12.9
밥:찌	8.3	7.8	12.9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뽕지	발찌	65.3(32)	65.7(46)	62.3(43)	66.2(47)	60.4(55)	63.7(223)	2003
	밥찌	30.6(15)	31.4(22)	36.2(25)	29.6(21)	38.5(35)	33.7(118)	2003
	뽕:찌	4.1(2)	2.9(2)	1.4(1)	4.2(3)	1.1(1)	2.6(9)	2003

문20. 밤이슬

‘밤이슬을 피할 거처’에서 ‘밤이슬’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밤니슬] ②[밤이슬]

	전체	남	여
바미슬	87.4	85.5	89.2
밤니슬	12.6	14.5	10.8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바미슬	90.9	92.5	82.1	76.5
밤니슬	9.1	7.5	17.9	23.5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바미슬	75	87.3	86.9	87.6	88.1	81.8
밤니슬	25	12.7	13.1	12.4	11.9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바미슬	88.4	86.7	85.6
밤니슬	11.6	13.3	14.4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밤이슬	바미슬	91.8(45)	94.3(66)	84.1(58)	76.1(54)	84.6(77)	85.7(298)	2003
	밤니슬	8.2(4)	5.7(4)	15.9(11)	23.9(17)	15.4(14)	14.3(50)	2003

문21. 영영

‘그와는 영영 이별이다’에서 ‘영영’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영:녕] ②[영:영] ③[영녕] ④[영영]

	전체	남	여
영:녕	53.4	50	56.9
영녕	42.4	46.4	38.3
영:영	2.5	1.5	3.5
영영	1.7	2.1	1.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영:녕	46.7	49.8	62.5	57.8
영녕	48.3	46.7	34.6	34.3
영:영	2.2	1.9	1.9	6.9
영영	2.8	1.6	1	1

	중졸	고졸	전문대 재 학/졸업	4년제 재학 /졸업	대학원 재 학/졸업	기타
영:녕	25	54.2	52.9	54.3	49.5	54.5
영녕	25	41.5	41.9	42.3	45.9	45.5
영:영	25	2.8	3.1	1.9	2.8	
영영	25	1.4	2.1	1.5	1.8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영:녕	52	53.2	59
영녕	42.1	44.4	37.4
영:영	3.3	1.4	2.9
영영	2.6	1	0.7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영영	영녕	88.9(32)	88.1(37)	95.3(41)	92.9(39)	85.1(40)	90.(189)	2002
	영영	11.1(4)	11.9(5)	4.7(2)	7.1(3)	14.9(7)	10(21)	2002

문22. 버스

‘버스’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빠쓰] ②[버쓰] ③[버스]

	전체	남	여
빠쓰	64.6	68.4	60.8
버쓰	32.8	28.6	37.1
버스	2.6	3	2.1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빠쓰	68.7	59.2	64.1	70.6
버쓰	30.4	38.9	30.4	28.4
버스	1	1.9	5.4	1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빠쓰	75	61.8	62.3	67.6	60.6	54.5
버쓰	25	36.8	35.1	29.5	35.8	45.5
버스		1.4	2.6	2.9	3.7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빠쓰	65.2	64.4	63.3
버쓰	32.9	32.8	32.4
버스	1.8	2.9	4.3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버스	버쓰	28.4(19)	33.3(23)	22.4(15)	21.5(14)	20.4(10)	26.4(81)	2001
	빠쓰	71.6(48)	66.7(46)	77.6(42)	78.5(51)	79.6(39)	73.6(226)	2001

문23. 노근리

‘노근리 사건의 진상’에서 ‘노근리’를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노근니] ②[노글리]

	전체	남	여
노근니	85.3	83.8	86.7
노글리	14.7	16.2	13.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노근니	81.5	86.8	86.9	87.3
노글리	18.5	13.2	13.1	12.7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 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노근니	100	87.7	86.9	84.8	79.8	81.8
노글리		12.3	13.1	15.2	20.2	18.2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노근니	85	85.7	84.9
노글리	15	14.3	15.1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노근리	노근니	85.7(42)	78.6(55)	84.1(58)	78.9(56)	74.4(67)	79.7(278)	2003
	노글리	12.2(6)	15.7(11)	13(9)	14.1(10)	21.1(19)	15.8(55)	2003
	노근리	2(1)	5.7(4)	2.9(2)	7(5)	4.4(4)	4.6(16)	2003

문24. 돌담

‘돌담을 쌓다’에서 ‘돌담’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돌:맘] ②[돌:담] ③[돌맘] ④[돌담]

	전체	남	여
돌맘	49.8	53.8	45.8
돌:담	20.3	17.3	17.3
돌담	15	14.7	14.7
돌:맘	14.8	14.3	14.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돌맘	53.9	51.4	47.8	38.2
돌:담	16.6	19.1	23.7	25.5
돌담	17.2	14.7	13.5	13.7
돌:맘	12.2	14.7	15.1	22.5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돌맘	25	47.6	47.1	49.3	62.4	45.5
돌:담		24.5	19.9	19.8	16.5	18.2
돌담	25	12.3	15.2	15.8	14.7	27.3
돌:맘	50	15.6	17.8	15	6.4	9.1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돌맘	52.6	48.9	42.4
돌:담	17.5	21.4	27.3
돌담	15.2	15.4	12.9
돌:맘	14.6	14.3	17.3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돌담	돌담	24.5(12)	28.6(20)	36.2(25)	43.7(31)	48.4(44)	37.7(132)	2003
	돌맘	75.5(37)	71.4(50)	63.8(44)	56.3(40)	51.6(47)	62.3(218)	2003

문25. 불법

‘불법 주차’에서 ‘불법’을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①[불뻑] ②[불법]

	전체	남	여
불뻑	87.2	86.8	87.5
불법	12.8	13.2	12.5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불뻑	90.3	85.6	87.2	82.4
불법	9.7	14.4	12.8	17.6

	중졸	고졸	전문대 재학/졸업	4년제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기타
불뻑	75	88.2	87.4	86.9	88.1	72.7
불법	25	11.8	12.6	13.1	11.9	27.3

	200 미만	200-400	400 이상
불뻑	87.6	88.6	81.3
불법	12.4	11.4	18.7

단어	발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연도
불법	불법	2(1)	1.4(1)	7.2(5)	9.2(6)	20.9(19)	9.1(32)	2003
	불뻑	98(48)	88.6(69)	92.8(64)	90.8(65)	79.1(72)	90.9(318)	2003

부록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1995년) 자료

경기 동남부

	광주	이천	여주	안성
밧이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밧에	미테	미테	미테	미테다
결에	겨테	겨테/저테	여페/저트루	겨테
밧이	바치	바시라구/바치라		바치라구
밧을	바철	바출	바출	바철
밧에	바테다가	바테	바테	바테다
팔이	파치	파치	파치야	파치
팔을	파철	파슬	파철	파철
팔으로	파츠루	파시루	파츠루	파츠로
솔이	소치	소신데/소치여	소치	소시/소치라구
솔을	소철	소슬	소철	소슬
솔에	소테	소테다	소테두	소테다
시루밧을	시루미철	시루미치/시루미출	시루미출	시루미설
시루밧에	시루미체	시루미테	시루미테	시루미세
뒤결이	뒤꺼치	두꺼치/두꺼시	뒤꺼치	
뒤결에	뒤꺼테	두꺼테	뒤꺼테다	
부엌이	뵤:키	보:기/보:키지	뵤:키	부어키/부어기라
부엌에	뵤:케서	버:케서	뵤:키서	뵤:케서
숫이	수치	수치	수치라구	수시
숫을	수출	수설	수설	수설
숫에	수체다	수세다	수체다	수세다
열꽃이	연꼬치	꼬치		
열꽃을	연꼬출	꼬설		
웃이	밤:뉴시라구	유:치라구	유:치로군	유:시
웃을	유:출	유:까출	유출	유:설
덧이	도체	도시		도시나
덧을		도슬		도설
덧에		도세		도세
꽃을	꼬철	꼬출	꼬출	꼬설
꽃에서	꼬체서	꼬테	꼬체	꼬세서
무릎을	무루벌	무루블		
무릎에		무르베		무루베
짚이	지피지	지피	지피	지비

경기 동북부

	연천	포천	양주	남양주	양평	가평
밋이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밋에	미테	미테	미테	미테	미테다	미테다
곶에	겨테	겨테	겨테	겨테/저테	겨테루	저테
밭이	바치요	바시조	바치	바치조	바치	바치
밭을	바철	바슬	바츨	바츨/바슬	바츨	바츨
밭에	바테다	바테다	바테	바테	바테다	바테다
팔이	파치	파시	파치	파치	파치	파치
팔을	파철	파설	파철		파철	파츨
팔으로	파츠로	파스루	파트루	파트루/파츠루	파츠루	파츠루
솔이	소치	소시	소치	소치	소치라구	소치
솔을	소츨	소슬	소츨(소슬)	소츨	소철	소츨/소슬
솔에	소테다	소세다	소테다	소테	소테다	소티다
시루밋을	시루미츨		시루미츨	시루미치라	시루미치라구	시루미츨
시루밋에	시루미체		시루미테	시루미테	시루미테	시루미테
뒤곶이		뒤껴시	뒤껴시	뒤껴치	뒤껴치	
뒤곶에		뒤껴테	뒤껴테	뒤껴테	뒤껴테가	
부엌이	뷔:키	부어기	뷔키	부어기	뷔:키	뷔:키
부엌에	뷔:케서	부어개서	뷔케서	뷔:케서	부어케서	뷔:케서
숫이	수치	수시	수치	수치	수치	수치
숫을	수츨	수슬	수츨	수츨	수철	수츨
숫에	수테다	수세	수테다	수테다	수체다	수테다
열꽃이	열꼬치		꼬시	호녁고치	꼬치	열꼬시
열꽃을	열꼬철		꼬설	호녁꼬츨	꼬철	열꼬철
웃이	유시	유:시	유:시	유치	유:치체	유:치
웃을	유설	유:설	유:슬	유츨/유슬	유:츨	유:츨
덧이	도시	도시		쥐도시	쥐도치야	도치
덧을	도츨	도설		쥐도슬	도철	도철
덧에	도세	도세		쥐도세	도체	도체
꽃을	꼬츨	꼬설	꼬설	꼬츨	꼬철	꼬슬
꽃에서	꼬테서	꼬세서	꼬세서	꼬테서	꼬체서	꼬테서
무릎을	무루플	무루플	무루블	무르블	무루펠	무루플
무릎에	무루페	무루페	무루베다	무르베	무루페	
짚이	지피	지피	지비	지피지	지피라구	지비

경기 서남부

	용진	시흥	화성	용인	평택
밋이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밋에	미테	미테	미테	미테	미테
곁에	저티루	겨테	겨테	겨테	겨테
밭이	바치	바치조		바치라구	바시조
밭을	바틀	바철	바설	바출	바슬
밭에	바체/바세/바테	바테	바테다	바테	바티다
팔이	파시	파치	파시	파치	파시
팔을	파슬	파철	파설	파철	파설
팔으로	파스루	파츠로	파시루	파츠루	파스루
술이	소시	소치야	소시여	소치라구	소시
술을	소슬	소철	소슬		소슬
술에	소테다	소테다	소테다/소세다	소테	소티다
시루밋을	시루미틀	시루미슬	시루미슬	시루미슬	시루미슬
시루밋에	시루미테	시루미세다	시루미세	시루미태두	시루미시다
뒤곁이		뒤꺼시		뒤꺼치/뒤꺼시	
뒤곁에		뒤꺼세다		뒤꺼테	
부엌이	부어기/부어키	뵈:키	부어키	부어기	뵈:키
부엌에	부어케	뵈:케서	뵈:케서	뵈:케서	뵈:키서
숫이	수시구	수치야	수싱가	수치	수시
숫을	수슬	수철	수설		수설
숫에	수세다	수채다	수태두	수태다	수시다
열꽃이		꼬치	꼬치		열꼬시
열꽃을	꼬슬	꼬출	꼬출		열꼬슬
웃이	유시라구	유:시문	유:시	유:시	유:시
웃을	유:슬	유:설	유:설	유:설	유:슬
덧이	더시	도시	도시	도시지	도시
덧을	더슬	더설	도슬	도설/더설	도슬
덧에		도세	도센	도세	도세
꽃을	꼬설	꼬철	꼬출	꼬철	꼬설
꽃에서	꼬시서	꼬체서	꼬테서	꼬세서/꼬체서	꼬치서
무릎을	무루블		무루벌	무루블	무루블
무릎에	무루베		무루베	무루베	무루베
짚이	지비라구	지피지	지비	지비	지비

경기 서북부

	파주	강화	김포	고양
밀이	미치	미시	미치	미치
밀에	미테	미테	미테	미테
곁에	겨테	겨테	겨테	겨테
밭이	바시라구	바시라구	바시라	바치
밭을	바슬	바슬	바슬	바출
밭에	바세다	바세다	바테	바테다
팔이	파시	파시	파시	파치
팔을	파슬	파슬	파슬	파출
팔으로	파스루	파스루	파스루	파츠루
술이	소시	소시	소시	소치
술을	소슬	소슬	소슬	소출
술에	소세다	소테다	소테	소테다
시루미를	시루미슬	시루미슬	시루미슬	시루미출
시루미에	시루미테	시루미테다	시루미세	시루미테
뒤곁이	뒤껴시	뒤껴시		두꺼치
뒤곁에	뒤껴테	뒤껴테		두꺼테
부엌이	부어기	부어기	부어키/부어기	버:키
부엌에	부어개서	뽕:개서	부어게서	버:케서
숫이	수시	수시	수시라구	수치
숫을	수슬	수슬	수슬	수출
숫에	수세다	수세다	수세	수테다
열꽃이	열꼬시	꼬시	꼬시	꼬치
열꽃을	열꼬슬			꼬출
웃이	유:시	유:시아	유:시	유:치/유:시
웃을	유:슬	유:슬	유:슬	유:슬
덧이	더시	도시		도치/도시
덧을	더슬	도슬		도출
덧에	더세	도세		도체
꽃을	꼬슬	꼬슬	꼬슬	꼬출
꽃에서	꼬세서	꼬세서	꼬세서	꼬테서
무릎을	무루블	무루블		무루브
무릎에	무루베다	무루베		무르베
짚이	지비	지비	지비/지피라구	지피

- ◇ 책임 연구 : 최혜원(국어진흥부 학예연구사)
공동 연구 : 서민경(국립국어원 분석요원)
공동 연구 : 황연신, 권미영(국립국어원 위탁요원)

국립국어원 2004-1-11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2004년 12월 27일 인쇄
2004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남기심

발행처/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2669-9732

(팩스) 2669-9787

인쇄/원화인쇄

(전화) 2266-4410

(비매품)